

'95 1-2

EVENT NEWS

이벤트 산업을 선도하는 이벤트 종합 전문지

월간 **이벤트뉴스**

특집 최영희

이벤트 산업을 내실과 활성화를 위한 1995년 이벤트를 진단한다

잡종문화

아름다운 것은 아름다운 생활 '95 미술의 해

초점

블라슬라이드쇼 등 일체적으로 전시 유길준과 개화의 꿈

가이드

세계 최대의 열기구 풍선잔치 세계열기구축제

해외이벤트

'95 영국 문화예술 페스티벌

다채로운 전통축제와 행사가 있는 홍콩

보고서

'95 서울 모터쇼 이렇게 열린다

여슈담

첨단과학이 부활시킨 실물크기 그대로 재현된 세계궁륭대전

이벤트 미디어

미래를 이끄는 정보통신사업, 정보 고속도로

이벤트 리포트

새로운 광고전략으로서의 이벤트산업

간담회

'95 한국국제·유리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간담회 결과보고





“무려,
22배나 쓰는 주부도
있습니다.”

합성세제, 반의 반도 많습니다.

**맑은 물을 마시는 일,
합성세제를 줄이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수질오염의 직접적 원인이며, 주부습진이나 발암성분 등 인체에도 많은 해를 끼치는 합성세제 — 합성세제는 끓여도 분해가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인산염은 영원히 남아 수질을 오염시킵니다. 한 여성단체가 합성세제 사용량을 조사해본 결과, 102명의 주부중 적량을 사용한 주부는 단 1명 뿐이었고, 대부분 4-5배를 사용했으며, 심지어 22배나 부어 쓴 주부도 있었다 합니다. 폐수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생활하수도 바로 이

합성세제가 주범 — 필요이상으로 많이 쓰는 합성세제가 우리가 마시는 물속에, 우리의 식탁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합성세제, 줄여쓰면 줄여쓸수록 오염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맑은 물을 마시는 일, 주부님들의 손에서 시작되는 “온누리 깨끗하게” 캠페인입니다.

주방에서 시작되는 “온누리 깨끗하게”

- 세탁시 세제는 반드시 계량컵을 사용합시다.
- 식기는 가능한 쌀씻은 물로 닦읍시다.
- 샴푸와 린스는 비누로 대체하면 모발보호에도 좋습니다.
- 후라이팬을 닦을 때, 먼저 휴지로 닦은 다음 닦읍시다.



「공익광고협의회」는 광고를 통해 보다 밝고 살기 좋은 사회를 건설하고자 한국방송광고공사에 의해 각계 전문인사들로 구성되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비영리기구입니다. 환경보전에 대해 좋은 의견이 계신 분은 731-7405~7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이벤트산업을 선도해 온
이벤트 종합 전문지.

Event News

더욱 새로워졌습니다.

'95년 1월.

국내 유일의 이벤트 전문 정보지로서
이벤트업계에게는 보다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독자 여러분들에게는 풍성한 지식과 신선한 화제를
충실히 전달해온 저희 **EVENT NEWS**는
창간 1주년을 맞이하여
기업과 이벤트회사간의 연결고리로서
더욱 새로운 이벤트문화 창조에 노력하고
독자에게는 보다 정확한 이벤트 정보를 제공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EVENT NEWS는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광고주와의 원활한 연결과 전문인력 흡수통로로써,
짧은 시일내에 자리잡은 저희 **EVENT NEWS**는
국내의 행사에 관련된 홍보사항이나 이벤트업계의 관련정보와
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니 관련업체 및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VENT NEWS는 항상 광고주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벤트전문지로서 위상을 지켜온 저희 **EVENT NEWS**는
기업과 이벤트회사간의 연결고리로서 그책임을 다하기 위해
기업 및 이벤트 관련업체의 광고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Event News 월간 이벤트뉴스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65-2

TEL : (02)540-4602/3 FAX : (02)542-7500

이 확인했습니다!

DHA 1위 아기밀 옴티마

한국소비자보호원 시험결과 아기 뇌세포를 활성화시켜주는 DHA성분이 아기밀 옴티마에 가장 많이 함유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DHA뿐만 아니라 18가지 영양성분에 CPP, 유청단백질, 유미네랄까지— 이제 아기의 미래를 위해 자신있게 선택해주시요. 남양아기밀 옴티마!

DHA 최고! 아기 두뇌발달을 위해 뇌세포를 활성화시켜주는 지능성분 DHA 최대 함유량을 확인하십시오.

판매 최대! 25년간 든든한 아기를 키워온 아기밀/ 주부님들의 신뢰로 가장 먼저 1억캔을 돌파했습니다.

수출 최초! 해외에서도 호평받는 신개념균형 이유식은 아기밀 옴티마뿐입니다.

성분 최다! 국내 최다 18가지 영양성분을 함유하여 영양과 흡수의 과학을 이룩했습니다.

* 어유(DHA)+쇠고기+쌀+멸치+다시마+달걀+우유+시금치+당근+감자+콩+딸기+오렌지+바나나+파인애플+토마토+치즈+꿀분말

100g당 DHA함량 아기밀옴티마: 57mg

A사: 17mg B사: 27mg C사: 13mg

이유식 전문메이커
 남양산업(주)

• 본사: (02)453-6151~5 • 육아상담실: (02)444-5152

표지설명



높이 93m · 램프 6만 5천개 설치한 엑스포 과학공원 한빛탑 트리 장식

■ 한빛탑 및 서문상징탑 트리 구성안

- 한빛탑
 - 트리길이 : 12,000M
 - 소비전력 : 300KW
 - 소요램프 : 60,000-65,000개
 - 트리간격 : 2M
 - 설치방법
 - 한빛탑 내부에서 트리라인을 연결하여 상공에서 지상으로 트리설치
 - 한빛탑 내부에서 전원 이용
 - 자동점등식 원카램프는 2M × 10M 간격으로 설치
 - 트리간격 : 2M
 - 자동점등식으로 설치해 화려한 색상 유지
- 서문입구 서문상징탑
 - 설치방법
 - 크레인을 사용하여 서문상단을 트리로 장식
 - 서문입구 중앙에 사랑의 종 설치
 - 자동점등식 원카램프 2M × 10M간격으로 설치

- 편집부 기자 김지혜, 김미순
- 디자이너 정경순, 임소영
- A.E 한용운
- 카피라이터 김성연
- 고문 정강한
- 발행인 및 편집인 박영미
- 인쇄인 윤택관

EVENT NEWS

이벤트 산업을 선도하는 이벤트 종합 전문지 월간 **이벤트뉴스** '95 1-2

CONTENTS

특집 좌담회 / 이벤트산업의 내실과 활성화를 위한 1995년 이벤트를 진단한다	10
집중분석 / 아름다운 마음 아름다운 생활 '95 미술의 해	15
초점 / 멀티슬라이드쇼 등 입체적으로 전시 유길준과 개화의 꿈	18
가이드 / 세계 최대의 열기구 풍선장치 세계열기구축제	22
해외이벤트 / '95 영국 문화예술 페스티벌	26
해외이벤트 / 다채로운 전통축제와 행사가 있는 홍콩	30
공간초대석 / 최첨단 조명과 음향시스템으로 대중음악의 메카로 자리매김 할 M 21홀	33
보고서 / '95 서울 모터쇼 이렇게 열린다	34
NEWS / 광복50주년 기념사업 주제어 및 휘장 · 로고 확정	36
이슈탐험 / 첨단과학이 부활시킨 실물경기 그대로 재현된 세계공룡대전	38
스키탐험 / 겨울 스포츠의 꽃 스키장 행사 스케치	41
이벤트 미디어 / 미래를 여는 정보통신사업, 정보 고속도로	42
이벤트 리포트 / 새로운 광고전략으로서의 이벤트산업	45
간담회 / '95 한국국제 요리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간담회 결과보고	48
이벤트만남 / 게오르기 키킨 '이데올로기 증언'전	50
조선조 한양입성 어가행렬	52
볼보 '95 라인 업 쇼	54
'95 봄여름컬렉션 - SFAA	56
동굴탐사 · 탐조여행	58
꿈, 음악 그리고 풍요로운 생활 서울국제음반박람회	60
전국수산물요리쇼씨대회	62
사계절 즐기는 알파인 실내스키	63
마카오 그랑프리 대회	64
아카펠라와 흑인음악 진수 선보인 보이즈 투 맨	65
EV 업체탐방 / 서울엔터프라이즈	66
여유가 있는 공간 / 이벤트 행사 기획하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68
EV 인물 / 두비컴 대표 최광일	69
현장 스케치 /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파티를 열자	70
콘테스트 현장 / 메이크업 분장 콘테스트	71
알립니다 / 정통 브로드웨이 뮤지컬 음악의 정수 뉴욕 팝스 오케스트라	72
행사일정 / 국내외 행사	74
인포메이션 / 1·2월 창립일을 맞는 기업명단	78
Focus / 서적 · 영화 · 음반 · 연극 · 광고	82

■ 관격월간 <이벤트 뉴스> / 1995년 1. 2월호 / 통권 8호 / 1994년 1월 21일 등록 / 등록번호 마-2064 / 1995년 1월 1일 발행 / 1년 정기 구독료 30,000원 / 낱권 6,000원 / 발행인 및 편집인 박영미 / 인쇄인 윤택관 / 발행 공금처 주식회사 원스콤 / 서울 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65-2 아취B/D 2F / 우편번호 135-010 / 전화 540-4602, 팩스 542-7500 / 인쇄처 일신정판사 / 월간 <이벤트 뉴스>는 한국 간행물 윤리 위원회의 도서잡지 윤리 강령 및 잡지 윤리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창간1주년을 맞이한 이벤트뉴스. 국내 이벤트문화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일년동안 저희 이벤트뉴스를 아껴주신 이벤트리스트 및 독자 여러분 !

올해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년초가 되면 새로운 각오와 벽찬 희망속에서 바라는 바가 많고

그만큼 연말이 되면 실망하면서도, 저희 이벤트뉴스가 올해도 변함없이

기대하는 것이 있으니 이는 다름아닌 이벤트산업의 경쟁력 제고입니다.

지난 한해동안 이벤트업계는 내부적으로 업계의 질적향상과 전문성을 제고시키는 한편
외부적으로는 경쟁력을 드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만, 선진국의 이벤트환경에
비교하면 아직도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벤트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이벤트업계에 종사하는 이벤트리스트들의 전문성
고취라고 생각합니다. 전문직업인으로서 자긍심과 더불어 국제화 시대에 뒤처지지 않는

전문성의 고양이 절실하며, 이를 위해서는 이벤트 매카니즘에 대한 이해와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을 양성하는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및 이벤트 정보 커뮤니케이션 통로를 확대해야합니다.

그리고 업체들은 날로 활성화되는 이벤트의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기획력의 배양과 아울러
백화점식 무분별한 행사진행에서 탈피해서 각 분야별 전문화를 조속히 정착시켜야 합니다.

이에 조그마한 보탬이 되고자 이벤트뉴스는 새해에도 변함없이 이벤트 전문 정보지로서,

국내이벤트 시장의 방향과 실상을 알리고 해외 이벤트 사례와 연구결과를 제공하는 한편,

이벤트회사간의 정보교환 창구, 이벤트에 대한 대중홍보 및 사회적 분위기 조성, 이벤트관련 지식 및
정보전달 등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이니, 이벤트전문지로서 제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금년에도 많은 격려와 사랑, 그리고 아낌없는 질책을 부탁드립니다.

올해년 새해를 맞이하여 이벤트산업에 큰 발전이 있기를 기원하며 창간1주년을 맞이하기까지
성원해주신 독자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발행인 및 편집인 박영미

월간이벤트뉴스

창간 1주년을 축하합니다

귀사의 창립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벤트의 불모지인 이땅에 단비와 같은 역할을
해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풍성하고 전문적인 내용이 담긴
월간 이벤트 뉴스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귀사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1994. 12. 29

한맥엔터테인먼트 이벤트 사업부

과장

張成鎔



귀여워 귀여워 이벤트 정보지 '이벤트 뉴스'의
창간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1994. 12. 29

(주) 임퍼리얼

대표 이사 申成鎔



창간 1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0주년 기념호에도 축하할 수 있는
이벤트 정보의 선구자 되길...

두비컴 대표 최 병이



EVENT NEWS의 창간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보내주신 EVENT 산업의 자람이로써
무궁한 발전은 기원합니다.

권러스 나인 이벤트 대표 최 유택
최 유택

이벤트뉴스 창간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우리 문화세계화의 주역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 문화체육부 장관 비서관 우진영

귀사의 무궁한 발전은 기원합니다.

- '이벤트 뉴스' 창간 1주년을 축하드리며.....
1994. 12. 29.
(木) 동화연락 EVENT.
래피 사업부.
유 인호 관장 회



앞선 것들에 영광이요!
EVENT!

항상 건강하고 재능과 상쾌한 NEWS를
제공하는 이벤트뉴스에 박수는 보냅니다.
창간 1주년 에 재능이 영연히
"함께" 하는 이벤트뉴스가 되기 바라며
우리에게 꼭 필요한
어디에서나 필요한
필수들이 되게까지
노력 해 주길 바랍니다.
"시작의 어려움은 최상의 성공으로 받는다"

최유택

이벤트 블로지에 새로운 씨앗을 심어
형성을 다해 가꾸려는 Event News에
진심으로 박수를 보냅니다.
모든 인파에 걸리지 않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길 기원하며
Event News 창간 1주년을 더불어
축하드립니다.

A-TEAM 부장 조종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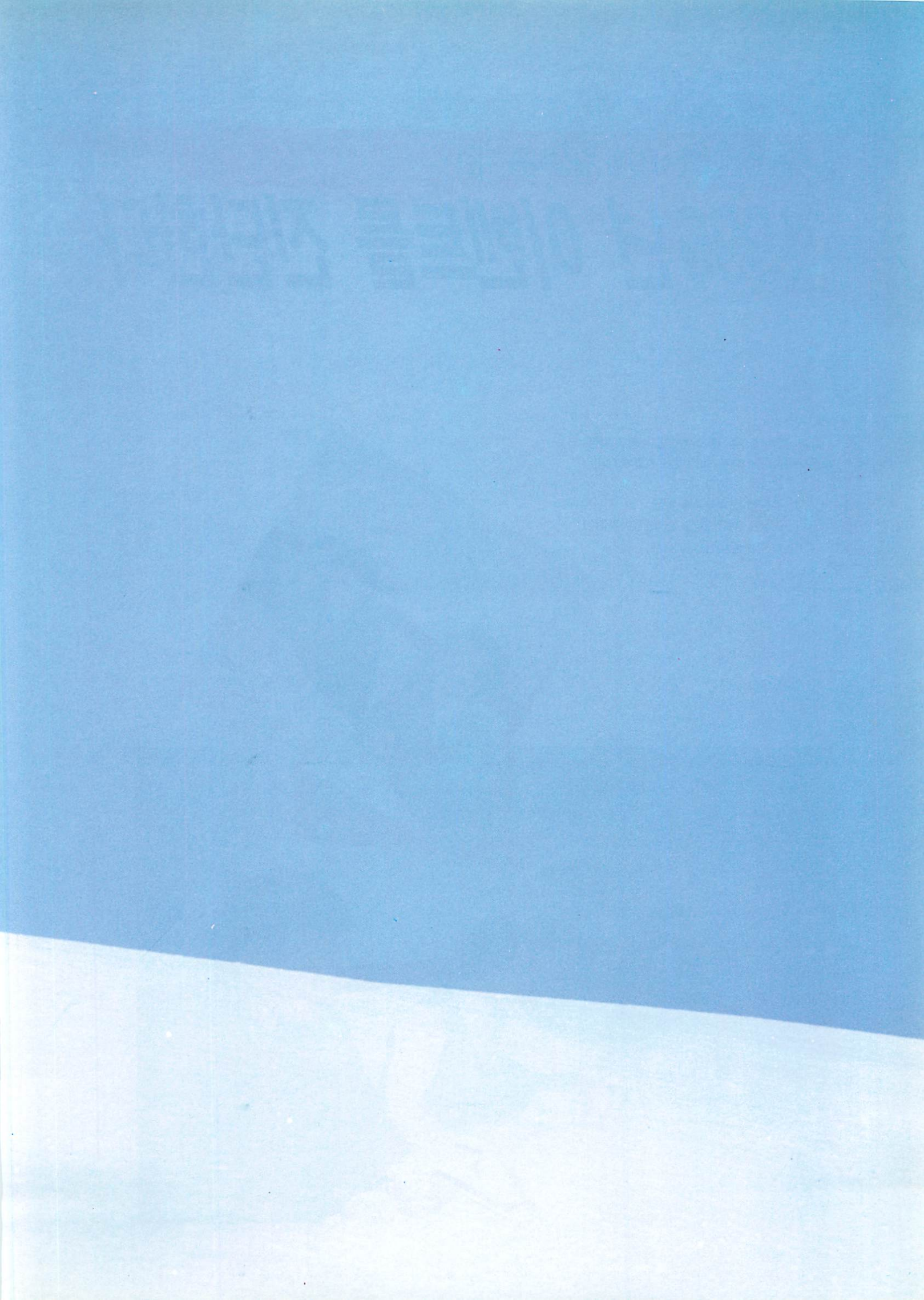
창간 1주년을 축하드리며,
앞으로 좋은 이벤트와 빠른 속도로
함께하길 바랍니다.
이벤트-어리버리드
金榮石

경춘리빙이벤트사업부 김장



謹
賀
新
年





이벤트산업의 내실과 활성화를 위한

1995년 이벤트를 진단한다

사회자 : 전상필 (주식회사 윈스콤 기획부 차장)
토론자 : 김태철 (대흥기획 이벤트사업부 대리)
 문승욱 (프러그 대표)
 우진영 (문화체육부 과장)
 정강환 (배재대학교 관광경영학과교수)
 최광일 (두비컴 대표)



이벤트산업은 현재 New Media로서 차츰 그 중요성이 부각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벤트는 아직 기존 4대 매체보다 이론이나 교육·전문화·제도화 등 여러가지 문제들이 정립되어 있지 못하고 client 또한 이에 대한 신뢰도나 인지도가 미약하여 마땅한 댓가 지불도 꺼려하는 실정입니다.

‘이벤트산업의 전망은 밝으나 준비정도는 취약하다’는 현실의 문제제기를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벤트산업 전망은 밝다고 하지만 이런 전망 만큼 전문화, 제도화, 업체간 관계 등이 제대로 뒷받침되어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 모든 문제가 연관되어 있지만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전문화라 볼 수 있습니다. 전문화라 함은 사람의 전문화와 업체전문화로 나뉘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일 : 우선 업체의 현재 상황을 간단히 표현하자면 임기응변적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벤트업체가 자선단체가 아닌 이상 영리추구를 위해 들어오는 일을 마다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다 보니 이벤트업체들은 어떤 일이든지 다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백화점식으로 일을 하게됩니다. 또한 이벤트회사도 마찬가지로 이벤트스트라 말할 수 있는 전문가가 아닌 일반 공연물 연출 혹은 응원단장 등 이에 종사했던 사람들이 설립하는 경우가 많았지요. 일반적인 발상이지만 앞으로는 이벤트 메카니즘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활용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즉 이벤트를 총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장인정신을 가지고 이 분야에 뛰어 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사회 : 이벤트 업체 선정 또한 전문화의 중요한 고리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정강환 : 이벤트업계 선정 평가는 무엇을 기준으로 합니까? 매출실적입니까? 아니면 사람이나 실적입니까?

최광일 : 여태까지는 소문이었죠. 지금 이벤트업계는 어느정도 매출액수나 실적과약이 가능하며 정보 한 두개만 받아봐도 그 업체가 이런 곳이거나 하는판단이 나오게 되죠.

김태철 : 대행사는 광고주에게 order를 맡으

면 가능한 캐릭터에 부합하는 업체를 선정하려고 노력 합니다. 10여개 정도 이벤트 회사들을 설정해 놓고 어느 업체가 더 전문성이 있는지 고심합니다. 저희는 기획사가 회사소개서를 갖고 올때 ‘어떤 부분이 강하십니까?’ 라고 묻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는 모든 것을 잘합니다’ 라고 대답하는 곳이 많습니다. 행사실적을 보면 별의별것이 다 있습니다. 거기서 기대감이 떨어집니다. 제작사나 프로덕션들이 ‘모든 일도 잘하지만 특히 이 부분을 더 잘합니다’라고 해야 대행사도 편안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점에서 앞으로 전문화가 되어 가야할 것입니다.

최광일 : 기획연출을 하는 기획사들의 단기 목표는 업체의 캐릭터를 형성하는 것이 되어야합니다. 또한 이벤트마인드를 전체적으로 컨트롤 할 수 있는 기능을 복합적으로 이루어 낼수있는 대행사는 어울리는 일을 어울리는 업체가 일할 수 있도록 풍토조성을 해야할 것입니다.

사회 : 업체전문화에 대한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전문화는 어떻게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정강환 : 사실 외국에서도 어떤 이벤트 프로그램을 정형화해서 이수과목을 만든다는 것은 힘들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요즘 미국 몇몇 대학의 스포츠 경영학과, 관광경영학과에서는 event management 라는 특별강좌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슨 과목을 배워서 전문가를 양성한다는 것은 이벤트분야 기초자격자를 육성한다는 개념일것입니다.

전문가로 인정받으려면 관광분야에서 미국의 예를 들어 설명하면 이벤트업계에서 적어도 5~6년 활동하고 횡수규정을 두어 매년 여러가지 세미나에 참석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event 관련 글을 써야 하고 발표도 하게 됩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 그 경력이 인정되면 CFE라는 자격증을 받게 됩니다. 이 자격증을 받은사람은 현재 90여명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는 석·박사학위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인정됩니다. 전문가 양성을 위해 우리나라에서도 구심점 역할을 할 어떤협회를 구성해 이와같은 방식을 참조하여 자격증제도를 도입



최광일 (두비컴 대표)

2개월 남짓한 신생업체인 두비컴의 대표입니다. 개인적 활동에서 이제는 조직적 차원으로의 질 높은 일을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공연이벤트 실무를 많이 진행하다 보니 공연연출을 많이한 것으로 이미지가 굳어져 있습니다. 실제 두비컴은 토탈 엔터테인먼트라 볼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문승욱 : 실무적인 입장에서 현재 업계에서 가장 좋은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곳을 소개할까 합니다. 제일기획에서는 매년 3월에 이벤트컬리지를 운영합니다. 이곳에서는 제일기획 결재방안에서 부터 선임자가 후임자를 1~2주일 교육을 시킵니다. 효과·무대·음향 대표가 1~2일 나와 강의도 하고 실무적인 감각을 가르칩니다. 그런후 상호 교류를 목적으로 이벤트실 직원들과 1박2일 동안 워크샵을 떠납니다. 이를 통해 실제 일을 풀어가는데 필요한 사항들을 배우게 되죠. 그리고 저희 회사의 경우 10~15일 정도 직원들과 함께 미국·일본 등 해외 연수를 다녀옵니다. 연수를 다녀온 직원은 시공할 때 부터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현장에서 감각이 달라지는 거지요. 하다못해 선 연결하나에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외국업체와 국내업체의 장단점을 확실히 파악합니다. 그 차이는 아주 중요하거죠. 해외연수가 경비는 좀 들겠지만 우리업체 같은 경우 안전사고 대비용으로도 이런 조그만 생각의 변화들은 4~5백만원 보다 더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우진영 : 저도 이벤트 학원 등에서 1주일에 3번씩 강의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지만 말만 들어 가지고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화를 위한 교육과정이 제대로 될려면 강의를 없애고 3달 동안 정말 이벤트팀을 만들



우진영 (문화체육부 과장)

문화체육부 장관실 과장으로 재직중이며 올림픽 개·폐회식 진행 등 정부행사를 맡아 왔습니다. 틈틈이 이벤트 관련 집필도 하고 사설학원에 출강도 하곤 합니다. 덧붙여 현재 정부에서 관심을 갖는 것은 크게 두가지로 정부주최의 각종 기념식 및 행사에서 구태의연성을 극복하고 어떻게 진행하느냐와 이벤트산업발전을 위한 책임을 어떤 부처산하가 어떻게 지원육성정책을 펴 나갈 것인가입니다.



정강환 (배재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

현재 배재대 관광경영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관광이벤트 관련 부분에서 연구를 해온 지 10년 정도 됩니다. 관광객들의 Life Style과 관광의 이벤트화를 통한 상품화 연구로 관광객 유치와 소비매출을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이 주 관심사이지요. 세계의 축제 조직자들이 모여있는 협회 회원이고 여기서 발행되는 국제 학술지 및 잡지의 편집위원이기도 합니다.

어 동사무소에서 하는 작은 행사들을 직접 담당해 실제 해 보고 그게 잘되면 회사나 기업체에서 필요한 행사들을 맡아 몇기 학생들이 그것에 참여했다는 식으로 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사회 : 지금까지 전문화에 대해 구체적인 말씀들을 잘 들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뒷받침해 줄 제도적 필요성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 해주셨으면 합니다.

최광일 : 실제적으로 이벤트를 담당하면서 어려운 작업은 밑바닥 작업입니다. 보수적인 절차와 행정자들의 깨기 힘든 고정관념 때문에 공연장과 같은 행사장을 잡기 어렵습니다. 비수기에도 이벤트회사 대관 대여 순위는 8순위입니다. 1순위는 체육행사 2순위는 시민행사 등등해서 8순위입니다. 대관신청을 넣어 두었다가도 구민행사가 들어오면 몇 억을 들인 행사가 행사대관이 되지 않을 경우가 생깁니다.

인허가 업무와 관련된 것에 아직도 상당히 많은 장벽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문화교류차원에서 고쳐져야 합니다. 클래식·팝 등 아시아 지역을 목표로 투어를 했던 공연팀들이 한국을 빼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보다 열악한 필리핀·태국까지도 걸쳐 가는데 우리나라를 빼고가는 이유가 바로 인허가 문제 때문이죠.

정강환 :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북경이나 일본에서 만나는 공연팀들이 한국에서는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최광일 : 국가적으로 어쩔 수 없는 제약도 있습니다. 외국 대형 엔터테이너에 있어 출연료 허가나 세금징수가 그것이지요. 이들 외국대형엔터테이너들은 그러한 문제들을 이해를 못합니다. 문화교류의 개방은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진영 : 지금은 이벤트 업체에 문화회사 name이 많이 불지만 처음엔 관촉회사 개념이었죠. SP 행사는 문체부 허락없이도 가능하지만 외국인 공연은 공연법상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공연이라든가 하는 이벤트는 문체부가 담당하고 다른것은 다른부처에서 담당합니다. 아직은 이벤트를 어느 부처에서 담당하느냐가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더구나

아직은 이벤트를 개선해야 할 점이나 정부에 건의하는 문서 등이 정리되어 있는 것도 없습니다. 이벤트를 할려면 어느 부처에서 될 하면 된다든지 이런것도 없습니다. 어떤 이벤트업체는 공연자 등록을 하고 외국인 공연을 해야 하는데 그런줄도 모르고 추진을 한 적도 있지요. 이벤트에 관계된 법조문도 조사해 놓은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벤트뉴스가 고정적으로 이런 제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하는 건의 내용을 발굴하여 실으면 이벤트업체나 정부가 아주 좋은 자료를 얻게되겠죠.

최광일 : 이벤트업체중에도 대형프로젝트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검증이 안되고 있습니다. 소리만 요란하지요. 행정을 보시는 정부관료들이 이런 사정에 어둡다는 전제하에 공연이벤트에 대한 인허가를 정부에서 위원회를 구성해 이것이 어울리느냐에 대한 판단을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리라 봅니다.

우진영 : 영화같은 경우는 공연윤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허가자체를 논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필요하다면 공연이벤트도 허가자체를 논의하는 위원회가 있어야 하겠습다.

사회 : 말씀을 듣고보니 이벤트뉴스에서 해야 할 일이 많군요. 제도화의 문제는 차후 저희 이벤트뉴스 지면을 통해 구체적으로 정리하도록 고정란을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업체간 관계와 협력업체에 대해 의견을 나누도록 하죠.

문승욱 : 제일기획의 예를 한번 더 들겠습니다. 이곳에서는 금년 3월부터 부팀 3팀, 무대 3팀, 조명 2팀, 영상중계팀 2팀, 효과 1팀, 음향 2팀 등으로 협력업체가 구성되었습니다. 매달 22~24일 동안 월 이벤트 동향을 보고하게 되어 있죠. 여지껏 했던 모든 이벤트 행사를 예산까지 적어 냅니다. 매달 말일이면 전국의 업자들에게 컨설팅되어 들어오죠. 또한 각 업체마다 전산망을 깔아주어 전산화가 이루어져 결재, 행사 등 다양한 정보를 알려 줄 계획입니다. 1년의 월간 이벤트 동향을 살펴보면 업자뿐 아니라 기획사 측면에서도 도움을 받게 되겠죠. 이벤트는 정보가 빠르면 시장선점에서 우위를 차지합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문승욱 (프로그 대표)

하드웨어 분야에서 특수효과 실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벤트 톨은 시각적으로 표현되는 효과의 일부분에 속하지요. 정부기관, 그룹사, 대행사 행사 등 굵직한 일을 주로 해왔으며 취급한 효과분야는 눈·비·바람·거미줄 등 아주 미세한 부분에서 효과전체를 이미지 연출하고 있습니다. 일본 NHK에서 2년간 근무하였고 대통령 참석 공식행사는 거의 맡아서 해왔지요. 하드업체는 셋트, 무대빛, 음향, 효과, 중계팀 등 많은 분야가 있습니다. 이 분야의 전문가들도 참석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군요.



김태철 (대흥기획 이벤트사업부 대리)

150여개의 client를 모시고 있는 대흥기획 프로모션 사업국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시 및 여러 이벤트 분야에 관여하면서 제작에 직접적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물량으로 인해 자체 내 소화가 어려워 제작사와 중간자 역할을 해오면서 대행사 최초로 자체 흥행사업을 시작했습니다. 95년엔 대중 공연도 기획중이며 공연이벤트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 바로 이러한 아이템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기획이 아무리 훌륭하다고 해도 따라 주는 협력업체가 없으면 안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벤트 컬러지, 위크샵, 이벤트 동향 및 컨설팅 등이 활성화 되었으면 합니다.

정강환 : 좋은 말씀입니다. 서로 정보를 교환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모임이 필요합니다.

정부의 시책이 이렇다 하면 이런 정보를 활용하고 학계에서도 업계에 이런 문제점이 있다하면 그런것을 이슈로 삼아 발전적 고민을 공유하는 거지요. 그러므로 이 분야의 문제는 이처럼 전문가들의 모임을 통한 정보교환으로 풀어갔으면 합니다.

김태철 : 제작사 나름대로 그런 모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대행사의 경우 SP 등을 담당하는 실무자들끼리 비공식적으로 친목단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제일기획과 같은 시스템을 시행하려고 준비중입니다.

우진영 : 여러가지 좋은 말씀입니다. 이벤트 자체의 성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횡적인 협력이라 생각합니다. 협력업체 중요성에 공감할 하는 것도 그 이유에서 입니다. 제가 지금 이벤트에 관한 책을 번역·출간할 예정인데 거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벤트는 22개의 우산 살을 갖고 있는 우산이다. 조명, 음향, 무대 등 여러가지 22개의 요소들이 우산 살 같이 딱 맞아줘야 이벤트가 성공되는 것이죠. 이런 뜻에서 협력업체가 중요합니다. 이벤트는 예술적인 면과 기술적인 면의 총합입니다. 거창하게 말하면 문화와 과학, 문화와 경제와의 만남입니다. 횡적으로는 22개의 우산 살이 있고 종적으로는 예술과 기술 2개가 합쳐지는 우산같이 생긴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벤트 구 중심에 있는 사람이 이벤트를 가장 잘 하는데 기획연출을 하는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진행하는 것입니다. 가령, 올림픽 행사가 성공하였다 하면 아이디어 낸 사람만 이것을 다한것으로 인식되어지죠. 이것은 아닙니다. 연결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이것을 가장 잘 하는 것이 이벤트이스트로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 : 협력업체의 중요성을 새삼 실감하게 되는군요. 그렇다면 업체상호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들리는 바에 의하면 업체간 과다경쟁으로 인한 덤핑 등 불편한 관계가 있다고 하던데...

최광일 : 그 문제에 있어서는 대행사에 불만이 많죠. 광고주의 예산절감을 같이 해야 한다는 고충은 있겠지만 대행사는 일반매체 비용에서 최대한의 수익을 얻고 이벤트는 그냥 해주라는 식의 사고방식을 깨야 합니다. 이벤트사업이 독자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부서가 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SP 부서는 적자입니다. 이벤트사업을 서비스로 인식하기 때문이죠. 이벤트이스트의 손을 거쳐서 행사를 잘 되게 하여 이벤트를 열심히 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익이 창출되었다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물품에 대한 가치의 관대함만큼 아이디어 즉 크리에이티브에 대한 가치도 인정되어야 하는 거죠. 이렇게 된다면 업체간 관계가 수직적이지 않고 수평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며 앞서 전술된 부분을 업체실무자들이 인지한다면 업체간 갈등 또한 사라지리라 봅니다. 그리고 대외비도 아닌데 업체들끼리 정보를 숨기고 싶어합니다. 업체끼리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면서 서로에게 신뢰를 형성하는 고리 또한 필요한데 이런점에서 협회나 모임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정강환 : 보통들 '이러한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의 문제가 중요합니다. 관광쪽도 여러가지 문제가 있었으나 '한구방문의 해'라 여론이 집중되고 산업화가 되다보니 하나 둘 씩 풀리더군요. 아마도 이벤트 역시 산업화와 여론화가 이루어지고 이를 수렴할 구심이 이루어지면 마찬가지로 제기된 문제가 풀릴것이라 봅니다.

사회 : 실제 일이란 결국 '錢'으로 귀결되는데 이벤트업계에서는 어떻습니까?

문승욱 : 대행사들간의 출연료는 의견이 분분한데 효과 등은 종목에 대한 단가표로만 봅니다. 그것도 2~3년전 단가표를 그대로 적용하지요. 효과를 단가로 보지 않고 현장에 있는 요소로 봤으면 합니다.

최광일 : 공감합니다. 행사출연료 지급에서도 마찬가지로 입니다. 가격은 계속 올라가

나 비정상적으로 'A급은 5백만원'이란 식으로 규정되어 있으니 문제가 발생합니다. 더구나 이벤트 기획과 연출 등 무형에 대한 가치형성이 제대로 인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벤트 프로덕션 자체도 문제지요. 이벤트행사가 계속 늘어나고 이벤트가 상당히 대접을 받을 기미가 보이고있으니 이제는 중간과정에서 자기 가치를 하락시키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정강환 : 이벤트와 관련된 뚜렷한 매체가 없습니다. 문제점을 자주 이야기해야 되고 투자를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문제가 많은 만큼 많은 얘기가 있어야 되겠죠. 나름대로 Know-How를 가진 분들이 마인드를 가지고 노력하면 되리라 봅니다. 축제 뿐 아니라 많은 행사들이 공무원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풀어갈 것이 아니라 마인드를 가진 분들과 함께 기획에서 진행까지 같이 했으면 합니다.

우진영 : 정부가 세계화하는데 공무원들이 걸림돌이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이벤트 뉴스가 그 가치를 높여야 할 것 같습니다. 관공서 뿐만아니라 이벤트 업체 등 이에 관심이 있는 모든 분들이 사보고 싶어하는 잡지가 되어 이벤트 산업의 문제와 발전방향을 제시해 주었으면 합니다. 이제 이벤트도 문화산업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 : 장기간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부, 기업, 학계, 대행사, 이벤트 프로덕션, 하드업체 등 모두가 이벤트 산업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벤트 문화가 산업화 되어가는

과정에서 그 가치와 질을 높여가는 데에는 이 분야 전문가들의 솔직한 얘기가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또한 오늘 이 좌담회에서 얻은 것은 이벤트 뉴스의 방향과 해야할 역할을 구체화 시킬 수 있었던 것이라 봅니다. 앞으로 저희 이벤트 뉴스에 지속적인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 · A · P · P · Y · N · E · W · Y · E · A · R

코러스라인 이벤트 PR 시리즈 2

순수하고 진실된 이벤트를 고집한다.

세살박이 순수함을 지닌 코러스라인.

공연이벤트문화의 New리더 - 코러스라인

지난 한해 대중예술의 고급화, 고급예술의 대중화를 실현해온 코러스라인 이벤트 - 여러분의 성원과 더불어 '95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지난 93년 걸음마를 시작한 이래 3돌을 맞은 지금, 보다 앞선 공연 이벤트를 창조한다는 의지 하나로 이벤트기획, 집행, 실행까지 철저히 책임을 다할 것이며 그간의 축적된 노하우로 공연이벤트의 수준과 전문성을 드높여 새로운 공연문화를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항상 순수하고 진실된 모습으로 열심히 뛰겠다는 코러스라인 마음가짐은 해가 바뀌어도 변함이 없습니다.



코러스 라인 이벤트 인터내셔널

서울특별시 강동구 명일동 312-181 파란집터D B01호
문의전화 : (02)471-6848 FAX : (02)470-8457

'아름다운 마음 아름다운 생활'

'95 미술의 해

'94 국악의 해를 이어 '95 미술의 해가 막을 올렸다. 지난 12월 22일 예총회의실에서 기자회견과 로고발표회를 갖은 '95 미술의 해 조직위원회(위원장 : 이대원)는 앞으로 1년동안 미술이 국민생활속에 친근하게 자리잡고 건강한 민족미술의 전통이 계승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조직위원회 전원이 미술전문가라서 로고를 정하는데 상당한 진통을 겪었으나, 홍대미대 한도룡 교수에게 일임하여 화면에 첫 붓을 대었을때의 느낌을 삼원색으로 표현한 것이 채택되었다.

'95 미술의 해 한 해를 상징할 표어로는 '아름다운 마음 아름다운 생활' '아름답게 살자'로 정해졌다.

조직위원회는 미술의 해 사업계획의 기본 방향을 미술학술적 사업, 제도개선 및 정립을 위한 사업, 미술분야의 특수성을 살린 사업, 일반국민과 교감을 느낄 수 있는 사업으로 크게 잡고 학술사업, 미술관계법 및 제도제정 및 개정사업, 이벤트사업, 전시사업, 지역사업 등으로 분류했다.

'95 미술의 해가 다가왔다. 미술의 해 조직위원회는 1월 16일 선포식과 개막 행사를 필두로 1년동안 미술이 국민들과 생활속에서 같이 호흡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사와 전시를 마련하고 있다.

'95 미술의 해 선포식 및 개막행사

미술의 해 선포식이 1월 16일 오전 11시에 세종문화회관 소강당에서 열린다. 선언문 낭독과 선포식이 끝난후, '95 미술의 해의 12인의 선정 작가와 작품세계를 영상제작하여 약 30분간 방영할 예정이다.

이 순서는 사진작가 문선호씨가 그동안 촬영해온 작가와 작품세계에 대한 촬영자료로 가능한 것이다. - 1월에서 12월까지 그 달의 미술인으로 선정된 작가는 노수현, 변관식, 허백련, 김환기, 박수근, 오지호, 이종우, 이중섭, 장욱진, 김종영, 이순석, 손재형 이상 12인이다.

'95 미술의 해 개막행사로 2월 28일에서 3월 1일까지 광복50주년 및 3·1정신 계승을 위한 미술 핫블 대제전이 진행된다. 하나의 행위예술로 승화될 이 행사는 핫블점화적 및 행진, 시민과 만남전, 설치대제전, 현대미술의 방향설정 세미나, 행위미술제 등으로 꾸며진다.

천안삼거리 공원을 출발하여 병천 아우내장터 등을 거쳐 독립기념관까지 이어질 이 행사에는 충청남도 미술인과 도민과 학생 3,000여명, 한국미술협회의 서울임원과 전국지부장이 참석하여 화려한 막을 올린다.

지역사업

조직위원회는 활발한 지역사업을 위하여 행정적, 인력지원 등을 최대화 하기로 하고 한국미술협회 전국지부조직(8개도지회, 5개 직할시지회, 66개 지부)을 통하여 각도, 직할시별로 조직위원회를 별도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 중앙과 지역간 긴밀한 유대를 가지고 범국가적인 행사가 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각도, 직할시 별로 달(月)을 지정하여 그 지역의 특수성을 살린 향토 미술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지역사업은 중앙이 32개, 지역이 125개로 잡혀 있으나 이벤트 사업을 필요에 따라 채택할 계획이므로, 행사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학술사업

사업명	기간	장소	내용	비고
미술세미나	4월, 10월 (년2회)	미정	· 미술의 해에 맞는 주제를 설정하여 국내외 저명작가 및 평론가 발표	주로 학술적인 면에 치중
국제심포지움	12월	서울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	· 외국저명 작가 및 평론가를 초대 발표, 세계현대 미술계에 새로운 경향 소재로 이해촉진	
미술강연회	8월	각도청 소재지 (전국순회-10개지역)	· 미술의 저변확대를 위해 일반국민에게 미술을 소개하여 미술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켜 미술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내용	대중적인 면에 치중
미술책자발간	10월		· 한국미술을 50년이라는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정리 발간 · 미술 (각분야별)을 이해하기 쉬운 내용으로 제작. 일반대중에게 배부	년차적인 사업

미술관계법 및 제도제정 및 개정사업

미술관련법 개정 및 제정 공청회	5월	문예진흥원강당	· 미술관법, 문화예술계 지원에 대한 손비처리 등 세법 및 미술제도의 개정을 위한 공청회 · 미술유통 구조법 등 미술관련 신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소위원회 구성 추진 (김영중 위원에 위임)
미술관련법 제정 개정추진위원회 설치 운영	1월-12월		· 미술관련법 개정과 제정을 위한 자료수집 연구, 정리할 작업추진 단체를 설립하여 체계적으로 추진	
미술관계법 제정 및 개정 책자발간	11월		· 법제정 및 제정의 당위성, 장단점 법초안 수록	

· 월별 시·도 지정 및 주요사업내용

월	지역명	주요사업내용
3	충청남북도	광복50주년기념 및 3·1정신 계승을 위한 미술 핫블 대제전(95.2.28-3.1) 충청미술인의 날 행사 (3·1 충청미술인의 날 제정) 도민 그림그리기 대회 (95.9.1) 등 21개 행사
4	대구직할시	시민그림잔치(95.4.10) 대구미술제(95.9월 중순) 영호남작가 합동전(95.8월 초) 등
5	제주도	제1회 제주비엔날레 엄마·아빠 함께 그림그리기 대회 (95.5.5) "미술의 해"기념 전도 초·중·고등학생 미술실기대회(95.10.7) 등 8개 행사
6	인천직할시·경기도	미술세미나(95.6) 향토미술 초대전(95.6월 초) 및 관화교실 설치·관화보급, 관공서 그림설치하기 운동 전개 (95.3.-11) 등 30개 행사
7	강원도	강원 야외조각공원 설립추진(95.3-11) 경포대 바다미술제(7월 중순), 미술인과 도민의 주간(95.5) 등 22개 행사
8	광주직할시 전라남북도	우리고장 그리기 대회(95.7.17) 광주비엔날(95.8) 도민이 함께하는 환경미술제(95.8.6-10) 전북미술제(95.8.15-30) 미술의 해 기념품 제작 배부 등 12개 행사
9	부산직할시·대전직할시	해운대 바다미술제, 국제행위 미술제(95.9.27-10.3) 시민초청 미술강연회(95.8-9) 부산자랑 10가지 시민예술제(95.11) 등 4개 행사
10	서울	10월 문화의 달 행사
11	경상남북도	미술의 해 기념 전도 초·중·고 미술실기 대회(95.9) 미술의 해 기념 술거리미술제(95.9월 중순) "강을 살리자" 행위미술제(95.11월 초) 등 3개 사업

* 전시행사 일정 및 장소는 예정임. * 예산은 지역별 예산임.

이벤트사업

조직위원회는 이벤트사업은 특정한 전시공간이 필요한 사업이 아니므로 새롭고 이색적인 사업이라면 적극적으로 수용할 방침이다.

- 미술유적지 및 작고작가 화비제작
일체의 우리문화 말살정책으로 유실된 미술유적지를 발굴하고 또한 작고작가들의 화비를 제작설치(년차 계획으로 전국적으로 실시) - (주최사업)
- 미술정보센터 설립발족
미술에 대한 광범위한 자료, 정보센터 설립을 발족, 미술정보센터 설립계기 마련 (주최사업)
- 영상아트 국토미화계획 추진
국토 및 도시미화를 위한 영상아트 자료를 제작하여 국토미화사업 추진 (주최사업)
(예시) : 전국토의 각종안내판을 미적감각으로 정비 등
- 미술계 문제점 건의 : 새로 건립되는 시립미술관 전시면적과 국립현대미술관 진입로등에 미술계 여러 현안문제에 대한 관계기관에 적극적인 건의 (주최사업)
- 유명미술인과 패션디자이너의 연계패션
유명작가 작품의 섬유제품화 국민보급, 국민학생 T셔츠 경진대회 (한국텍스타일 디자인협회 주관) - (지원사업)
- 세계저명미술관, 미술관계 명승지 소개
일간지나 TV사와 연계 현장을 취재하여 국내보도 및 방영 (공동주최)
- 월별작가선정 작품소개 재조명
근현대 작고작가중 12인을 월별로 선정 작품세계 재조명 - (주최사업)
- 12작가명
동양화 - 노수현, 변관석, 허백련
서양화 - 김환기, 박수근, 오지호, 이종우, 이중섭, 장욱진
조각 - 김종영
공예 - 이순석
서예 - 손재형
(월별미집)
- 미술의 해 기념 우표발행 추진
미술의 해 로고와 월별작가의 작품으로 '미술의 해' 기념우표 발행 추진 - (주최사업)
- 무명작가발굴 진흥제
화단에 알려지지 않고 작고하여 숨겨진 무명미술인들 위령제 : (10월) (주최사업)

전시사업

사업명	기간	장소	사업내용	기획처	비고
'95 미술의 해 기념 오늘의 한국 미술전	1995. 7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	명실상부한 우리현대미술의 오늘의 경향 전시회. 무료개방으로 일반대중의 작품관람의식 고취	미술의 해 조직위	주최 사업
광복50주년기념 한국미술 30인전 (파리시 초대전)	1995. 11	파리시립미술관	광복50주년을 맞아 파리에 우리나라 현대 미술전을 개최하고 아울러 이태리 베니스비엔날 한국개관에 맞춰 유럽에 한국미술의 불 조성		주최 사업
테마 현대미술전	1995. 11	시립미술관	"과학과 미술", "타분아와 미술" 등의 테마를 설정하여 개최 예) 비디오 아트, 커네틱 아트, 영상미술		주최 사업
전국취소대회	1995. 8	서울시립미술관	전국에 일고있는 서예붐에서 오는 혼란성을 배제하여 서예계 정립, 전국단위 취소대회를 개최 수상작만 전시		주최 사업
작은 그림전 개최	1995. 9	시내화랑협회 회원화랑	미협회원에게 1호-5호 이내의 작품을 제작의뢰 전시		주최 사업
전국공예품 디자인 개발전시 및 워크샵	1995. 10	서울시립미술관	새로운 공예품과 디자인을 개발하여 전국관광지에 보급. 도예·섬유작품 제작과정을 소개 설명하고 현장실습 제작하여 현장판매 등	한국 공예가회	지원 사업
韓·中 수목화 교류전	1995. 5	문예진흥원 미술회관	중국의 수목화를 초대전시하으므로 한국 작가의 수목화 창작의욕 고취	문예진흥원	공동 주최
이태리 현대미술전	1995. 11 (예정)	국립현대미술관	베니스비엔날 한국관 개관을 기념. 한국미술의 소개	국립현대 미술관	공동 주최
광복50주년 기념 한민족미술전	1995. 8	예술의 전당 한가람미술관	한민족의 슬기와 지혜로 창작된 세계 각국의 거주하는 한민족 작가들의 작품을 국내에 초대 전시함으로써 한민족의 문화적 얼을 되살림	한민족축제 추진본부	공동 주최 지원 사업
한국미술인의 모습 전(촬영 문선호)	1995. 7	예술의 전당 한가람미술관	미술인의 작품제작과정 및 근황을 사진 작품화 하여 일반대중에게 보임으로서 미술이 일반대중과 가까워 질 수 있는 기회를 마련 미술전 및 제작과정 소개에 기여	문선호	지원 사업
디자인 40년전	1995.	미 정	현대미술관 기획전시 미술의 해 내용을 추가로 포함확대 기획	국립현대 미술관	공동 주최
서울판화미술제	1995. 3 - 4	예술의 전당 한가람미술관	판화미술의 대중확산과 판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고조	한국판화 미술 진흥회	지원 사업
전국화랑미술제	1995. 9 - 10	화랑협회 회원 화랑(전국)	전국에 산재하여 있는 한국화랑협회 회원 화랑에서 각지역신인작가 작품발표 계기 마련	한국화랑협회	
올해의 작가전	1995. 3 - 4	국립현대미술관	주목할만한 창작활동과 구체적 성과를 보이므로 한국미술의 발전에 기여한 작가 1명을 선정 개인전 개최 작품수 : 50 여점	국립현대 미술관	공동 주최
자코메티작품전	1995. 7 - 8	국립현대미술관	한·불양국의 문화예술 교류 활성화와 해외의 현대미술 관람기회 제공 조각·드로잉 등 50 여점	국립현대 미술관	공동 주최
한국미술 '95	1995. 8 - 9	국립현대미술관	광복50주년을 맞아 한국미술의 진취적 발전과 참신한 전시활동 전개 중견작가 50 여명.	국립현대 미술관	공동 주최

* 전시일정 및 장소는 예정임.

유길준과 개화의 꿈

멀티 슬라이드쇼 등 입체적으로 전시

해외 최대 규모의 한국 민속품 컬렉션인 미국 피바디 박물관 소장 19세기 한국 희귀 민속품이 전시되었다. '유길준과 개화의 꿈 - 미국 피바디 박물관 소장 1백년전 한국 풍물'전은 개화기 선각자들의 꿈과 고뇌를 더듬는 역사적인 계기를 마련하였다. 평범한 유물전시에 그치지 않고 모형제작, 멀티 슬라이드쇼 사진, 관련 연표·그림 전시 등 다양한 전시계획도 세워 관람객들의 이해의 폭을 넓혔다. 글 / 김지혜 기자



활옷 / 상류계급 여성들이 착용했던 예복으로 서민들은 혼례때 허용되기도 하였다.

잇혀졌던 개화사의 복원현장인 '유길준과 개화의 꿈' 전시회가 국립중앙박물관 중앙홀에서 열렸다.

국립중앙박물관과 조선일보가 공동주최하고 신한은행·현대그룹·대한항공이 협찬, 서울방송이 후원하는 이 특별전에서는 최초의 국비 미국유학생이었던 유길준 선생이 피바디 에섹스 박물관에 남겨놓은 유품들과 1백년전 종로 거리에 걸려 있었던 상점의 깃발 등 각종 민속품들을 진열, 개화기 한국의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전시의 내용을 개괄적으로 설명하는 멀티슬라이드 쇼, 당시 외국인 외교사절, 선교사들이 찍었던 사진을 전시한 '들여다 보는 1백년전 사진 스코프' 등 평범한 유물전시에 그치지 않고, 모형제작, 관련연표, 그림전시 등 다양한 전시계획을 세웠다.

'유길준과 개화의 꿈'전은 올 1월 20일까지 계속되며 박물관 휴일인 매주 월요일은 휴관한다.



깡깡이 / 현악기의 하나. 둥근 나무통에 가는 나무자루를 박고, 두 줄의 명주실을 매고, 이 명주실을 활시위로 문질러서 소리를 냄

연표·모형·멀티슬라이드쇼 등을 통해 백년 전 '개화의 꿈' 입체적으로 조명

'유길준과 개화의 꿈'전이 열리는 국립중앙박물관 중앙홀과 1·2 기획전시실은 크게 ① 개화기 한국 ② 최초의 관비 유학생 유길준 ③ 개화촌 ④ 피바디박물관 2대관장 모스(1836~1926)가 본 1백년전 한국 등 네개의 코너로 구성되어 있다.

중앙홀 입구에 들어서면 개화기 종로거리에 있던 옷감가게의 깃발행렬들이 보인다. 저포전은 모시를 파는 조선시대 시전의 하나로 지금의 종로3가쯤 된다.

길이 3.82m, 폭 1.28m나 되는 당당한 이 깃발은 한국의 전통사회가 지금 흔히 생각하듯 그렇게 남루한 것만은 아니었음을 알게 된다. 저포전 깃발에 이어서 개항 당시의 국제정세, 개화파 형성의 배경을 보여주는 연표와 사진등이 전시되었다.

또 조그만 구멍을 통해 당시 한국에 왔던 외국인 외교사절, 선교사들이 찍었던 1백년 전 한국풍물사진을 들여다 보는 코너도 마련하였다.

두번째 '최초의 국비유학생'은 개화 선각자 유길준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곳이다. 그의 파란만장한 생애를 알 수 있는 연보와 사진, 미국 유학 후견인이던 피바디 박물관장 모스박사에게 보낸 영문편지들이 선보였다. 이 편지들은 아마도 한국인이 작성한 최초의 영문편지 일지도 모른다.

'서유견문'등 그의 개화의지가 담긴 저서들도 소개되며, 미국 유학에서 돌아올 때 집필 자료를 담아온 나무궤짝, 옷, 세면도구, 명함 등이 전시되었다.

최초의 미국 유학생이며 당대 최고의 국제통이었지



열쇠패 / 상류사회 신부의 귀중한 혼수품으로 가보처럼 소중히 여긴다. 곳간, 쉼, 장, 농 등의 열쇠를 매달아 쓴다.

만 그의 개화의 업적이 얼마나 험난한 가시밭길 속에서 이루어졌나를 보여주고 있다.

전시를 위해 고려대 박물관에 소장된 유길준 유품 89점을 특별히 빌려와 전시하였다.

이어서 펼쳐지는 것은 개화촌이다. 개화파 인사들이 많이 살던 한말 서울의 안국동이나 재동 어디쯤을 연상케하는 주택 구조의 전시 분위기 속에 1백년 전의 개화지도가 그려져 있다.

또 개화의 상징적 산물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신문 발간, 독립문 건립 등에 관한 사항이 각종 자료를 통해 전시되었다.

유길준 미국 유학의 단서가 되는 최초의 대미 외교 사절 일행에 관한 사항도 여기서 알 수 있다.

네번째 '모스가 본 1백년 전 한국'은 피바디박물관의 소장 유물들을 전시하는 곳이다. 의복과 부엌용기, 무기류, 깃연구, 공예품, 장신구, 신발 등 전시품의 범위는 너무 다양해서 1백년 전의 생활상을 그대로 재현해 낼 수 있을 정도다.

'유길준과 개화의 꿈' 전에는 너무 급격한 변화 속에 살아오는 동안 우리가 잊었던 1백년 전 한국의 모습을 생생히 그려내고 있다. 또한 잊어서는 안되는 선각자들의 개화의 꿈을 담고 있다.

입장료 전액 '한국전시실' 설치비로 기증

미국 보스턴 동북부 해안도시 세일럼에 있는 피바디 박물관은 미국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되고, 특히 중국 실·일본실 등을 설치,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들의 문화재를 많이 소장하고 있다.

지금은 국내에서도 사라져버린 개화기 사대부·서민들의 각종 생활용구·복식·장신구·공예품들이 피바디박물관 지하 수장고에 보관되어 왔다.

이에 조상들의 지혜와 손때가 아로새겨진 귀중 유물들이 묻혀있는 것에 안타까운 나머지, 이번 전시회의 입장 수입금 전액을 피바디박물관에 기증, '한국전시실'을 세우게 된다.

이는 오늘의 대한민국을 가능하게 한 격동과 모색의 개화사를 재조명하고, 그 열매로 미국에 한국문화를 제대로 알릴 수 있는 상설창구를 만들려는 데 뜻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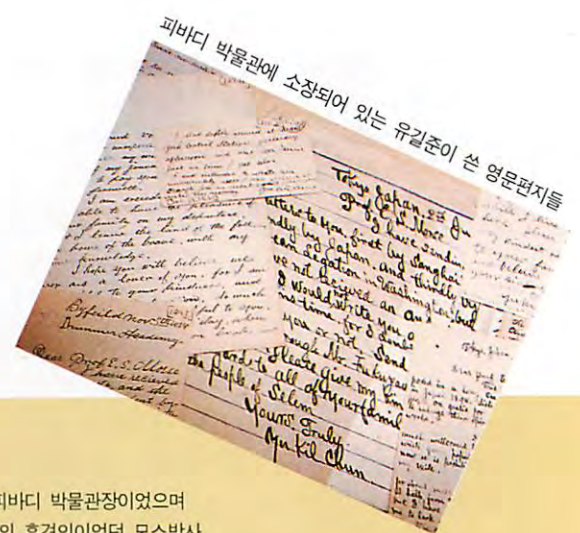
광복5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열린 '유길준과 개화의 꿈'전은 한국 전시문화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청화백자 / 다용도로 쓰이지만 주로 국수그릇으로 쓰임



당시 피바디 박물관장이었으며 유길준의 후견인이었던 모스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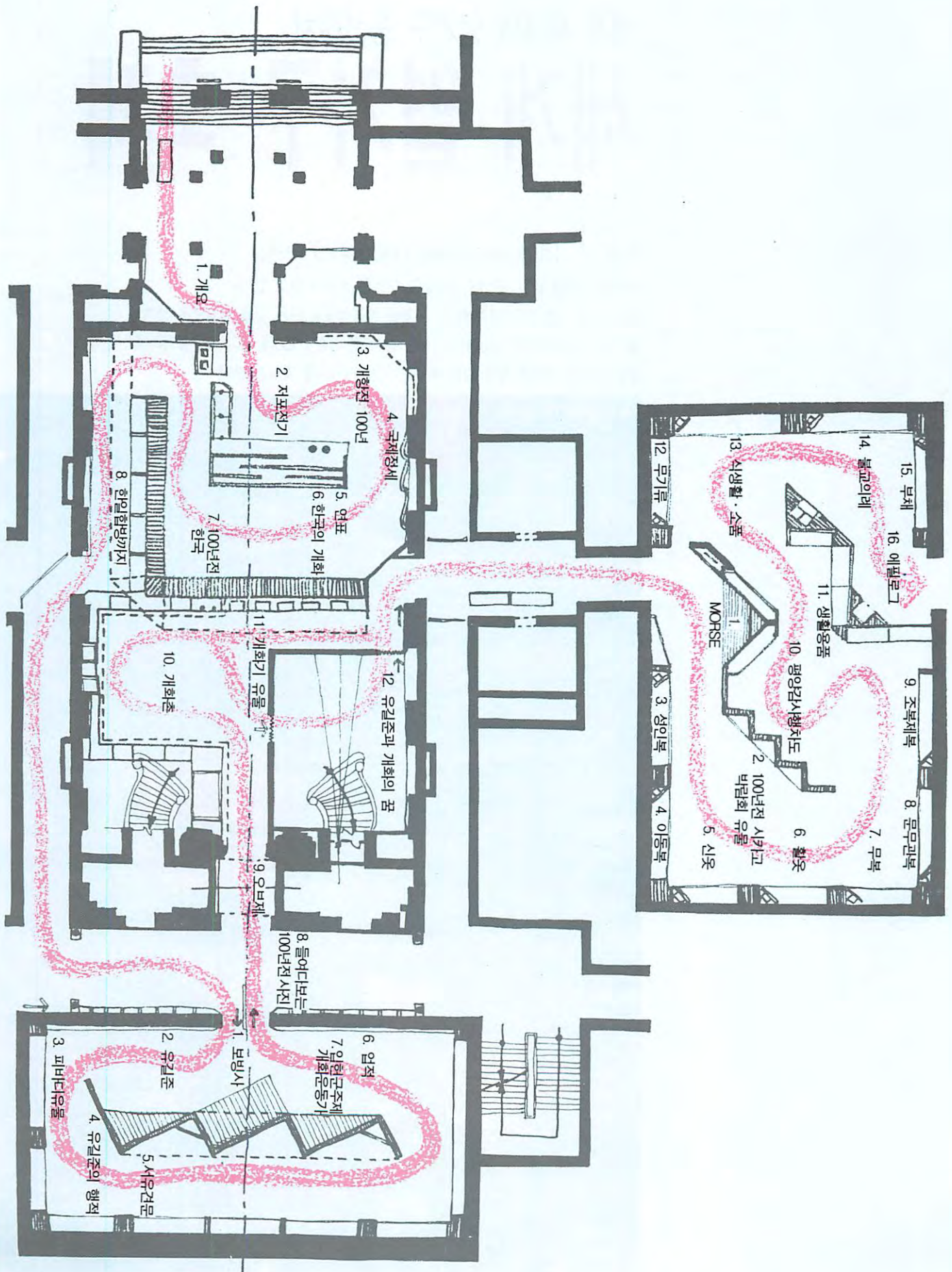


피바디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유길준이 쓴 영문편지들

피바디 박물관 지하창고에서 1백여년 동안 햇빛을 못보고 있는 한국의 개화기 문화재들



유길준과 개화의 꿈 PROTO-TYPE MASTER PLAN



세계 최대의 열기구 풍선잔치

세계 열기구 축제

SAGA International Balloon Fies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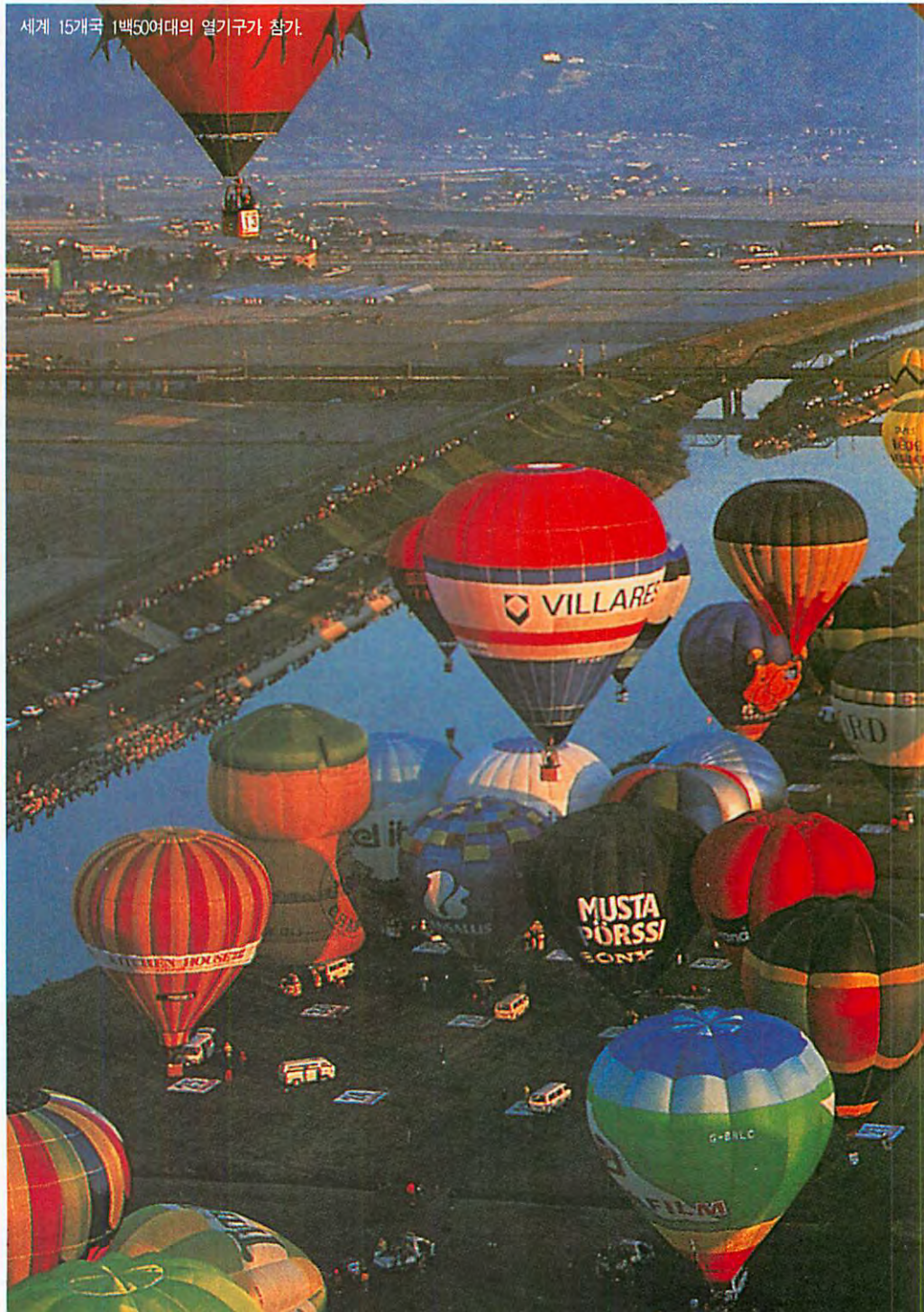
새처럼 하늘을 날고 싶다는 사람들의 욕망은 누구나 갖고 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헬리콥터의 모형을 성공적으로 만든 것을 시작으로 생겨난

'열기구'. 한국에서도 4팀이 참가하는 등 15개국에서 150대 열기구가 참가하여

열띤 열기구 축제를 벌인 일본 후쿠오카 현 사가시를 찾아가 본다.

세계 15개국 1백50여대의 열기구가 참가.





잔디위에 구피를 펼쳐놓고 열기를 붙여넣고 있는 각국 열기구 모습



세계 최대의 열기구 '풍선잔치'인 '94 사가 세계열기구축제'가 열기구레포트 강국인 미국·영국·일본을 비롯한 중국·헝가리·필리핀 등 세계 15개국 1백 50여대의 열기구가 참가한 가운데 1주일간 일본 사가현의 널찍한 평원 위에서 펼쳐졌다.

1천m 창공을 무대로 환상적인 하늘의 수를 놓은 이번 축제에는 높이 20m 짜리 대형 열기구인 '중앙호'를 비롯해 모두 4대의 한국 열기구팀이 참가하였다.

국제항공연맹과 국제기구위원회가 공동주관한 사가열기구축제는 86년 처음 시작된 이래 매년 1백만명씩의 관광객과 수십개국의 열기구팀을 끌어 들이고 있는 지구촌 최대의 기구축제중 하나이다.

한국은 80년대 후반 이후 매년 1~2팀씩 참가해왔으나 4팀이 한꺼번에 도전장을 내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개막식에 이어 매일 오전과 오후 두차례씩 모두 12회의 경기를 치러 종합 점수로 순위를 가르는 이번대회는 당일 기상과 바람상태 등 조건을 살펴 HW·JDG·PDG 등 10여개 종목중 하나를 택해 경기를 진행시켰다.

항공 스포츠로서의 열기구

열기구는 봉고차나 타이탄 같은 작은 트럭에 실려져서 운반되며, 바구니는 두사람이 타기조차도 적어 보이지만 4인용이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기구는 2가지 종류가 있다.

그 하나는 버너의 불꽃으로 구피안의 공



'94 사가 세계 열기구 축제에 참가한 한국팀.



기를 가열하여 가벼워진 공기의 부력을 이용하여 비행하는 HOT AIR BALLOON 또는 FIRE FLY BALLOON이고, 또 하나는 공기보다 가벼운 수소가스나 헬륨가스를 큰 주머니속에 넣어 그 부력에 의해 대기중에 떠 있을 수 있는 가스기구이다.

열기구는 기구의 모체라 할 수 있는 것으로 기구에 사람이 직접 탑승하여 공기의 기상상태를 측정하고 항공자료를 분석, 파악하는 데 사용되며, 가스기구는 단순히 대기중에 떠 올라 광고 및 전시효과를 유발하는 데 국한되어 사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항공스포츠포로서의 기구는 통상 열기구를 지칭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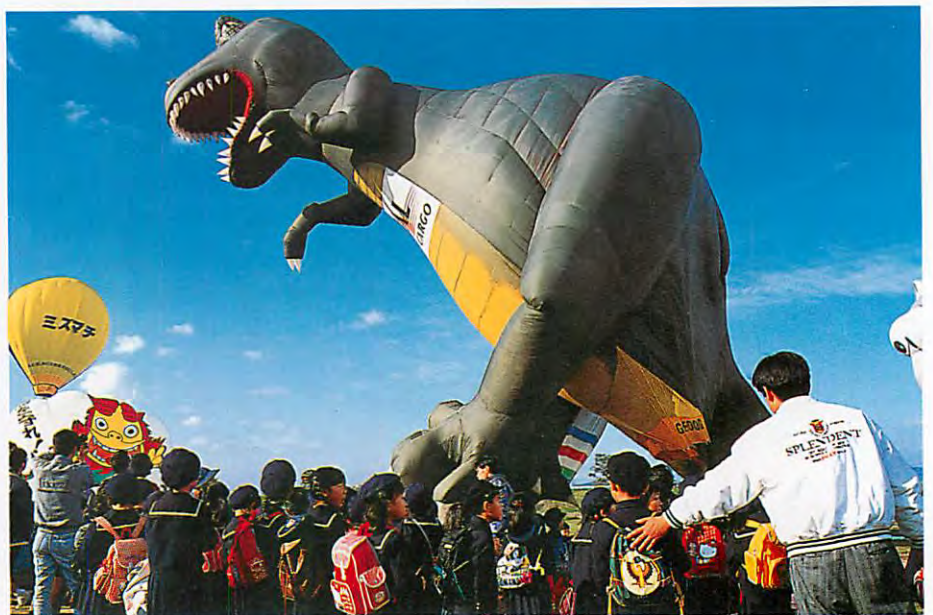
열기구 비행

열기구를 트럭에서 내려놓고 그옆에 바구니와 버너를 놓는다. 구피(ENVE LOPE)를 부착한 후 잔디위에 펼쳐 놓는다.

천은 천막같은 것이 아니라 옷감처럼 부드러운 TOP PARACHUTE VALVE를 밀어 넣는다.

열기구 구피의 커다란 등그런 부분은 열기구에 부착되어 있지 않고, 조그마한 VELCRO TAB들로 띠어뭉쳐져 있다. 그러나 조종자는 열기구가 비행중에 공기의 압력으로서 유지되므로 이상이 없다.

조종자는 2명에게 CROWN을 아래로 잡도록 지시하며, 한편으로 또다른 2사람에게는 열기구의 밑부분을 벌려놓게 한다. 구피의 밑부분을 펴라거나 송풍기를 사용하여 구피속에 얼마간의 찬공기를 불어 넣는다.



조종자는 버너뒤에 자리를 잡고서 기관총의 사수처럼 불꽃을 일으켜 낸다. 불꽃은 약 7피트 정도이다.

열기구가 구피안으로 들어감에 따라 미술과 같은 변형이 발생한다. 생명이 없는 커다란 천이 숨쉬기 시작하며 확장되어 올라가는 것이다.

정상적인 비행중에는 열기구의 온도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조종자는 버너를 5초간 작동 후 정지시키고 20초간 정속비행을 실시한다.

비행이 끝나면 조종자는 작물과 동물이 없는 장소를 골라서 착륙한다. 숙련된 조종자는 열기구를 마을 가까운 곳에 착륙시켜 열기구를 접은 후에 비행을 적절히 축하할 수 있도록 한다. 첫번째 비행한 사람이 샴페인을 사는 것은 오래된 전통이다.

열기구 요원

경험이 없는 승무원과 일할 때에는 업무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Crown line 요원 2명 이내일 것. 줄을 몸에 감지 말고 손으로 풀 수 있도록 할 것. 장갑을 끼고 타인의 도움을 받지 말 것. 뛰거나 점프하지 말 것.

Envelope mouth 요원 장갑을 낄 것. wire에서 벗어나 있을 것. 입구를 넓게 벌릴 수 있도록 할 것. wire를 지지대에서 제거할 것. 열기구를 바구니쪽으로 잡아당기지 말 것. rip panel을 당기지 말 것.

잔여요원 바구니 옆에서 대기하면서 바구니가 끌리거나 뜨지 않도록 할 것. 공기주입시에는 입구로 부터 6피트(2m)이내에서만 열기구를 조작할 것.



열기구 경기

문자 그대로 열기구의 '대회'는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열기구는 방향을 조종할 수 없으며 또한 그 자체가 어떤 속도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열기구의 속도는 단지 열기구가 속한 바람의 속도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열기구는 경쟁이 치열한 국가간의 대회를 열고 있으며, 이곳의 승자들은 매 2년마다 개최되는 세계챔피언 대회에서 경쟁한다.

전통적인 가스기구 시합은 'Foxhunt 여우 사냥'이다. 한개의 열기구가 이륙한 후에 시간의 간격을 두고 다른 열기구가 폭스를 따른다. 고도별로 서로 방향이 다른 바람을 찾아서 위아래로 이동함으로 열기구들은 폭스(열기구)를 추적한다. 폭스에 가깝게 착륙한 열기구가 승자가 되는 것이다.

최신 열기구 대회에서는 'Foxhunt' 또는 소위 'Hare and Hounds 토끼와 사냥개'라 불리는 방식을 취하며 몇가지 다른 형태의 임무를 추가시킨다. 임무는 나일론 테이프에 모래가 담긴 표식을 떨어뜨리는 것이다.

열기구 조종술과 표식을 목표에 떨어뜨리는 기술이 발달되어 20km 비행 경연대회 정도에서는 상위 2~3개의 표식은 목표물의 1m 이내에 떨어지는 것은 보통이다.

경기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JDG 바람이 부는 방향쪽으로 목표가 주어지면 참가자들은 표식을 그 속에 넣으려고 노력한다. 목표는 보통 큰 흰색 십자로 표시한다.

PDG 비행사가 자기의 목표를 정하는 것 외에는 비슷한 임무이다. 비행사는 자신의 목표를 종이에 써서 이륙 직전에 제출한다.

Hesitation Waltz 심판이 몇개의 목표를 선정하여 주면 조종자는 이륙한 이후에 한 곳을 선정할 수 있다.

Fly - In 열기구 조종자는 경연대회 장소로 부터 최소한 일정한 거리 즉, 보통 5km 이상 떨어진 곳에 이륙할 장소를 자신이 선정하여 이륙후 비행하여 모이는 것이다. 열기구를 이륙한 후에 날아 들어와서 원래 장소에 그들의 표식을 떨어뜨린다. 이 임무는 자체의 결함이 있기는 하지만 많은 관중을 모을 수 있는 스포츠이다.

ELBOW 비행사에게 2개의 표식이 주어진다. 일정한 최소의 거리를 비행한 후 첫 번째 것을 떨어뜨리고 또 한차례 일정한 최소의 거리를 비행한 후 2번째를 떨어뜨린다. 점수는 2개의 항적 사이의 각도를 측정하여 가장 큰 것을 정하는 것이다.

국제경기는 규칙이 정해져 있으며 점수도 매우 엄밀하게 채점된다. 자발적인 참관자들, 대부분 열기구 비행사 또는 비행 실습생들이 승객으로서 비행하거나, 지상 위로 추적하여 MARKER가 떨어진 곳의 좌표를 가능한 한 정확하게 측정한다. 심판 위원회에서 점수를 계산하며 중요 시합에서는 항의에 대비하여 배심원을 지명하여 둔다.

상업비행

최근 몇 해 사이에 많은 회사들이 열기구의 광고가치를 생각하게 되었다.

광고주의 이름과 색상을 넣은 열기구가 쇼나 공공 모임의 장소에서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신문, 텔레비전에 직간접으로 띄워진다.

가끔 선전용이 아닌 전시용으로 쇼나 축제에서 열기구를 빌리기도 한다.

쇼비행은 스포츠 비행에 비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다. 쇼는 보통 열기구의 요동이 가장 많고 바람이 제일 많은 낮, 즉 오후에 개최되며 훨씬 전에 개최일이 미리 정해진다.

거의 모든 쇼열기구 비행사들은 악조건의 기상 및 실망의 빛이 역력한 쇼 기획자와 보통 씨름한다. 훌륭한 상업열기구 비행사

가 되기 위해서는 고객에게 가능한 가장 좋은 결과를 줄 수 있는 경험과 결단력도 있어야 하지만 필요할 때에 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업비행은 어려운 작업으로서, 어떤 의미에서는 스포츠열기구 비행사 이용하기 쉬운 기류의 훈련으로는 부적합한 조건이다.

몇년전에 거대한 농업 전람회에서 4개의 상업열기구가 전시장에서 뜨기로 되어 있었다. 전시회 기획자는 그날의 전시행사가 더 이상 없을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4대 열기구중 3대는 포기하여 창고에 넣어 버렸다. 저녁무렵 바람이 잠잠해지자 4번째 열기구가 창고 위를 박차고 전시장 위로 떠올라서 TV 카메라 및 관중의 시선을 크게 끌었다.

대부분 나라에서는 상업비행을 하기위하여는 '개인 비행사 자격증' 보다도 좀 더 진보된 능력을 요구한다.

미국에서는 '상업허가'가 있으며, 한국에서는 열기구 조종 기능증명만 있으면 상업비행을 할 수 있다.

98년 세계월드컵인터내셔널 발렌 페스타 개최

매년 11월 중순경에 일본 사가에서 열리는 세계 열기구축제는 해마다 많은 열기구 참가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98년도에는 '세계월드컵 인터내셔널 발렌 페스타'를 열 예정으로 있다.

한대당 1천 5백~3천만원하는 열기구는 총무게도 80~100kg 가까이 된다.

한국 최초의 열기구는 1985년 7월 3일 한국열기구협회 이선중 안전분과위원장이 영국 BRISTOL PHILCLARK의 열기구 비행학교에서 비행훈련 후, 열기구를 수입하여 1985년 7월 10일 잠실 탄천 고수부지에서 1시간 30분 동안 계류비행을 선보임으로써 열기구 레저스포츠가 시작되었다.

1989년 11월 23일 한국열기구협회 창설시 3기에 불과했던 열기구는 1994년 4월 현재 18기로 증가하였으며, 하늘의 자유를 마음껏 즐기려는 동호인들이 열기구스포츠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며 현재 80여명이 활동하고 있다.



'95 영국 문화예술 페스티벌

5백 이상의 각종 이벤트 행사들 영국 전역에 걸쳐 개최

풍요로운 문화의 나라인 영국은 음악, 미술, 건축, 문학 등 모든 예술장르에 걸쳐 세계적 수준을 자랑하고 있다. 1995년에는 이러한 영국의 문화예술을 기념하는 행사들이 전국적으로 벌어진다. 이 페스티벌은 일년에 걸쳐 열리는데 이 기간에 영국을 방문하면 유명한 관광명소는 물론 영국의 문화에 흠뻑 취할 수 있다.
글 / 김미순 기자

오는 199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영국전역에서 각종 기념제와 축전, 예술제전과 전시회 등 무려 5백여개가 넘는 행사들이 펼쳐진다.

영국은 세계에서 가장 풍부한 문화예술 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 가운데 하나로 오는 '95년에 열리는 문화예술 페스티벌은 이같은 영국의 풍요로움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

영국의 예술뿐 아니라 연극, 음악회 등 수많은 연예프로그램은 전체 외국인 관광객의 51%에게 있어 영국을 찾는 중요한 이유가 되고 있다. 또한 영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가운데 거의 1/3 이상이 이곳에 머무는 동안 음악회, 오페라, 무도회장 또는 극장을 찾고 있다. 영국 관광청에서는 행사목록 등을 실은 안내책자 'Festival Guide'를 3판 연속발행 할 예정이며 지난 10월에 초판 25만부는 영국관광청 해외사무소와 영국내 여행, 안내소에 배포하였다. 영국 관광청 서울사무소는 서소문 배재빌딩 723호로 전화는 773-1509이다.

특히 중요한 행사들은 다음과 같다.

- National Trust (영국 명승사적 보존단체) 1백주년 행사
- 영국문학작품의 해 행사 (스완시)
- 영국예술제전의 해 행사



- 헨리퍼셀(1695년 사망) 3백주년 행사
- 존 키츠(1795년 출생) 2백주년 행사
- 프란시스 애스비리 주교(감리교를 미국에 처음으로 전파) 탄생 250주년 기념 행사
- 자코바이트 혁명 250주년 행사
- 벨페스트 퀸즈대 150주년 행사
- 웨스트민스터 성당 100주년 행사
- 시네마 100주년 전시회
- 조사이어 웨지우드(1795년 사망) 200주년 행사
- Henry Wood Promenade Concerts / 100주년 기념 공연

대저택의 정원에서 여름 콘서트와 신나는 야외축제

영국에 있는 많은 웅장한 대저택을 방문하면 영국귀족의 과거와 현재의 생활방식을 엿볼수가 있다.

테본셔공작의 저택인 더비셔 지역의 Chatsworth나 윈스턴 처칠 수상의 생가로 옥스포드 근교에 있는 블랜하임궁은 그 수려함으로 유명하다.

또한 성들도 많이 있는데 망보는 탑과 튼튼한 방어벽, 예전 죄수들을 가두었던 지하 감옥도 그안에 보존되어 있다.

런던을 여행할 경우 왕궁으로 또는 감옥으로 사용되었던 런던탑을 방문한다면 왕가의 보석들이 전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대저택은 내부만큼 외부, 즉 정원도 잘 꾸며져 있어 일년중 어느때나 구경할 수 있다. 월서의 스토헤드는 사진에 자주 등장하는데 아름다운 호수, 동굴 그리고 전통사원이 유명하다. 런던의 큐가든은 영국에서 가장 다양한 꽃과 나무종류로 유명하다.

National Trust는 전국에 산재하는 대저택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1995년 문화예술축제의 한 부분으로 재단에 속한 대저택의 정원에서 여름 콘서트와 신나는 야외축

제를 열 계획이다.

스코틀랜드의 유명 정원들은 일년 사계절을 통해 온갖 색깔을 계속 전시하고 있는데 특히 이러한 정원들이 장엄한 고성 of 터에 위치하게 되는 경우 기막힌 조화를 이루게 된다.

비극의 스코틀랜드의 여왕이었던 메리여왕과 관련된 유적을 보고 싶으면 그녀의 대관식이 거행되었던 유서깊은 스텔링 카슬(Stirling Castle)을 찾아보면 된다. 퍼스시 근처에 자리잡은 스콘 궁전은 역대 스코틀랜드 왕들의 대관식들이 거행되었던 것을 비롯하여 스코틀랜드 왕족과 깊은 관계를 가진 곳이다. 십오세기에 처음 건설된 글라미드성은 영국의 황태후 엘리자베스 여왕

이 그녀의 소녀시절을 보냈던 곳이며 또한 마가렛 공주가 태어난 곳이다.

아버딘 지역의 남작을 위한 성의 스타일로 건축된 크레테스 성 주변에는 주목 울타리로 둘러싸인 고색창연한 아름다운 정원들이 있다. 네언지방 부근의 브로디성의 나무가 우거진 산책길은 아름답기로 유명하며 특히 이른 봄에는 나팔 수선화 꽃으로 절경을 이루고 있다. 아란섬에 위치한 브로디성의 철쭉나무 정원과 주변의 숲도 아름답기로 유명하다.

로호 화인 호수가에 자리잡은 마치 동화에 나오는 성과 같은 고딕스타일의 인베레이리 성과 그 근처의 크래리 정원의 침엽수와 꽃피는 관목수, 그리고 호수를 내려보는

광활한 전경의 아름다움은 널리 알려져 있다.

스코틀랜드의 서남지방에서는 바다를 내다보는 아름다운 컨트리 파크에 자리잡은 칼진성, 철쭉나무와 진달래로 유명한 케네디성과 로호인치 정원, 봄이오면 2백여 종의 나팔수선화가 만발하는 더글라스성의 트리브 정원이 있다.

지역의 5분의 1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웨일즈는 곳곳에 위치한 매혹적인 성으로도 유명하다. 로맨틱한 폐허된 성으로부터 침투를 불허하는 요새의 성에 이르기까지 웨일즈는 면적에 비해 전세계의 어느나라보다도 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이다. 그중 잉글랜드의 왕 에드워드 1세가 웨일즈 사람들을 억누르기 위해 13세기에 지은 커나본성이 가장 유명하다.

에드워드 1세가 전국을 통해 건축한 소위 '철의 방위선'을 이루는 그 밖의 성으로는 웨일즈 중부에 위치한 절벽 꼭대기에 건축한 장엄한 요새의 하레호성, 아름다운 폐허된 성내의 채폴이 화려했던 과거를 말해주는 듯 하는 콘위강의 어귀에 위치한 콘위성, 앵글시점에 위치하여 바다로의 출입구가 완전히 보호된 요새의 성인 뷰마리성 등을 들 수 있다.

웨일즈의 수도인 카디프에 위치한 카디프성은 19세기에 와서는 공작새들이 정원을 누비고 다니는 호화로운 저택으로 개조되었다. 그 부근에 위치한 코호성은 마치 동화에 나오는 성과 같은 아름다운 성이다. 콜디컷성이나 지금은 호텔로 개조된 루턴성에서는 고브렛이라고 불리는 술잔에 포도주와 봉밀주를 담아들며 전통의상을 입은 가수와 하프연주자의 음악을 듣는 중세식 만찬을 즐길 수 있다.

풍성한 박물관과 미술관 행사

올해가 문화예술을 기념하는 해 이므로 영국의 수많은 미술관들을 둘러보기에 가장 좋은 해가 될 것이다.

런던에서는 가장 큰 규모의 국립미술관에 서부터 오로지 인상파와 후기 인상파의 작품만 전시하는 작은 특수 미술관에 이르기까지 아주 다양한 미술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다. 인상파 작품에 호가라면 1월과 4월사

데이비드 실림이 제작한 '05 영국 문화예술 축제를 상징하는 모자, 음악, 미술, 전시, 도자기 등 축제를 상징하는 소품들이 앙증맞다.



이에 바비칸미술관을 방문하면 인상과 특별 전시전을 볼 수 있다.

1995년 중 맨체스터에서는 5년에 한차례 열리는 영국미술전이 개최되며 최근의 걸작품들이 전시된다.

런던에 있는 영상박물관은 영화나 텔레비전의 화려한 역사를 소개해 주고 있는데 이곳에서는 방문객들이 슈퍼맨처럼 날거나 서부극에서의 한 배역을 맡거나 심지어 카메라 조작까지 할 수 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연예인, 스포츠맨, 정치가들의 밀납인형 전시로 유명한 마담투소는 훌륭한 기념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곳이다. 피카딜리 서커스에 소재한 록 서커스(Rock Circus)는 마담투소에 투입된 기술과 최신의 첨단기술이 어우러져 사용됨으로써 1950년대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의 록과 팝의 역사를 훑어볼 수 있다.



잇따른 음악·예술 페스티벌

연중 영국 전역에서는 음악제와 예술제가 열리게 된다. 다양한 행사들이 성당, 폐허가 성터, 오페라 하우스, 거리 등 다양한 장소에서 개최되며 그 중 많은 부분이 일반인에게 무료로 개방된다.

즐거움 거리축제는 5월 글라스고 축제나 8월의 에딘버러 페스티벌에서 뿐 아니라 하로게이트, 치체스터, 브라이튼, 브레드포드 같은 중소도시 페스티벌에서도 벌어진다. 8월에 런던에서 벌어지는 카리브 스타일의 노팅힐카니발이나 신나는 포크페스티벌도 즐거움 축제이다.

영화탄생 1백주년을 기념하는 필립페스티벌이 버밍햄, 리즈, 런던 등지에서 풍요롭게 열린다.

브리튼에서는 문학이벤트에서부터 서부인디안 노팅 힐 거리 카니발, 리버풀에서 8월에 열리는 비틀즈 페스티벌 등의 논스톱

뮤직 이벤트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된 페스티벌이 진행된다.

전통적인 이벤트로는 요크의 다채로운 바이킹 페스티벌과 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의 전통적인 민속음악과 춤, 만담 등이 펼쳐진다.

National Trust (영국 명승사적 보존단체) 1백주년을 기념하는 페스티벌이 화려하게 열린다. 1백주년기념 재즈와 댄스 페스티벌, 불꽃과 폭죽으로 장식되는 음악회가 있는 다이람 공원 페스티벌 등이 포함된다.

11월에는 브라이튼에서 두번째로 성대한 벨페스트 페스티벌이 열린다. 영화와 고전음악, 드라마, 오페라, 전통 행사들이 다채롭게 조합된 축제이다.

강변무대에서 열리는 그리니치 천문대 25주년 축하 페스티벌도 화려하다.

이상과 같이 한해동안 무려 5백개 이상의 페스티벌이 영국전역에서 끊임없이 진행되

므로 언제 영국을 방문하더라도 이중 몇개의 페스티벌에 참여할 수 있다.

세계적인 극장

런던만큼 뮤지컬에서부터 연주, 발레를 공연하는 최고수준의 극장을 많이 가진 나라도 없다. 런던의 웨스트엔드만 해도 30여개의 공연장이 있어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다.

런던에는 세계 정상급의 오케스트라가 공연하는 주요 공연장으로 로얄페스티벌홀, 바비칸홀, 로얄 알버트홀이 있다. 이중 알버트홀에서는 매 여름 헨리우드 프리미나드 콘서트가 개최된다. 헨스테드히스의 다양한 종류의 음악회가 열리는데 원하는 경우 피크닉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일석이조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이번 여름부터 로얄오페라가 베르디의 28개 오페라를 7년동안 공연한다. 이러한 홀

건토의 수트니성 - 영국의 가장 낭만적인 정원의 하나



'95 영국 문화예술 페스티벌
CALENDAR

1월-4월	인상파 전시회, 런던 비비칸 센터
1월-3월	마티스, 로댕전시회, 런던 테이트 미술관
2월-4월	영국현대가구전, 런던
3월-12월	스트라트포드 95 - 웨익스피어
4월-10월	존 키츠(시인) 200주년 기념행사, 글리프스미어
4월, 10월	콧스윙즈 캠프 페스티벌, 옥스포드
4월-5월	비디오 페스티벌
5월-9월	대저택 페스티벌, 전국의 여러 대저택
5월23일~26일	첼시 꽃전시회, 런던
6월-9월	조시아 웨지우드 전시회
6월, 10월	Trooping the Colour- 여왕금식상신 축하퍼레이드, 런던
6월-8월	227회 로열아카데미 여왕 전시회
6월	캠튼코트공작 축제 페스티벌, 런던
6월	그리니치 페스티벌, 그리니치
6월	국내 민화예술 페스티벌, 전국
6월, 7월	베르디 페스티벌
7월	슬랑고슬랜 합창제, 웨일즈
7월	스트라트포드어폰에이븐 페스티벌
7월	국제 도자기 작가전
8월	워즈워드 여름축제
8월	에든버러 페스티벌
10월	리즈 국제 영화 페스티벌, 리즈
11월	런던 영화 페스티벌, 런던
11월	찰 문화제, 찰
12월	시내마 100주년 전시회

통한 음악회와 쇼는 대도시에서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 그와 버금가는 좋은 연주와 공연이 아주 작은 시에서도 적은 입장료를 받고 열린다.

런던 서쪽의 웨스트엔드는 극장가로 유명하며 레미제라블, 미스 사이공, 팬 오브 오페라 등 톱스타들이 등장하는 연극의 화려한 무대를 즐길 수 있다.

록 음악회는 햄머스미스 아폴로와 블리 아레나에서 열린다.

영국상품 - 좋은 기념품

이 기간 동안의 행사들도 재미있겠지만 여행길에 골동품과 상품들을 쇼핑하는 것도 즐거운 추억이 될 것이다.

토요일에 특히 구경할만한 포토벨로시장이나 배를 타고 가서 그리니치 골동품 시장에 가면 다양한 물건들을 구경할 수 있다. 런던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곳에 위치한 예쁜 마을들이 모여 있는 콧츠윙즈지역에도 좋은 골동품 상점이 많이 있다.

스코틀랜드는 질 좋은 체크무늬의 목도리, 주름치마, 담요나 솜, 그리고 우수한 질의 양모제품으로 유명하다. 직접 공장에서 아주 싼 가격에 살 수 있다. 웨일즈 지방

도 넓은 초원에서 자라는 양들이 풍부하여 양모제품을 쇼핑하기에 좋은 곳이다. 또한 금제품도 왕실의 결혼반지로 사용된 후 아주 인기가 높다. 스톡온트랜트는 웨지우드와 로얄덜턴 같은 유명한 본차이나 그릇 공장이 있다. 이 두 공장은 견학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제품도 직접 구입할 수 있다. 1995년은 실로 웨지우드로서는 이 회사의 창시자 조시아 웨지우드의 서거 2백주년을 맞는 특별한 해이다. 런던의 빅토리아 알버트 박물관에 그의 주요작품이 전시된다.

런던에서는 여름에 물건을 구입하거나 단지 눈요기만으로도 즐거운 노천시장이 많이 있다. 예로부터 런던 시민들에게 꽃과 과일, 야채를 공급해 오던 코번가들은 근래에 와서는 최신유행 상품을 파는 상점과 노점상, 선물집과 와인 바가 즐비하게 늘어선 곳으로 변했다.

이슬링톤에 위치한 캄덴패시지 지역은 골동품 시장으로 유명하고, 이스트엔즈에 있는 일요일에만 장이 서는 패티코티레인 시장은 골동품만 아니라 런던 토박이 상인들이 연출해내는 분위기로 한층 더 유명하다.

영국여행센터 (런던소재)

피카딜리 광장에서 2분거리에 위치한 영국여행센터는 영국관광청, 영국국철, 그리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공동으로 결색한 것으로서 한 장소에서 런던에 대한 여행정보나 각종 예약등 가장 광범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영국여행센터에서는 고속버스, 기차, 항공권 및 승용차 예약, 각종 관광프로그램 안내, 극장표 예매, 숙박예약, 환전이 가능하며 여러가지 외국어로 영국의 전반에 대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아일랜드관광국과 웨일즈안내 데스크도 있다.

영국여행센터내에 있는 여행관련 서적 판매점에서는 1,400여 종의 지도와 여행 가이드북이 구비되어 있어 영국 체재중 시간과 경비를 줄여주는데 기여하고 있다.

개장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9:00-18:30,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10:00-16:00이며, 5월 중순부터 9월 사이의 토요일에는 폐장시간이 더 늦어진다.



다채로운 전통축제와 행사가 있는
겨울
HONGKONG

홍콩의 겨울기간에는 다채로운 전통축제가 곳곳에서 개최된다. 지공 등불축제를 비롯 국제 시자춤 축제, 예시우 봉제등 축제, 홍콩 예술축제 등 행사가 가득하다. 습도는 낮은 반면 선선하고 시원한 홍콩의 겨울은 생동감과 활력이 넘치는 때이다. 1995년 홍콩에서 벌어지는 이벤트 행사를 찾아가 본다.

글 김지현 기자

12월부터 3월까지 홍콩의 겨울 기간은 습하지 않는 서늘한 날씨로 그 어느때 보다도 다양한 축제와 행사가 개최되며 끊임없이 움직이고 생동감과 활력이 넘치는 때이다.

홍콩의 겨울기간에는 다채로운 전통축제가 곳곳에서 행하여 진다. 그중 가장 먼저 개최되는 축제로는 지역위원회의 '지공 등불축제'를 들 수 있다. 12월 1일부터 1월 2일까지 열리는 이 축제는 중국 밖에서 가장 성대하게 열리는 행사가 될 것이다.

중국의 등불도시로 잘 알려진 지공에서 약 60여명 이상의 등불 전문가들이 참여, 30개의 예술품과 4백개의 다양한 종류의 전통등불을 비롯하여 화려한 색상의 등불장식 수제품 등 총 수백만개의 등불을 선보인다.

이외에도 이 축제와 관련하여 특별행사, 전시회, 라이브 공연과 등불 판매코너 등을 함께 마련하여 화려하고 흥겨운 축제한마당을 벌일 것이다. 신계지의 사틴 센트럴 공원에서 개최되는 이 축제는 약 1백 8십만명의 관람객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레고 '94 장난감 축제

어린이들의 꿈과 낭만의 잔치인 '레고 '94 토이 페스티벌'이 12월 21일 부터 1월 2일까지 개최된다.

이 행사에는 '장난감 역사의 세계' 전시회를 열면서 장난감과 게임의 발전사를 흥미롭게 구성하여 보여주며, 흥미와 재미가 만점인 '가족놀이랜드'에서는 삼륜차, 새로운 게임놀이와 이전의 게임을 변형시켜 다양한 기능을 갖춘 게임, 가족 체스세트, 비디오게임 등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장난감들을 소개한다.

이외에도 아이들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워주기 위해 마련된 '장난감 공장'에서 아이들이 조립품을 이용, 자신이 직접 원하는 장난감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부모와 함께 배우는 운전학교' 코너에서는 안전하게 운전하는 방법을 배운다.

오락관과 전시코너 이외에도 식당과 장난감을 직접 판매하는 코너도 마련하였다. 카이칭 스포츠 그랜드에서 개최되는 장난감

1995년 홍콩은 연중내내 각종 이벤트와 축제의 한마당 잔치를 연다.



축제의 입장료는 일인당 홍콩달러 10불 (한화 약 1천원)이며, 이 입장료에는 세계의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쿠폰이 포함되어 있다. 신장이 1미터 이하인 아이인 경우에는 입장이 무료다.

사자춤 축제 - 홍콩 전역에서 개최

홍콩 중국무예협회와 공동으로 주관하는 '1995 홍콩시위위원회 주관 사자춤 축제'가 홍콩관광협회 후원으로 1월 8일 부터 22일까지 열린다.

요란스럽지만 화려하고 다이내믹하면서도 부드러운 사자춤은 겨울행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매력으로 꼽히고 있다. 악령을 막아내고 복을 기원하기 위해 행해지는 사자춤은 독특한 광대공연으로서 이 기간에는 사자복장을 한 댄서들이 거리공연을 펼친다.

대부분의 호텔로비에서는 드럼, 심벌즈, 징과 점괘음 등을 동원해 사자춤 공연을 열 예정에 있다.

홍콩을 포함한 세계 사자춤 공연단 20개 팀이 출전하는 이 축제는 1월 8일 구룡공원에서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5시간동안 그랜드 오픈팅 환영식으로 그 막을 올린다.

이날 환영행사에는 곡예, 예술, 장인들의 작품전시회, 먹거리 잔치 등 다양한 카니발과 푸짐한 행사가 준비되어 있다. 특히 관객들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게될 '국제 사자춤 경연대회'에서는 아프리카, 영국,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미국, 홍콩 등 전세계 사자춤 공연팀이 출전하여 1월 21일과 22일 양일간 뛰어난 기량과 멋진 연기를 펼친다.

이 대회에 참가하지 않는 팀들은 특별히 마련된 '사자춤 연회' 코너에서 그들의 재능과 기량을 선보이며 가장 화려한 복장에 멋진 공연을 한 팀에게는 푸짐한 상과 상품을 제공한다.

다른 행사 프로그램으로는 홍콩전역에서 사자춤 시범이 여러 행사장에서 펼쳐지며 사자춤의 기술이나 연기를 직접 배우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강좌코스도 마련하였다.

1992년 첫 공연을 가진 이후로 '사자춤 페스티벌'은 사자춤의 고대 중국예술을 기리고 방문객들에게 독특하고 동적인 중국 전통문화를 보여주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

있다.

한편 세계 최대 해양 수족관 (215 에이커)과 홍콩 최고의 테마공원 등 다양한 위락시설을 갖춘 오션파크에서도 신년축하 특별 프로그램을 마련, 축하대잔치를 펼친다.

공원정문은 신년축하를 기리는 전통적인 장식물로 꾸며지며 행운의 상징인 중국 '부'신이 방문객들을 맞이하고 그들에게 동전모양의 초콜렛이 담겨진 '라이 씨'라는 빨간 복주머니를 선사한다.

광대와 마술공연이외에도 재즈와 중국전통음악을 연주하는 디실랜드 밴드도 카니발의 흥을 더해주며 행운을 상징하는 전설상의 동물인 '키린 (Kirin)' 댄스가 무대를 장식한다.

또한 용춤퍼레이드가 펼쳐지면서 유명 연예인들이 행운, 장수, 성공을 의미하는 세명의 요정으로 변신해 열연한다. 북경오페라 거리공연동안 행운의 '부'신은 북중국의 전형적인 신년댄스로 관람객들을 환영한다.

이어 금붕어 파고다관에서는 1월 23일부터 2월 1일 까지 1백여종 이상의 희귀 금붕어를 전시한다.

홍콩예술축제

작지만 모든 것이 복합되어진 홍콩의 도시는 다양한 종류의 행사들을 개최하는 데 그중 2월 11일부터 3월 5일까지 열리는 '홍콩예술제'는 아시아 최고의 문화행사중 하나로 국내외 스타들이 참가하는 권위있는 행사다.

이번 행사에는 세계적 수준의 작품 베르디의 '가면무도회' 공연과 Richard Strauss의 작품 드레스덴 스테이트 오페라의 오케스트라 공연이 열릴것이며 헝가리 국립 발레, 바이올린 연주자 Kyoko Takezawa, 플라밍고 기타리스트 Paco de Lusia, 러시아 최고의 현악 연주가들과 다른 공연들도 마련되어 있다.



1월에 개최되는 '사자춤 축제'의 한장면

이 공연이외에도 홍콩필하모닉과 홍콩 중국 오케스트라 공연무대가 있으며 전통과 현대 중국음악, 중국민속드럼앙상블, 지양조 우드러팀 등 중국전통공연이 자리를 함께한다.

또한 발레·현대 댄스·재즈 등과 일본·독일·캐나다 등 의 영화와 드라마 작품들도 출품하며 '예술과 전자공학'이라는 이색 전시회도 연다.

'95 홍콩음식축제

동서양 미식가들의 최대 관심사는 매년 개최되는 '홍콩음식축제'라고 말할 수 있다. 오는 3월 4일부터 19일까지 14일동안 개최되는 이 축제기간동안에는 연일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3월 4일·5일 양일간 뉴월드 플라자와 향구사이드 해변가에서 열리는 '맛과 멋의 향연'에서는 게임 카니발과 라이브 오락무대, 중국스낵과 음료 등 다양한 종류의 요리코너 행사가 치러진다.

이 축제중 볼만한 것으로는 쟁반위에 병과 유리잔을 놓고 떨어뜨리지 않고 먼저 들어오는 사람이 우승을 차지하는 '웨이터 경주대회'로 박진감과 흥미와 재미를 만끽할 수 있다.

이외에도 '관광도 겸한 향토요리 여행'과 홍콩 최고의 요리사들이 직접 가르쳐주는 요리강습코너와 다양한 행사, 특별연회들이 볼 만하다.

홍콩축제 1995

아시아 행사의 중심지인 홍콩은 올 10월과 1월 3주동안 '홍콩축제'를 성대히 개최할 예정이다.

이 축제는 홍콩의 놀랄만한 경제성장과 문화적 성숙도, 스포츠 활성화 등 국가발전과 성공을 온 국민이 다같이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서 이례적으로 대규모 축제행사가 될 것이다.

이외에도 홍콩의 많은 해외 교포들이 참여하며 전세계적으로 유명한 국제스타들을 초청하여 홍콩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종합도시로서의 위력을 과시한다.

'홍콩축제' 행사의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카니발, 불꽃축제, 야외 콘서트와 공연무대,

영화쇼, 예술전시회, 중국전통 문화공연, 사진전, 뮤지컬, 미술경연대회, 스포츠 행사 등으로서 흥미롭고 다채로운 행사가 준비되어 있다.

홍콩 총독 크리스 패튼은 이 행사의 공동 주관기관으로 홍콩무역발전국과 홍콩관광협회를 임명하였으며, 홍콩지역위원회, 자치구, 무역과 산업단체, 예술협회, 교육기관,

자선단체, 언론계 등 사회 각 분야의 기관들이 홍콩축제를 공식후원하게 된다.

이렇듯 겨울기간에 홍콩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흥미와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다양한 행사와 매력을 제공하는 1995년 홍콩은 다양한 이벤트 행사와 축제가 연중내내 펼쳐지는 한해다.



대규모의 이벤트, 스포츠 행사를 주관하는 '홍콩 스타디움' 전경

8억 5천만불을 들여 새롭게 완차이에 자리잡은 '홍콩스타디움'은 4만명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다.

관람석의 75%는 돔형식의 지붕으로 덮혀 있어 햇볕을 차단해 해주며 50개의 특별 전용관람실을 갖추어 그곳에서 전용 TV, 비디오, 바, 주방 등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전용관람실은 16명의 정석과 30명 규모의 부폐식을 할 수 있는 연회시설도 갖추고 있다.

이 스타디움은 특히 장애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전용관람석을 마련하였는데, 2백여대 이상의 차를 주차할 수 있는 장애인 전용 지하 주차공간도 만들었다. 이외에도 탈의실, 81개의 세탁실과

화장실이 있다. 이 스타디움의 국제 표준치 잔디구장은 축구와 럭비를 할 수 있도록 계획되었으며 세계표준의 조명시설이 24시간 내내 작동된다. 최신 방송장비와 전자동 득점계시판은 물론 라디오, 텔레비전 실황중계시설 등 최첨단 장비가 구비 되었다.

이곳에서는 가장 규모가 큰 스포츠 행사 이외에도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할 수 있는 사운드와 조명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야구경기도 가능하다.

다른 부수시설로는 스포츠 발전위원회와 국내 각종 스포츠 협회 사무실, 강의실, 회의실 등이 있으며 운영시설, 치안시설과 의료시설 등도 있다.

최첨단 조명과 음향 시스템으로 대중음악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M21

코리아음악방송

음악전문 CATV채널인 M21 코리아음악방송이 올 1월에 강남구 논현동 신사옥에 대중음악 전문 공연장인 'M21 홀'을 개관한다. 7백석 규모의 대형 콘서트 홀인 M21 홀은 콘서트를 비롯 연극, 토크쇼 등을 할 수 있는 다목적 토탈 문화공간이다.

'M21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듭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개국준비에 여념이 없는 케이블 TV 음악방송 전문채널 M21(엠투원)이 국내 최초로 첨단 디지털 녹음 시스템과 뮤직비디오 녹화설비를 갖춘 7백석 규모의 대중음악 공연을 위한 전문 콘서트홀을 연다.

내년 1월초 강남구 논현동 신사옥에 개관하는 'M21 홀'이 바로 그것으로서 자체 음악방송 프로그램 제작 뿐 아니라 외부콘서트 등을 위해서도 설비로 대관할 계획이어서 전문공연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가요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M21의 스튜디오는 콘서트를 비롯한 연극, 토크쇼 등을 할 수 있는 다목적 토탈 문화공간으로서 4층 로비와 옥상을 이용한 오픈 스튜디오 등 2개의 스튜디오와 공간전체를 최대한 활용한 전 공간의 스튜디오화를 이룩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문화경험과 풍부한 정서함양을 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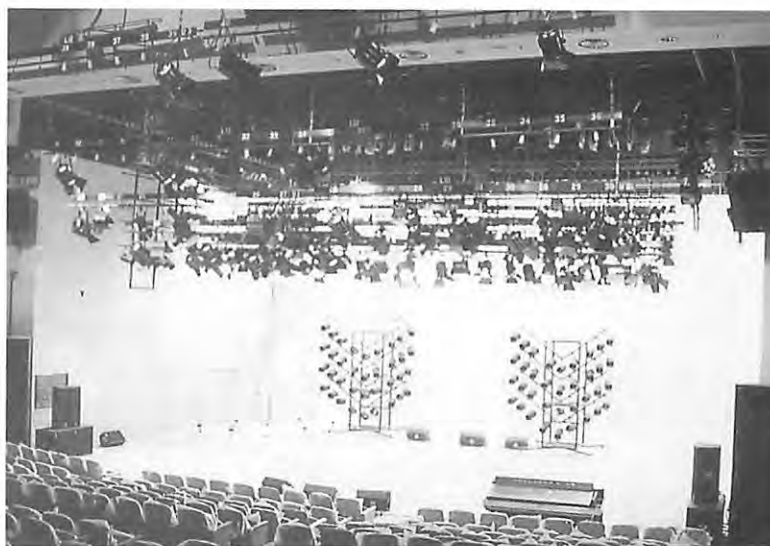
이 홀의 가장 큰 특징은 라이브공연 현장의 음향과 영상을 그 자리에서 첨단 디지털 방식으로 녹음 - 녹화, 앨범 및 뮤직비디오 제작까지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었다는 데 있다.

이를 위해 40kw 용량의 스피커와 함께 48채널의 믹서와 녹음시설, 그리고 10여대의 각종 카메라와 디지털 VCR 장비를 완비, 공연장 자체를 스튜디오 개념으로 꾸몄다.

그리고 24대의 주피터와 40대의 발리라이트 등 96채널 용량의 각종 조명기기 5백여대를 갖춰 '꿈의 콘서트 무대'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유사시에 대비하여 ALTS 전원(자동교체 시스템), UPS 전원(무정전 장치) 등의 시설까지 갖추었다.

라이브 음악 애호가들에게는 생생하고 박진감 있는 음악을, 뮤지션들에게는 더욱 넓은 무대를 제공하게 될 M21 홀의 오픈은 대중음악의 저변확대에 한몫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PA SYSTEM

S.A. SPEAKER 및 AMP : RMS 40 Kw

가수 MONITOR SPEAKER 및 AMP : 7EA, 1.5 Kw

SIDE MONITOR SPEAKER 및 AMP : 2EA, 3 Kw

AUDIO P.A. CONSOLE : SR 6500

AMEK TEC 40 CH

가수 MONITOR CONSOLE : ELECTRA 40 CH

조명 CONSOLE

COLORTRON : 96CH

2KW SPOT : 200대

1KW SPOT : 100대

PAR LIGHT : 200EO(大), 200대(小)

소프트 LIGHT : 100대

호리존트 : 225대

M.S.R. PIN LIGHT : 2.5KW : 6대

바리 LIGHT : 40대

JUPITER : 24대

AUDIO SYSTEM

AUDIO MIXER NEVE : 48CH

AUDIO MULTI RECORD : 48CH



서울모터쇼 Seoul Motor Show

이렇게 열린다



'95 파리 모터쇼의 전시장

'기계공업의 꽃', '제2의 국기', '달리는 외교관' 등으로 표현되는 자동차 산업의 전문전시회인 제1회 서울 모터쇼가 5월 4일부터 10일까지 KOEX 본관 및 별관 전체에서 국내 전문전시회로서는 최대규모 (31,454m²)를 자랑하며 성대하게 열린다.



기아는 파리 모터쇼에 첫 고유 모델인 세피아와 스포티지로 신고식을 치렀다.



파리 모터쇼에서 현대는 안전과 기능을 겸비한 소형차라는 이미지 전달을 위해 엑센트 절개모델을 전시했다.

‘자 동차! 움직이는 생활공간, 풍요로운 삶의 실현' 이라는 주제로 모터쇼가 5월 4일부터 10일까지 7일간 한국종합전시장(KOEX)에서 성대하게 열린다.

한국자동차공업협회, 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 한국경제신문사의 주최로 열리는 '95 서울모터쇼는 국내자동차 생산업체들이 야심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에어로 다이나믹형 승용차, 레저용 밴과 지프, 고품격의 안락용 버스, Concept Car,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차 등 새로운 모형의 신차를 관람객들에게 모두 선보이게 된다.

그동안 국내에서 개최된 자동차 전시회 및 부품전시회는 고작 몇몇 차종만을 전시해 놓고 과대선전을 하거나 전시장이 자동차용품 판매장이 되어 버림으로써 기대를 가지고 전시장을 찾은 관람객들로부터 철저히 외면을 당해왔다. 그러나 이번엔 개최되는 '95서울모터쇼는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발전을 선도하고 있는 생산자 단체가 주최함으로써 여지껏 구태의연한 자동차 전시회의 불명예를 말끔히 씻고 한국에서 본격적인 모터쇼의 서막을 여는 장이 될 것이다.

자동차 축제무드를 조성할 다양한 부대행사 열려

■ Pre-event 기획행사

'95년 3월부터 개막전야제까지 약 2개월 동안 전국 주요도시를 순회하며 운전면허 보유자의 자동차슬라럼대회, 유치원생의 자동차 그림그리기 대회, 운전자가족의 노래 자랑대회 등 Pre-event 행사를 다양하게 개최함으로써 모터쇼에 대한 전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홍보행사와 함께 올바른 자동차문화 정립을 위한 캠페인 행사를 전개한다.

■ 개막전야제 행사

'95년 5월 2일에는 모터쇼 탄생을 축하하는 개막전야제가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성대하게 열린다. 국내 톱가수와 인기탤런트가 출연하여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과거, 현재, 미래상을 조명해 볼 수 있도록 노래와 코메디 그리고 영상이 함께 어우러지는 박진감 넘치는 무대를 구성한다. 이 행사는 후원기관인 KBS를 통하여 TV 생방송을 할 계획이다.

■ Press day 행사

개막 하루 전날인 5월 3일에는 국내외 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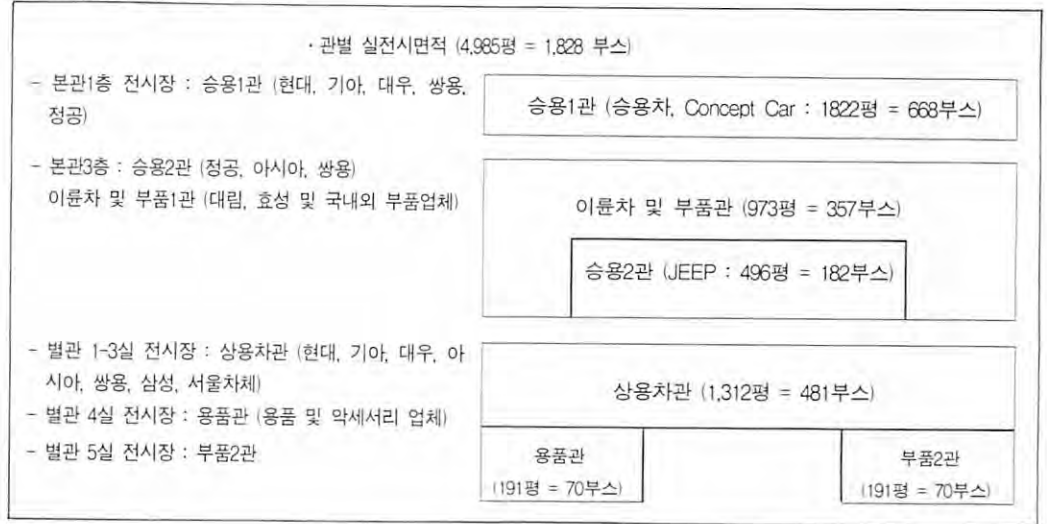
· 전시규모 및 품목

위 치	면 적	전시관	전 시 품 목
본관1층	10,368m ² (3,142평)	승용1관	승용차, Concept Car,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본관3층	10,368m ² (3,142평)	승용2관 부품1관	Jeep형 승용차 이륜차, 자동차부품(엔진, 전장부품, 동력전달부품, 조향부품, 현가부품, 제동부품, 차체, 요소부품 등)
별관 1-3실	7,488m ² (2,269평)	상용차관	승합차, 버스, 트럭, 특장차 등
별관 4실	1,620m ² (490평)	용품관	자동차 악세서리, 왁스, 세정제, 첨가제, 방향제, 윤활유, 부동액, 시트, 매트 등
별관 5실	1,610m ² (488평)	부품 2관	자동차부품(엔진, 전장부품, 동력전달부품, 조향부품, 현가부품, 제동부품, 차체, 요소부품 등)
계	21,454m ² (9,531평)		

현대자동차가 서울대학교와 공동 개발한 수소자동차 HV



· 전시장 면적 및 도면



도진들의 서울모터쇼 특집보도를 위해 Press day 행사가 펼쳐진다. 주요 참가업체가 이날 자사의 출품차종에 대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설명회를 갖는다.

또한 KOEX 3층에 Press Center를 설치하여 보도진들이 기사를 쉽게 송고하고 취재할 수 있도록 팩시밀리, 복사기, 전화기, 전동타자기를 비롯하여 상담과 휴식에 필요한 안락의자 등 일체의 편의시설과 함께 다과도 제공한다. Press day는 우리나라 전문전시회로서는 서울모터쇼가 처음 시도하는 행사이다.

■ 개최식 및 자동차관련 세미나 개최

개막행사는 제네바모터쇼나 동경모터쇼의 경우처럼 VIP의 참석 등 거국적 차원으로 개최하며 고적대 퍼레이드와 함께 주요 인사를 초청하여 축하 리셉션도 개최한다.

한편, KOEX 4층 대회의실에 마련된 세미나장에는 매일 자동차관련 홍보 및 기술 세미나를 개최하여 소비자들에게 자동차에 대한 여러가지 새로운 정보를 제공해 준다.

■ 자동차 무료점검 서비스 행사와 입장 경품추첨

전시기간중에는 자가 운전자들의 자동차

안전점검 생활화를 위해 잠실 한강시민공원에서 자동차 제작메이커들이 무료 A/S활동을 전개한다.

또, 입장관람객에게 감사하는 뜻과 전시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해 유료입장객에 대한 경품추첨제도를 마련하여 개막일을 제외한 6일동안 매일 승용차를 1대씩 제공한다.

■ 서울모터쇼 심볼마크 및 어린이 자동차 그림그리기 대회 우수작품 전시

관람객들의 불거리를 위해 서울모터쇼 심볼마크 현상공모 본선 입상작품 60점과 유치원생들의 자동차를 주제로 한 그림그리기 대회 우수작품 100점을 전시장내에 전시하고 5월 5일 어린이날에는 KOEX 4층 국제회의장에서 그림대회 우수작 아동들에게 시상식을 거행한다.

자동차를 사랑하는 분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기대

'95 서울모터쇼는 전시기간 중 투입되는 인력만도 사무국 직원 140명, 경비원 408명, 캠페니언(안내양) 182명, 통역원 30명, 간호사 10명, 청소원 30명 등 연인원 800여명이 관람객 서비스를 위해 제각기 맡은바 업무

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주최측은 예상 관람객을 60만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으며 입장료는 일반이 2,000원이고 중·고등학생 1,500원, 국민학생 1,000원, 국민학생 이하는 무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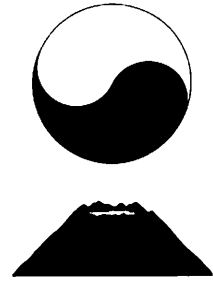
그러나 모터쇼의 성격상 단체관람이 많이 예상되는데 단체입장객(20명 이상)에 한하여 중·고등학생은 1,000원, 대학생 및 일반은 1,500원으로 할인해 줄 예정이다.

자동차보유 800만대 시점에서 열리게 되는 우리나라 최초의 자동차종합전시회인 '95 서울모터쇼는 우리자동차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보여줌으로써 국산차의 새로운 이미지를 심는 계기를 마련하는 한편 우리 문화에 걸맞게 제대로 치루어 한국에서의 자동차 문화가 꽃을 피우는 계기가 될 것이다.

광복50주년 기념사업

주제어 및

휘장 · 로고 확정



광복
50

광복50주년을 맞이하여 범국민적인 기념사업을 준비 중에 있는 광복50주년기념사업위원회 (위원장 : 金桂洙)에서는 지난 12월7일 세종문화회관 회의실에서 올해 광복50주년 기념사업의 주제어와 기념 휘장·로고를 발표했다.

주제어로는 '광복50년, 통일로 미래로'가 채택되었고 공식휘장은 불교방송, 서울600년사업 등의 휘장 제정에 참여한 바 있는 홍익대 안상수 교수의 작품으로 '태극', '백두산', '동해물'을 '광복50'과 결합시킨 것으로 확정되었다.

휘장 작가인 안상수교수는 이날 발표회에서 휘장작품은 전체적으로는 '물결치는 동해에서 백두산 정상으로 떠오르는 태양의 모습'을 상징하며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통일과 미래로 향한 진취적 기상을 함축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광복50주년기념사업 휘장·로고의 디자인 특징은 기존의 심벌들에 많이 사용된 완성형방식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해체·조합형으로 구상, 창작한 점을 들 수 있다. 해체·조합형의 구성은 한자의 기호체계(日+月=明, 人+言=信)와 같은 동양적 전통에 부합하며 '광복 50년'의 새로운 기호창출을 통하여 광복50년의 새로운 의미와 개념을 표현하고자 한 것이다.

기념 휘장·로고의 또 다른 특징중의 하나는 형태를 변화시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세로꼴을 기본으로 하되, 가로꼴이나 네모꼴로도 배열을 변화시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각적 변화와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공식 휘장의 의미

전체형태

기본디자인은 기존 심벌의 완성형 방식을 해체한 조합형으로 접근하였다. 물결치는 동해에서 백두산 정상

으로 떠오르는 태양의 모습을 상징, 그것을 동양화의 원근법적 표현 방식으로 배열했다. 태극은 중성,산은 남성, 바다는 여성을 상징하는 것으로 민족전체의 조화와 화합, 참여와 완성을 뜻하며, 각각 외곽 형태로서 天-地-人을 상징한다.

태극

태극은 우주의 본질인 변화무쌍한 가운데 절대적 생명을 뜻한다. 우주 진리에 따라 서로 화해하고, 참여하는 것을 상징하며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체성을 의미한다.

백두산

백두산은 우리 민족의 모태이며 영산으로서 민족 정기와 기개의 상징이다. 한민족의 역사가 백두산과 함께 하며, 백두산은 우리가 통일로서 되찾아야 할 겨레의 혼이다. 이제 광복 50주년의 시점에서 우리의 국토임을 다시금 확인하고 인식시킬 수 있는 기회이기에 심벌로 삼았다. 산의 형태가 백두산임을 쉽게 식별시키기 위해 천지의 모양을 삼입하였다.

동해의 춤추는 물결

동해 또한 한민족의 신화적 모태로서 우리 민족의 무한한 잠재적 에너지의 원천이다. 물결이 춤추는 형태는 광복의 환희를 극대화한 표현이며, 광복의 의미를 강조하며 경축하는 상징이다. 또한 광복의 그날 거리에서 만세를 부르던 손들의 모습과 쉽게 연상이 일치할 수 있으며, 통일과 번영을 향한 새로운 도전에 찬 우리 모두의 대열이다. 바닷물결의 형태는 조선조 임금의 뒷편에 늘 두어, 나라의 번영과 안녕을 기원했던 '日月五嶽圖'가운데서 그 형태를 따왔다.

글씨

로고타입의 글자체는 조선조 말 우리 민중의 사랑을 받았던 坊刻本의 "목판체"를 집자하여 그것을 바탕으로 현대적으로 다시 디자인 하였다. 이 목판 활자는



특유의 칼새김맛을 가지며 투박하면서도 힘찬 우리 한글의 특징을 예술적으로 승화시켜 그 서민적 정취와 기상을 담백 담은 한글 글자꼴이다.

공식 휘장의 활용

사용시 주의사항

- 공식휘장은 '광복50주년'의 이미지를 함축한 시각 상징이므로 이를 매체에 활용할 경우 필름 복제 방식 또는 컴퓨터 데이터를 이용하여 정확하게 재현해야 한다.
- 형태 및 색상의 변형 사용을 금한다.
- 색상 표현시 반드시 규정된 색상(원색 또는 별색)에 따라 사용한다.
- 최소 사용 규격:가로배열 3.5cm,세로배열 3cm를 원 칩상의 최소규격으로 규정한다.
- 휘장의 각 구성요소를 분리해서 사용할 수 없다.
- 휘장 전체를 외곽선 만을 이용하여 표현하는 것을 금한다.
- 휘장 주변 및 배경으로 복잡한 그림 또는 사진을 넣어 사용하지 못한다.
- 가로 또는 세로 비율을 변형하면 안된다.

컴퓨터 데이터 이용방법

광복50주년 휘장·로고타입 사용지침과 관련된컴퓨터 데이터는 하이텔에 실려 있다. 이용방법은 'go I-NDE'하거나 <12.여론광장 - 815. 광복 50주년 기념사업>을 선택하여 광복50주년 기념사업으로 들어오면 초기화면에 휘장·로고제작과 관련된 안내설명이 나온다.

휘장·로고타입의 사용절차 안내

휘장·로고타입 사용의 기본 원칙

광복50주년 기념사업의 공식 휘장·로고타입은 사용하고자 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널리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를 악용하거나 불법·저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 신고토록 한다.

사전 신고 접수 창구

광복5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홍보기획과 또는 서울특별시, 각 직할시, 도의 공보관실 가운데 신고인이 편리한 1개소에 신고하면 된다.

사전 신고 대상 및 방법

1. 신고 대상 : 기념사업(행사)에 사용하는 경우, 상품 제조 및 광고 등에 사용하는 경우
 - * 사전 신고 생략 대상 : 각급 행정기관 및 정부투자·출연기관, 각급학교, 언론사, 광복50주년 기념사업으로 공식 인정된 사업의 주관단체

광복 50년, 통일로 미래로

2. 신고자 :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 대표자 명의

3. 신고일 : 사용개시 30일 전까지

불법·저질 사용에 대한 규제

- 광복50주년 기념 휘장·로고타입을 사전 신고하지 않고 사용하거나 불법·저질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한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저작권법 제98조에 의하여 권리 침해시 3년 이하 징역, 3천 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이를 병과(併科)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규제 대상

- 부정·불량·무허가 제품의 생산·판매·유통시 사용
- 휘장·로고타입을 넣어 과장광고 등에 사용하는 행위
- 풍속 저해 및 사이버 행사 등에 사용
- 불법·유령·이적 단체의 사용
- 기타 광복 50주년 기념사업의 의의를 손상시키는 사용 등

유의 사항

휘장·로고타입을 신고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본 광복50주년 기념사업위원회의 공식사업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공식사업으로 인정되려면 별도의 신청 및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고창구

- 광복5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홍보기획과 (02)722-0815
- 서울특별시 공보관실 (02)731-6111~2
- 부산직할시 공보관실 (051)463-9474
- 대구직할시 공보관실 (053)429-2031
- 인천직할시 공보관실 (032)427-0065
- 광주직할시 공보관실 (062)224-1187
- 대전직할시 공보관실 (042)250-2031
- 경기도 공보관실 (031)47-4242
- 강원도 공보관실 (036)151-3315
- 충청북도 공보관실 (043)220-2031
- 충청남도 공보관실 (042)255-9028
- 전라북도 공보관실 (065)284-8327
- 전라남도 공보관실 (062)232-7127
- 경상북도 공보관실 (053)950-2031
- 경상남도 공보관실 (055)161-4242
- 제주도 공보관실 (064)40-1150



첨단과학이 부활시킨 실물 크기 그대로 재현된 세계 공룡대전

첨단 과학기술과 철저한 고고학적 고증을 바탕으로 1억 6천만년전의 공룡시대를 실제와 똑같이 재현한 세계공룡대전이 미국 보스턴, 푸에르토리코 대만에 이어 세계 5번째로 한국에 전격 공개된다.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공룡들의 탄생, 성장, 멸종 과정이 드라마틱하게 전개된 10개의 전시장 관람을 통해 지구 역사에 대한 탐구심과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의 중요성을 깨닫게 될 것이다.

금세기 최대의 빅 이벤트 '세계공룡대전(The World of Dinosaurs)'이 드디어 국내에서도 열린다.

이미 미국의 보스턴과 푸에르토리코 대만에서 백만 이상의 관람객이 다녀가 대단한 성공을 거둔 것으로 알려진 '세계공룡대전'. 홍콩, 싱가포르, 중국과의 경쟁에서 최종 개최지로 한국이 선정되, 12월 20일부터 2월 12일까지 총 55일간 한국종합전시장 별관에서 열리는 '세계공룡대전'은 무엇보다도 철저한 고증을 거쳐 실제 크기와 공룡이 살았던 당시 환경 그대로 재현된다는 데 의의가 있다.

"전시회를 통해 인류과학에 대한 어린이들의 탐구심과 연구심을 불러 일으키고, 어린이들이 미래에 대한 꿈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인류역사와 지구 생태계 그리고 우리가 사는 환경을 이해하는데 실제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세계공룡전을 우리나라에 유치한 (주)이떼프라스 이동우 사장의 말이다.

한편 이 전시회를 기획·제작한 WTCB (WORLD TRADE CENTER BOSTON)는 미국 뉴잉글랜드주에 있는 대규모의 컨벤션센터이다. 국제적 기업들의 회의 장소로, 기술무역쇼의 전시장으로서의 물론 매년 특별 이벤트를 개최함으로써 가장 독창적인 컨벤션센터로 세계에 명성이 나왔다.

특히 '세계공룡대전'은 보스턴 무역센터의 사장 존 드류씨가 직접 기획·진행하고 있는 이벤트로 어린이 교육효과 외에도 가족단위의 오락을 제공하고, 나아가 세계적인 관심사인 환경에 대한 문제의식과 비전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미 개최국들에서는 폭발적인 관심과 호응을 얻은 바 있다.

"교육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재미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육성과 오락성을 겸비한 세계공룡전은 어린이와 어른들이 함께 즐기고 공부할 뿐만아니라 그토록 오랜 세월동안 지구를 지배했던 공룡의 갑작스런 멸망과 함께 우리가 사는 이 지구의 환경 생태를 생각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최근 우리나라를 방문한 존 드류씨의 견해이다.

타임머신 타고 6,500만년 전으로 여행,
10개 전시관에서 공룡시대 경험

지금으로부터 2억 2천만년 전에 등장해 무려 1억 수천만년의 긴 시간동안 이 지구의 주인이었던 공룡! 몸길이 3m의 최초의 공룡인 코엘로피시스, 최대의 공룡으로 알려진 사이즈모사우르스, 유라기 후반 세계 각지에 분포한 스테고사우르스, 최강의 육식공룡 티라노사우르스 등 50여점의 공룡이 실제 크기 그대로 3,000

평의 공간에서 되살아난다.

입구에 들어서면 맨 처음 거대한 다리를 만나게 된다. 난폭하기로 유명한 티라노사우르스렉스의 다리인 것이다. 원래 크기로 제작된 다리의 단면은 공룡의 다리 근육과 신경세포 등이 상세히 묘사돼 있어 공룡이 어떻게 걸을 수 있었는가를 보여준다. 그렇게 큰 다리에 압도당한채 걸어가다 보면 터널이 나타난다.

실감나도록 꾸민 TIME LINE터널을 따라 들어가면 관객들은 공룡이 살던 6,500만년전의 세계로 돌아가는 기분을 느낀다. 20여 미터에 달하는 한쪽 벽면에는 공룡의 종류 및 연대기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어 앞으로 있을 공룡여행에 대한 예습의 역할을 한다.

드디어 2억 2천만년전으로의 여행! 'CAMOUFLAGE TUNNEL'. 정글식으로 꾸며진 이 터널을 통해 중생대로 들어가게 된다. 터널을 지나는 동안 각종 동물의 울음소리는 물론, 실제 크기의 티라노사우르스렉스 머리가 20m에 달하는 터널 전체를 빠른 속도로 왔다 갔다 하면서 공포와 긴장, 스릴감을 준다.

이후고 '대공룡전시관'. 공룡멸망 이전의 환경을 재현, 제작된 공룡들이 살아 움직이고 포효하며 다가온다. 최첨단과학이 이루어낸 로봇에 정밀한 피부제작은 물론, 다리와 머리, 입 등 신체부위를 자유자재로 움직임으로써 완벽한 공룡의 세계가 연출된다.

한편 대공룡전시관 한가운데에서는 360도 영상화면인 '씨클비전영화'가 상영된다. 250명-300여명이 서서 볼 수 있는 이 영화관에 들어서면 정글의 한가운데 서 있는 듯한 착각에 빠질 정도로 완벽한 공룡의 세계와 그들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이 전시관은 특히 세계 최고의 공룡학자로 알려진 Don Lessom 교수의 자문으로 실현된 것으로 진정한 공룡의 세계를 엿볼 수 있다.

이렇게 공룡의 거대한 몸집에 압도된채 걸어가다보면 '포악한'공룡의 이미지를 바꾸는 색다른 것을 만나게 된다. 이른바 '베이비 공룡관'.

'다정한 어미 도마뱀'이라는 뜻의 마이아사우르스의

발견은 공룡에게도 모성이 있었음을 알게 한다.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이 마이아사우르스는 어미가 알을 낳은 다음에 부화를 위해 풀이나 나뭇가지로 집을 덮어주거나 딸기 등의 과실을 입안에서 으깨어 새끼에게 먹였다. '베이비공룡관'은 마이아사우르스의 아기 공룡들을 특수제작해 공룡의 탄생부터 성장과정까지 연출을 한 것으로 공룡알이 부화되는 모습도 볼 수 있다. 이번 전시를 위해 특별히 제작, 세계최초로 우리나라에서 공개된다.

그리고 관객은 곧바로 '타임터널'을 통해 과거로부터 인류가 생존하고 있는 현대문명의 세계로 되돌아온다.



도착하자마자 만나게되는 '쥬라기공원'. 영화 쥬라기공원과 동일한 세트 구성으로 갑자기 세마리의 공룡이 관람객을 습격하는 등 육식공룡의 공격을 실감나게 맛볼 수 있다. 이렇게 과거로의 여행에서 돌아오면 현재가 펼쳐진다.

세계에서 단 두개밖에 없는 완벽한 형태의 티라노사우르스의 두개골 및 세계각지에서 발굴된 중요한 의미를 지닌 화석이 전시된 '특별전시관'이 있다. 전세계의 대륙이 하나로 붙어 있던 1억 1천만년 전, 코끼리 16마리를 합쳐놓은 것만한 거대한 몸집의 울트라사우르스, 단번에 내장을 찢어낼 만큼 날카로운 발톱을 가진 다이노니쿠스 등 공룡들의 천국이었던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공룡의 화석, 공룡알, 공룡분포도까지 보여줌으로써 세계각지의 공룡역사와 함께 한반도에서의 공룡사를 한 눈에 비교분석할 수 있는 교육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세계최초로 선보이는 베이비교육관
360도 써클비전영화 등 볼거리 풍부

그 한쪽에는 세계 최첨단의 영상울동오락시스템인 18객석의 '리액터2대'가 우리나라에 특별히 마련됐다. 특별제작된 탐험선 의자에 앉으면 3D컴퓨터그래픽으로 영상처리된 화면과 움직이는 의자들로, 화면 안의 상황을 실제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영상울동오락시스템이다. 입구에는 'DINO ISLAND (공룡의 섬)'라 쓰여있는데 이곳에 들어가는 순간 관람객은 탐험선을 타고 공룡시대로 여행을 하게 된다. 낭떠러지와 계곡, 동굴과 숲속 등을 실제 상황처럼 느끼게 제작한 컴퓨터그래픽 영화로 화산폭발에 의해 곧 멸망될 위기에 처해있는 공룡들을 현대의 인간들이 구출하는 드라마틱한 내용이다.

공룡을 구출한 후 문밖에 마련된 공룡의 몸을 통과하면 오랜 공룡시대 여행을 끝내고 완벽하게 현재로 돌아온다. 그리고 어린이를 위해 특별히 마련된 '어린이 체험 교육관'을 만나게 된다.

'어린이 체험 교육관'에서는 30대의 컴퓨터가 놓여져 무료로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공룡컴퓨터게임, 모래가 가득 찬 나무박스에서 공룡알을 찾는 공룡알 찾기, 공룡그림그리기, 찰흙으로 공룡만들기 등의 행사가 준비되어 있다. 더욱이 이 교육관에 있는 '공룡정보센터'는 관람객이 직접 컴퓨터를 조작, 평소 공룡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는 질의·응답, 공룡 퀴즈쇼 등이 매시간마다 20여분씩 펼쳐진다.

지난 93년 12월 말 국립서울과학관의 '공룡전시회'를 시작으로 그동안 국내에서 크고 작은 공룡전은 있어왔다. 대부분 공룡화석이나 축소모형 등으로 현장감

이 다소 약했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세계공룡대전'은 높이 11m에 달하는 최강의 맹룡인 티라노사우르스는 물론, 트라이아스기, 쥬라기, 백악기 등에 등장했던 여러 종류의 공룡들이 철저한 고증을 거쳐 실제 크기로 전시, 공룡시대로 안내한다는 데 주목할 만하다.

미국의 카네기 자연사박물관처럼 세계적인 박물관은 접어두고라도 현재, 내노라할 자연사박물관이 거의 없는 우리 실정을 생각해 볼때 이 '세계공룡대전'은 어린이는 물론 성인들까지도 지구의 역사를 배울 수 있는 보기 드문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1 정글터널
(Camouflage Tunnel)
쥬라기행 정글터널에 들어오시면 실제 공룡이 생존했던 1억 6천만년전의 과거로 되돌아가는 첨단 과학의 신비로운 시간 여행이 시작됩니다.



6 쥬라기 공원
(Pector Cage)
돈 레싱교수의 고증을 바탕으로 영화 '쥬라기 공원'과 동일한 세트 구성된 쥬라기 공원은 육식공룡의 공격이 생생하게 연출됩니다.



2 대공룡전시관
(Dinosaurs)
공룡들이 서식하던 실제환경을 배경으로 크기와 피부가 실물과 똑같이 재현된 30여마리의 공룡들이 포호하며 다가옵니다.



7 특별전시관
(Fossils)
완전한 형태의 티라노사우르스 공룡화석, 한국 선사시대의 공룡화석 및 사진 등이 특별 전시됩니다.



3 360° 써클비전
(360 degree Circle Vision)
서울 공룡전을 위해 특수촬영된 영화로 입체영상을 능가하는 환상적인 영상기법의 360° 원형극장이 처음 선보입니다.



8 리액터
(Motion Simulator Rides)
화산폭발에 의해 곧 멸망될 위기에 처한 공룡들을 현대의 인간이 구출하는 스릴있는 가상체험 영화가 한국전시에 최초로 도입됩니다.



4 베이비 공룡관
(Baby Dinosaurs)
아기공룡의 탄생에서 성장에 이르기까지 공룡의 모든 것을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베이비 공룡관이 세계 최초로 공개됩니다.



9 어린이 체험 교육관
(Interactive Area : Learning Center)
다양하게 구성된 공룡컴퓨터 게임등을 통해 어린이들이 보고 느낀 공룡의 환경과 습관, 먹이사슬에 대해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5 타임터널
(Time Tunnel)
공룡들의 세계를 실감나게 경험하고 타임터널에 들어서면 먼 과거속에서 현재로 돌아오는 재미있는 광속여행이 시작됩니다.



10 공룡이야기 한마당
(Storytelling)
공룡에 관한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스토리텔러가 공룡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면서 어린이들의 질문에 알기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 줍니다.

겨울 스포츠의 꽃

스키장 행사 스케치

환상적인 설경, 경쾌한 스피드. 겨울 스포츠의 꽃은 뭘니뭘니해도 단연 스키다.
겨울철 대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면서 은빛 설원을 달리는 묘미 때문이다.
이런 '스키의 계절'을 맞아 다양한 행사를 펼치고 있는 스키장들을 찾아 본다.

진부령 알프스 리조트

진부령 알프스리조트는 편의시설 확장과 눈썰매장에 내장객들이 이용할 컨베이어벨트 설치공사를 하였다.
또한 조영시설을 보완 올 시즌부터 주말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새벽스키(오전 6~8시)와 야간스키(오후 7~10시)를 즐길 수 있게 하였다.
알프스는 10주년을 맞아 각종 캠프나 다채로운 이벤트 행사를 개최하는 등 스키와 더불어 새로운 즐거움을 더 선사하고 있다.

알프스 창립 10주년 동계 프로그램

- 알프스리조트 창립 10주년 기념 칼스버그 축제 :
기간 / 94. 12. 24~95. 2. 12, 특별 프로그램 / 영상뮤직쇼 · Beer Festival · 영상노래방 · 진기명기 · 행운추첨 · 장기자랑 · 가면 무도회 등 다양한 레크리에이션 진행
- 가족스키캠프 : 기간 / 94. 12. 3~95. 2. 28
- 무박스키 여행 : 기간 / 94. 12. 17~95. 2. 12
- 청소년 스키캠프 : 기간 / 95. 2월중 (3박4일)
- ALPS Spring Ski School : 기간 / 95. 3. 5~3. 31.
- 알프스 Holiday Festival :
기간 / 동계시즌 중 매 주말
내용 / 영상뮤직쇼 · 포크송 페스티벌 인기 가수 미니 콘서트 · Music & Dancing Festival · 아마추어 노래자랑 · 레크리에이션 등
- 영상뮤직환타지 :
기간 / 94. 12. 25~95. 2. 10
내용 / 영상뮤직쇼(댄스 뮤직, DJ가 함께 하는 환상의 대형 멀티뮤직쇼)
- 알프스 SNOW Festival :
기간 / 94. 12. 25~95. 2. 10
내용 / 영상뮤직쇼 · Beer Festival · 영상노래방 · Challenge Game · 빙고게임 등
- 이종환의 밤의 디스크쇼 :
기간 / 95. 1. 13
내용 / MBC FM 라디오 공개 녹음

무주 리조트

무주 리조트는 슬로프 18면, 리프트 7기 등을 갖춘 스키장으로서 상설 · 특별 이벤트 등으로 나누어 고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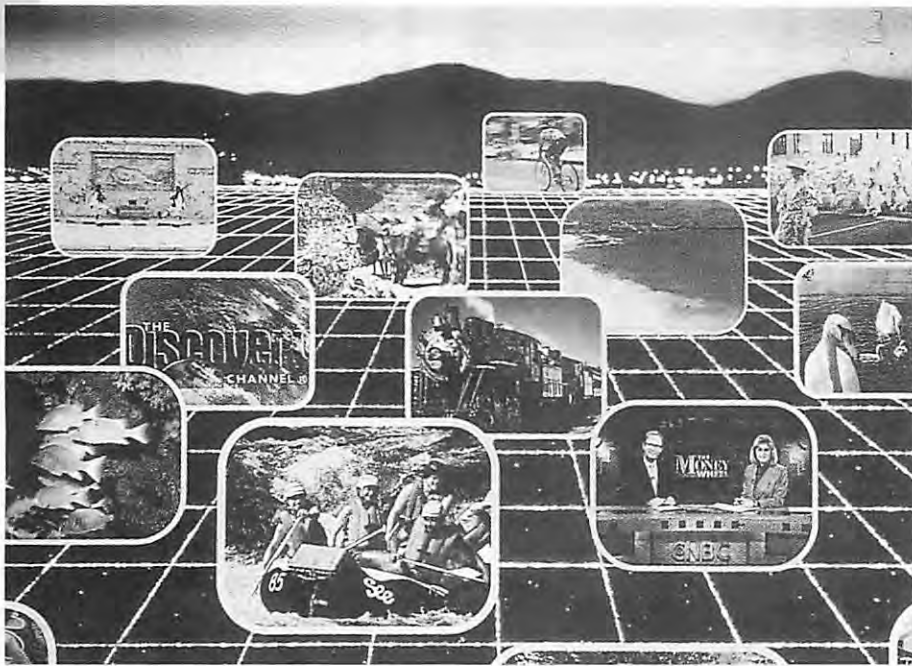
행사 프로그램

- HITE 축제 :
기간 / 94. 12. 24~95. 1. 31

내용 / 카페테리아에서 갖는 야간 이벤트행사로 다채로운 공연과 레크리에이션이 펼쳐진다.

- ASIAN SKI WEEK :
기간 / 95. 2. 5~2. 14
내용 / 동남아 지역 홍보를 위한 STAR-TV를 매체로 한 국제행사
- 스키얼차 : 당일 스키어를 위한 남만의 스키투어
- 일일스키강습 :
기간 / 94. 12. 1~95. 2. 28
내용 / 당일 스키투어 · 초보자들을 위한 스키 패키지
- 젊음의 스키축제 : 기간 / 95. 2. 1~2. 28
- 아마추어 스키대회 : 전동계 기간중 내장객을 위한 순수 아마추어 스키대회로 흥미와 상품 부짐.
- 사랑만들기 :
기간 / 94. 12. 3~95. 2. 28
내용 / 환상의 레이저 · 랩 뮤직과 함께하는 젊음의 축제 · 음악과 춤 · 레크리에이션.
- GREEN HOF :
기간 / 94. 12. 15~95. 2. 28
내용 / 통기타 가수와 함께 게임도 즐기고 노래도 부를 수 있는 시간.
- SHOW ! HITE FESTIVAL :
기간 / 94. 12. 24~95. 2. 2
내용 / 깜짝 마술쇼 · 컨츄리 밴드의 연주 · SNOW DANCE 및 에어로빅 환상의 레이저쇼와 멀티슬라이드.
- POP & 피아니스트 신년 음악회 :
기간 / 95. 1. 1
내용 / 가수 김준 · 윤희정과 POP & JAZZ 신년맞이 쇼.
- 공복진 특별쇼 :
기간 / 95. 1. 2
장소 / 카페테리아
시간 / 오후 9시 30분~밤 11시
- 우리우리 설날은 :
기간 / 95. 1. 31
내용 / 국악기와 양악기의 만남 · 아카펠라 · 사물놀이 잔치
- 겨울 패션페스티벌 :
기간 / 95. 2. 3~2. 5
내용 / 뮤지컬 가수 · 재즈댄싱팀 · 러시아 슈퍼모델의 환상적인 패션공연

미래를 여는 정보통신사업, 정보고속도로



뉴미디어시대의 액셀레이터, 정보고속도로

'95년 3월, 케이블 TV시대의 막을 여는 지금, 미국에서는 쌍방 커뮤니케이션 시대가 곧 오리라는 설레임에 술렁이고 있다. 일방적인 커뮤니케이션 형태에서 벗어나 통신과 컴퓨터, 뉴미디어가 결합하여 만들어 낼 것이 바로 쌍방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이며 쌍방커뮤니케이션의 핵심은 바로 다름아닌 '정보고속도로'이다.

'94년 정보산업계는 실로 격변기였다. 미국에서 시작된 정보고속도로의 태풍이 우리나라에까지 상륙했다. 美클린턴 행정부는 '정보의 고속도로(Information highway)'가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시장이 될 것이라는 예측아래, 지금은 첨단정보산업이 미국의 침체된 경제상황을 극복하는 계기라는 확신을 가지고, 각 학교, 전자도서관, 지방의료기관 등을 일반시민들의 가정에 연결하는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보급할 것과 정보통신사업의 자유경쟁을 고무한다는 정보산업육성정책을 발표하였다.

국내에서도 총 44조 8천억원의 자금을 들여 2015년까지 각 가정마다 광통신망을 설치한다는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뉴미디어시대를 대처하고 있다.

'정보고속도로'는 광통신망과 멀티미디어의 결합이다. 그런데 광통신과 멀티미디어는 기존의 통신망과 뉴미디어들을 완전히 대체하는 새로운 것이 아니고 현재의 뉴미디어와 통신망을 보완하거나 개선한 것들이다. 그렇지만 그 내용과 실체는 기존의 통신망과 미디어와는 차원을 달리한다.

'정보고속도로'에서는 광통신망과 광고환 및 전송기술이 필수적인데, 이 분야의 기술은 세계적으로 첨단기술에 속하며 기술과 정책상의 많은 난점들이 존재한다. 현재 미국 미디어산업의 거장들은 첨단설비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각기 연구와 투자에 몰두하고 있다.

현재 미국에서 실행 중이거나 실험단계에 있는 첨단 미디어 서비스로는 케이블TV와 관련하여 다채널 케이블TV와 쌍방커뮤니케이션 서비스를 들 수 있다.

쌍방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은 라디오나TV와 같은 대중매체와 시청자전화와 같은 두 가지 매체가 서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형태라고 말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새로운 쌍방 커뮤니케이션은 현재 실험단계에 와 있다.

지붕에 약 50만원짜리 조그마한 수신안테

나를 달면 Hughes Direct TV가 송신하는 150개 채널을 바로 안방에서 받아볼 수가 있다.

멀티미디어와 뉴미디어의 태풍이 몰려오고 있다. 무려 120만대의 PC가 팔려 '단군 이래 최대호황'을 맞은 1994년은 멀티미디어와 뉴미디어라는 제2의 개화물결로 출렁이는 한해였다. 정보산업의 혁명이라 할 수 있는 디지털혁명의 바람은 우리 삶을 송두리채 변화시키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고 있다. 미국에서 시작된 정보고속도로의 태풍이 상륙한 94년은 미래의 첨단 서비스와 달라진 생활문화를 소개하는 선에서 임무를 끝냈지만 95년으로 뉴미디어 시대의 바통은 계속 넘어가고 있다.

한편 미국의 가장 큰 케이블 방송사인 TCI(Tele Communications Inc.)는 540채널까지 수신할 수 있는 수신기를 판매할 예정이다. 또 타임워너사는 플로리다주에 4천명의 시청자를 대상으로 쌍방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그리고, 비교적 규모가 큰 케이블 방송사들과 각지역 전화 서비스 회사들은 앞을 다투어 광케이블과 동축케이블로 연결된 쌍방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보고속도로 구축조건과 현황

정보고속도로 구축조건과 현황

정보고속도로는 엄밀히 말해 광대역 종합정보통신망(B-ISDN)을 말한다. 광대역 종합정보통신망은 전자통신에서 광통신으로, 아날로그 통신에서 디지털 통신으로의 변화를 말한다.

광대역 종합정보통신망은 인간과 사회의 정보에 대한 기대치나 욕구가 늘어나는 추세에 기술이 대응한 결과이다. 이제, 통신망이 증폭돼가는 사회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을려면 기존의 동축케이블을 광케이블로 대체하여 사회의 정보를 대용량, 초고속으로 처리해 내는 도리밖에 다른 기술적 대안이 없다.

이같은 광대역 종합정보통신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필요한 선결조건은 기존 동축케이블의 광케이블로의 대체, 현재의 동기식 전자 교환기를 대신할 비동기식(ATM)교환기의 개발설치이다. 그리고 사용자 단말기들이 사용하기 쉽고 편리한 인간위주 멀티미디어로 구현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멀티미디어 개발에는 초집적회로(VLSI)개발이 선행되어야 하며, 여기에는 첨단 칩제조기술이 필요한 반도체(ASIC)가 요구된다.

이미 운용하고 있는 종합정보통신망은 정보를 전송하는 전송로와 고객 상호간을 연결하는 교환기가 모두 디지털화된 통신망으로 기존의 아날로그 전화망에서 구축한 동축케이블을 가능한 활용하고 있다.

동축케이블에 비해 광섬유는 머리카락보다도 가늘지만 빛을 손쉽게 멀리 보낼 수 있다.

한편 정보 전송에 있어서도 광섬유는 종래의 구리로 만든 동축케이블보다 훨씬 많은 양의 정보를 전송할 수 있다. 이 광케이블을 전제로 한 종합정보통신망을 광대역 종합정보통신망이라고 부르며 이것이 곧 정보고속도로이다.

광대역 종합정보통신망에서 비동기 전송 모드(ATM:Asynchronous Trans Mode)패킷통신에 의한 정보 전송 및 교환, 그리고 전화국에서 고객의 집과 사무실까지 광섬유를 부설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즉 정보고속도로 닦기는 ATM교환기와 광케이블 부설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B-ISDN 부설과 ATM교환기 개발은 엄청난 재원과 기술력이 필요하므로 B-ISDN 통신서비스 시장에 대한 장기적인 전망이 밝아도 선불리 투자하지 못한다는 난점이 있다.

국내의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사업은 이제 겨우 원격진료와 원격영농시스템이 시작된 정도에 불과한 말그대로 싹트는 단계이며 어떤 첨단 서비스로 정보고속도로의 내용을 채워야할 지는 미래의 과제로 남아있



이제 통신망이 증폭된 사회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기존 동축케이블을 광케이블로 대체하여 정보를 대용량, 초고속으로 처리해내는 도리밖에 없다.

다.

디지털 멀티미디어의 정보와 데이터들이 네트워크 통신기법을 통해 쌍방향으로 통신망 위를 달리는 형태를 주목해서 '타임'지에서는 정보고속도로를 전자초고속도(Electronic Super-highway)라고 표현했다. 이는 정보고속도로의 주된 통신서비스가 쌍방향 서비스에 치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쌍방향 서비스가 효과적으로 실행하려면 정보고속도로의 단말기는 당연히 멀티미디어가 주축을 이뤄야 한다.

이를 위해선 다음과 같은 선행기술이 필요하다. 첫째 모든 오디오, 비디오 통신을 디지털 정보화할 수 있는 능력, 둘째 디지털화된 데이터를 저장하고 전화선이나 케이블선을 통해 전송할 수 있도록 압축할 수 있는 기술, 셋째 제한없는 전송이 가능하도록 하는 광섬유 통신망, 넷째 멀티미디어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스위칭 기술이 그것들이다. 그리고 멀티미디어의 기술개발과 상품시장 확보를 위해서 광대역 종합정보통

신망 즉, 정보고속도로가 필수적임은 당연하다 볼 수 있다.

멀티미디어란 그 어원이 말해주듯이 두개 이상의 미디어를 동시에 한 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그 시스템과 대화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광대역 종합정보통신망의 장래에 있어서 키워드가 될 VI & P(Visual Intelligent, Personal)를 구현하는 시스템으로, 영상과 같은 비음성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저장기술과 고화질 시스템의 디지털화를 가능케 하는 디지털 비디오 기술, 그리고 문자, 그림, 비디오 영상 따위의 다양한 미디어를 결합시키는 하이퍼 미디어 기술이 요청된다.

'94년 이후 주문형 비디오(VOD)를 중심으로 각종 첨단 서비스의 개념이 소개되면서 사람들은 열광했고 화상회의시스템이 몇몇 기업들에 의해 활용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 가전업체들은 CD-1, CD-FMV, CD-ROM, CD비디오 등을 상품화했다.

486급 이상의 PC도 거의 CD-ROM드라이브를 장착하는 것은 물론, 국내에서 양산되는 오디오, 비디오카드를 장착하는 경우가 늘고 있으며 PC운용 프로그램 GUI(Graphic User Interface)가 대중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IBM과 매킨토시 컴퓨터가 호환되는 파워PC가 국내에서도 생산되었으며 한국통신에 의해서 VOD가 시범 서비스되고, 사무기기나 가전제품도 디지털화가 진행되고 있다.

현재 멀티미디어는 직접 통신망에 접근하지 않은 채 PC를 중심으로 발전해가고 있다. 이는 지금 당장은 멀티미디어 통신기기가 등장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미 PC가 멀티미디어 통신단말기 역할을 부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PC통신이 활성화되면서 데이터베이스공급업체(IP)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PC통신인들이 정보화사회의 새로운 여론주도층으로 떠올랐다. PC통신은 이제 황금시장이 됐다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회장의 진단은 정확했다.

이제 우리도 멀티미디어 산업에서 PC를 주축으로 방송, 통신, 가전, 출판, 영화 등 7대 미디어산업의 융합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그러나 국내정보산업은 하드웨어부문

은 상당한 성장을 보였지만 정작 중요한 소프트웨어는 여전히 후진국 수준에 머물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의 정보고속도로 사업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을 위해 체신부 주관으로 1993년 상반기에 '초고속정보통신망 실무추진전담반'을 구성, 외국의 사례조사 및 사업착수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거쳐 '93년 8월 19일 계획의 기본골격을 마련했다. 그리고 1993년 9월부터 1994년 3월까지 관계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초고속정보통신망 연구분과회'를 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1994년 3월 17일 대통령에게 보고를 한 바 있다.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사업'은 앞서 얘기한 '정보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것으로 국가기관, 연구소, 대학 등에 주요 이용대상으로 하는 '초고속 국가 정보통신망' 건설사업과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초고속 공중정보통신' 건설사업으로 나뉘어 2015년까지 45조원을 투자하여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94년에 초고속국가정보통신망 건설의 추진체계를 정비, 서울과 대덕연구단지간에 선도시험망을 구축하여 기술개발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원격의료 등의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였다.

미국에서는 한발 앞서 국제경제환경에서 효과적으로 경쟁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융통성있는 정보통신망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판단, 곧 도래할 '정보사회'에 대비한 국가전략으로 정보초고속도로 구축을 중심으로 한 NII(Nat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계획을 옐 고어 부통령을 중심으로 민관이 합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미정부의 정보고속도로 건설의 기본추진방향은 크게 두가지로, 첫째 정보고속도로는 광케이블, 동축케이블, 그리고 무선통신기술 등이 혼합되어 건설되며, 중요한 것은 반드시 쌍방향 서비스가 가능해야 하며, 둘째 정보고속도로의 건설이 민간업체들의 주도아래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다. 이에 여러 분야의 민간업체에서 참여하고 있는데 대부분 케이블업계, 전화통신업계, 컴퓨터업계 등이 주류를 이룬다. 특히 케이블업계와 전화업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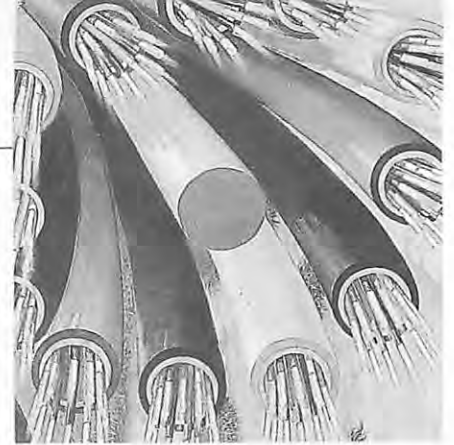
는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케이블업계가 보다 유리한 입장에 있다. 이미 미국내에 거의 모든 가정에 케이블이 연결되어 있으며 광케이블과 디지털기술을 이용한 케이블시스템의 개발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전화업계에서도 이 사실을 시인하는 형편이다. 케이블업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처해있기는 해도 케이블업계의 가장 위협적인 경쟁상대로 자리잡고 있는 전화업계는 영상서비스가 가능한 새로운 전송망을 설치하거나 보다 향상된 디지털 압축기술의 연구·개발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하는 부담을 극복하기 위해 케이블 운영업체들과의 제휴를 모색하고 있다.

일본도 '94년 5월 이후, 우정성의 공식정책심의기구인 '전기통신심의회'의 자문을 바탕으로 '신사회자본'구축의 일환으로 2010년까지 각 가정을 포함한 일본열도 전역의 광섬유전락을 추진하고 있으며 유럽도 범유럽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같은 아시아권인 싱가포르의 우리보다 훨씬 앞서 'IT 2000'이란 명칭으로 국가, 사회정보화를 서둘러, 이미 항만하역 정보화 분야에서 세계 최첨단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관련업계가 지대한 노력을 아끼지 않는 정보고속도로의 미래가 반드시 밝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현재, VOD (Video-On-Demand)나 쌍방향 홈쇼핑 프로그램이 소비자들을 매료시키고 있지만 정보고속도로를 통하여 제공되는 서비스가 얼마나 소비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가 하는 문제와 막대한 자본이 소요되는 정보고속도로의 건설은 소비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적절한 서비스 이용료 책정에 어려움을 던져줄 것이다.

통신시장개방을 맞은 우리나라의 정보고속도로

정보고속도로가 통신시장개방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의미는 남다르다. 정보고속도로가 국가의 전략산업으로서 감당해야 할 문제는 국가경쟁력으로서, 이는 '규모의 경제'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미국은 이미 탈규제와 재규제 정책을 통해 자국 통신시



장에서 규모의 경제를 이루어 국제경쟁력을 강화했으며 이를 무기로 세계시장 공략에 나섰다. 이같은 미국의 위력에 일본은 1985년 통신시장 자유화를 취할 수 밖에 없었으며 우리도 1989년에 시작된 한미통상협상에서부터 최근의 UR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통신시장 개방압력에 남김없이 개방의 문호를 열어젖히고 있다. 여기서 유의해볼 내용은 미국 통신산업의 국제 경쟁력에 대한 일본의 대응이다. 일본은 통신시장 개방에서 일찌기 NHK, NTT의 체질을 강화하면서 철저한 하드웨어 위주의 통신산업 육성책을 펴 나갔다. 그 결과 HDTV의 경우에서처럼 일부 통신설비 기술에서는 미국을 앞질렀다. 일본의 케이블TV와 위성방송 프로그램은 할리우드의 위력앞에 철저히 무너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통신하드웨어 산업을 바탕으로 소니사가 미국의 할리우드 영화사를 사들이는 저력을 과시했다. 정보고속도로는 통신시장에서 자유진입, 공정경쟁을 통해 연결경제가 갖는 세계시장 지배력을 성취하기 위해 위기에 처한 미국경제가 제시한 유일한 활로로서 국제 통신시장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미국의 국가전략에 밀바탕을 두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의 통신시장은 어떠한가.

우리나라는 이제야 통신시장에서 연결경제의 토대를 이룬 케이블TV나 위성방송, 민간 지역방송, 지역의 경제적 담지력을 고려하지 않는 이동통신 프랜차이즈 사업자들이 우후죽순식으로 쏟아져 나오는 실정이다. 또한, 기존 지배적 통신사업자나 방송사업자 그리고 전력사업자들이 나름의 규모의 경제와 업종 전문화의 효율도 갖지 못한 채 통신시장 구조조정에 그대로 휘말려들고 있다. 우리의 정보통신산업이 진정으로 국가경쟁력을 갖추려면 연구개발 투자나 통신기간시설(SOC)과 공공서비스 투자에서 님비(NIMBY)현상을 철저히 막고, 통신사업자가 규모의 경제를 보장하고 최소한 범위의 경제를 이룰 수 있도록 사업영역의 규제를 완전히 해제하는 통신정책이 요구된다.

새로운 광고전략으로서의 이벤트 산업



날로 다양해지는 소비자의 욕구와 그에 따른 광고주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필요성과 수익성 제고 측면에서,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4대 매체의 한계로 인한 광고계 성장 둔화와 극심한 경쟁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한 지구력으로 최근 한국의 광고대행사들은 영상소프트사업, 음반사업, 이벤트사업 등 신규산업 진출을 활발히 모색하고 있다.

광고대행사의 사업다각화의 한 영역으로 진출하고 있는 신규사업 중에서 이벤트 사업은 '03 대전 엑스포를 계기로 적극적으로 광고대행사들이 진출, 노하우를 축적해 가고 있는 발전 가능성이 높은 신규사업 영역이다.

물질 그자체의 가치를 소유함으로써 만족하던 시대에서 '개성화', '다양화'로 표현되는 마음의 풍요를 추구하는 시대로 접어든 지금, 광고대행사들은 그에 따른 마케팅 제반활동을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으면 안될 시점에 와 있다.

기업차원에서도 종래의 상품 그 자체만의 광고활동으로는 메시지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이벤트를 판매를 위한 최선의 광고전략으로 내세워 '생생함', '즐거움', '기업의 사회성', '차별화되지 않는 상품에 대한 선호도'를 획득하는데 열중하고 있다.

이글에서는 기업의 성장에 있어 응집된 에너지로 작용하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도구로서,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광고계 저성장 타개를 위한 지구력의 일환으로 활발히 모색되고 있는 이벤트분야에 초점을 맞춰 몇가지 사례와 향후 이벤트의 발전 전망을 다루어 보고자 한다.

소비자의 참여를 전제로 하는 현장 커뮤니케이션

영어사전에 나오는 'Event'는 갑자기 발생하는 사건이나 사고 등 소위 '나쁜일'을 의미하는데 반해, 우리가 보고 접하는 이벤트의 의미는 '예정된 좋은 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정확한 의미로는 '공익, 기업이익 등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치밀하게 사전계획되어 대상을 참여시켜 실행하는 사건 또는 행사'를 총칭하는 말이다. (한국이벤트연구회의 정의)

초기의 이벤트가 백화점같은데서 조리기구나 장난감 등의 실연을 통한 단순한 판매 촉진행위로 사용되었으나, 현대의 이벤트 사업은 정보전달이나 판촉, 기업PR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종래의 SP활동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지만 고객(소비자)의 참여를 전제로 하는 현장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점에서 기존 4대매체와는 차별성을 갖는다.

쌍방의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해주는 교감의 장이자 미디어의 인간화를 가져다 주는 이벤트는 광고와 나란히 세일즈 프로모션(SP)의 한 도구이며, 그 자체가 광고활동까지를 포용함으로써 하여, 보다 광범위한

기능과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4대매체광고가 주로 미디어쪽의 재원으로 활용되는데 비해, 이벤트는 그 지방, 기업, 관련업종에 보다 크고 광범위하며 직접적인 경제적 효과를 파생한다. 그래서 이벤트를 일컬어 지방자치체의 총아요, 지방화시대의 기수이자 기업과 소비자를 연결하는 가교라 일컫고 있다. 광고대행사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벤트를 비롯한 SP쪽이야말로 미답(未踏)의 처너지라 할 수 있어, 경영다각화와 수익성 제고를 위한 좋은 방안이 된다. 새로운 영역의 개척이 시급한 우리나라 광고업계에서 이벤트만큼 그 활성화가 시급히 요청되고 또 전망이 밝은 분야도 없을 것이다.

4대매체를 통한 광고대행 업무가 광고대행사의 고유업무라고 하면, 최근 활발히 모색되고 있는 영상, 음반, 이벤트 등의 SP업무는 광고대행사 스스로의 경영의사 결정을 토대로 추진, 실행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고도의 테크닉을 요구하는 종합예술

우리나라 SP의 역사는 1974년 제일기획 SP부서의 발족으로 출발할 수 있으나 지금과 같은 마케팅차원에서의 이벤트의 역사는 10년 남짓에 불과하며 보다 본질적인 이벤트의 시작을 88올림픽 이후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 할 수 있다.

1964년 동경올림픽 이후 정부차원의 이벤트가 활성화된 일본의 경우와 같이 성공적인 서울올림픽 이후, 이벤트산업, 이벤트문화에 대한 관심은 증가되었지만 많은 문화행사들이 기획부재로 인해 줄속으로 치루어지면서 행사기획업무의 전문화를 열망하기에 이르렀다. 올림픽을 치르고 난 후 당장 문화혁명이라도 일어나는 것 처럼 흥분하고 떠벌리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실제로 시장상황은 그렇게 급박하게 달라지진 않았다. 일본의 경우도 이벤트 프로덕션의 수가 3,000개 이상되는 산업으로 성장하기까지는 동경올림픽 이후 20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했음을 간파해서는 안된다.

생산에 심혈을 기울이던 60년대, 수출에 역점을 두던 70년대를 거쳐 진통과 다변화의 80년대를 보낸 우리는, 2000년대 태평양



시대의 주역으로 등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 과정에서 문화, 사회적 기반과 초석을 견고히 하지 않으면 안되며 이벤트산업의 연구와 발전도 주먹구구식 입안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이벤트는 치밀한 사전계획과 풍부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철저한 기획하에, 하나씩 과정에서 체크하면서 완성해가는 고도의 테크닉을 요구하는 종합예술이기 때문에 기획력과 조직력을 갖춘 광고대행사들의 이벤트 사업 진출은 이벤트산업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본다.

다양해지는 이벤트 관련전략사업

광고대행사들의 눈에 띄는 이벤트 관련 중점 전략사업으로는 크게 지역개발, 트레이드, 컨벤션, 스포츠 마케팅, 공간 프로듀스(전시업무)등이 있다.

지역개발 프로그램으로는 지역 차별화를 위한 아이덴티티 개발에서부터 지역내 위락 단지 조성, 관광 문화 단지 조성, 관광 프로그램 개발, 지역상품 판촉, 리조트 개발, 테마파크 건설, 지역별 유희지 개발, 지역 박

람회 유치 등 지방자치제 시대에 맞는 구체적인 실현이 모색되고 있으며, 트레이드에 관련한 업무로는 국내 중소기업의 국제 시장 경쟁력 제고와 마케팅 확장을 돕기 위한 조직 구성 및 국제 업무 제휴선 연결, 관련 데이터 뱅크의 구축 등을 들 수가 있다.

소비자의 살아있는 현장의 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쌍방 커뮤니케이션의 장이라 할 수 있는 컨벤션은 대내적으로 개최 도시의 정보화와 경제적 상승효과를 가져다 주고, 대외적으로는 시장개방 및 상호무역관계의 호의적 수단으로 경제마찰을 줄여줄 뿐 아니라 외국기업에게 집중적인 상담이나 밀도 높은 광고선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

일본의 경우, 1989년 10월에 오픈한 최초의 종합 컨벤션 센터인 '마꾸하리 메세'에서는 연간 200여건의 국제 심포지움 및 모터쇼 등이 실시되고 있으며, 넘치는 컨벤션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퍼시픽 요코하마', '도쿄 비즈니스 파크' 등 대규모 컨벤션 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늦은 감이 없진 않지만 최근 국내에 일고

있는 스포츠 마케팅은, 스포츠 마케팅 시장에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의 제공, 기업의 프로모션과 스포츠를 성공적으로 결합시킬 수 있는 보다 조직적인 스포츠 마케팅 전문 회사의 존재, 그리고 국제 스포츠 행사의 활발한 국내 유치와 그에 따른 지원, 각종 국내 체육단체 및 관련기관의 시설확충 및 자본투자와 새로운 형태의 스포츠 종목 개발 등 부가가치가 높은 독자상품 창출능력이 뒤따라줘야 한다. 일본의 프로축구리그인 J리그의 경우, 스포츠라는 상품을 소비자 대중에게 기막히게 어프로치한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공간 프로듀스 업무로는 기업이나 자치단체 등의 PR관, 박물관이나 기업의 쇼룸, 대형쇼펜터내 상업시설, 문화시설의 설계, 시공, 관리, 운영 등으로 대표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문화교실, 과학관, 기업별 쇼룸 등의 건립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국내의 공간 프로듀서나 관련기업이 참고할만한 일본내 기업쇼룸으로는, NEL C&C Plaza, C&C Center, 토요타 쇼룸 (AMLUX : '94 9-10월호 기사계재), 소니관, 동경전력관 (TEMCO), NTT Seaside, Talk House, 하이네킨 Art Garden 등이 있다.

독특한 스타일과 새로운 이벤트 아이템으로 광고 방향 전환

'광고를 만드는 것보다 광고시간 잡는게 더 힘들다'라는 말이 나오는 요즘, 기본 4대 매체에 대한 의존을 탈피하기 위해 Event를 활용하는 경우도 적지않다.

TV를 비롯한 광고시간의 한정으로 광고시간 잡기가 어려워진 것이 어제 오늘이 아니며, KBS 1방송의 광고시간 폐지로 인해 가득이나 어려워진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 물론, CATV방송으로 인한 새로운 방송 광고매체 확보라는 기대가 있긴 하지만 광고주의 숨통을 틔여 줄 정도는 아니다. - 이런 상황을 극복하고자 광고대행사들은 독특한 스타일과 새로운 이벤트 아이템으로 광고의 방향을 전환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신세대 남성화장품 트윈X의 난민돕기 티셔츠 판매 캠페인의 경우, 자유, 개성, 자기주장 일색인 신세대 타겟의 광고에서 과감

히 탈피, 신세대의 국경을 넘는 인류에라는 새로운 컨셉트를 설정, 소말리아 케냐접경의 난민촌에서 촬영한 CF 출시와 함께 <Help Africa>라고 쓰인 티셔츠를 판매, 수익금 전액을 아프리카 난민 구호금으로 기탁한다는 계획은 소비자 대중의 많은 관심과 호응을 불러 일으켰다.

월드스타 강수연을 기용, 화제를 모았던 OB의 3분짜리 극장용 광고는 10시 이후에만 주류광고가 허용된 TV매체의 한계성과 물량공세로 이어진 인쇄광고의 식상함을 극복하고자 기획되었으며, 또한 OB와 참여하게 맞서고 있는 카스맥주는 기본컨셉트인 Fresh와 블루 이미지를 나타내고자 희색과 파란색이 어우러진 파라솔을 제작, 독특한 SP광고를 하고 있다. 햇빛을 가리는 단순한 목적의 기존의 음료회사 파라솔에 비해 카스의 파라솔은 로고를 고급스럽게 디자인 하여, 깨끗한 이미지의 홍보수단으로 제 몫을 다하고 있다.

동서식품도 4.2m 초대형 모형캔을 적재한 <컨셉트 카>를 SP매체로 활용하고 있다. '맥스웰 캔커피'와 '카페리쉬'의 실제 패키지와 똑같이 제작되고 개폐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이 초대형 캔은 이벤트 행사로 콘서트 등을 개최할 때는 개폐장치에 의해 캔이 반으로 갈라져 총길이 8m의 무대가 된다. 캔커피는 일반적으로 야외에서 마시기 때문에 실제 캔커피를 마시는 장소, 캔커피의 소비층이 많이 모이는 대학축제, 대학로 등에서 이벤트를 펼칠 경우 광고 파급효과는 대단한 것이다.

동아오즈카도 포카리스프리트 ('94 9-10월호 기사계재)라는 '전문광고샵'을 이용해 소비자에게 자사품인 포카리스웨트를 광고하고 있다. 생활재충전이라는 포카리스웨트의 새로운 슬로건을 한정된 4대매체를 통해서 소비자가 직접 효익을 얻지 않는 한, 연관시키기엔 무리가 뒤따를 수 밖에 없다는 판단아래 이를 극복하기 위해 매체의 시간대 영향을 받지않고 독립적으로 마음껏 광고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또한 일방적으로 광고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에서 탈피, 소비자와 좀 더 가까운 거리에서 포카리스웨트의 정보와 상품컨셉트를 무리없이 전달하는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으로

포카리스프리트는 그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TV매체의 광고시간 한정에 따른 시간대 확보가 어려운 매체상황에서 좀 더 획기적이고 새로운 이벤트로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 있는 광고대행사들의 노력과 실험은 앞으로 계속될 것으로 보여진다.

광고시장개방에 대한 유력한 첨병 - 이벤트

고객(소비자)의 참여를 전제로 하는 현장 커뮤니케이션인 이벤트는 화제성, 파급효과 등 기본의 4대매체와 구별되는 많은 특징점을 가지고 있다. 정보전달이나 관측, 기업 이미지 PR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일반 광고매체와 동일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전문 광고대행사의 이벤트사업 참여는 전문화시대에 걸맞는 바람직한 현상이며 통합적 마케팅커뮤니케이션(IMC)시대에 호응하는 적절한 기업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사회의 다변화와 이에 따른 소비자들의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는 종래 건설, 설계, 디자인 회사에 의해 주도되던 업무에 까지 광고대행사의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관련노하우가 전문한 국내사정에도 불구하고 '93 대전 엑스포 박람회'를 그나마 성공리에 끝마칠 수 있었던 요인으로 종합기획능력을 갖춘 광고대행사들의 참여가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광고대행사들은 '93 대전 엑스포' 참여를 계기로 삼아 이벤트부문의 신설 또는 확대를 기했고, 나아가 UR에 의한 광고시장 개방을 대책할 수 있는 사업다각화의 유력한 첨병으로 이벤트를 지목하고 있다.

'95 한국국제요리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간담회 결과보고

'95 한국국제요리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간담회가 지난 12월 8일 한국관광공사 주최로 열렸다. 한국방문의 해 기간동안 열렸던 행사들이 단발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 발전적인 행사로 자리잡기 위한 이러한 노력들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글 / 김미순 기자



'94 한국국제요리축제에 대한 반성 및 고찰과 '95 한국국제요리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간담회가 12월 8일 2시에 한국관광공사 주최로 약 3시간동안 열렸다.

참석자는 관광공사 행사 1처장 장세화, 행사 2부장 장길수, 문화행사과장 오용수, 배재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 정강환, 한국식음료경영연구회 기획이사 김진문, 언론계에서는 호텔과 레스토랑 서진수 차장이 참석했고 전 조선포텔 조리과장 김한수, 라마다올림피아 호텔 계장 권경범, 그리고 행사를 맡았던 (주) 노보콤 대표이사 이현해 이상 9명이다.

먼저, 장세화 처장은 공사가 '94요리축제를 개최함에 있어 애로점이 많았다고 회고했고, 그중에 다음 세가지를 강조했다. 첫째, 무엇보다도 조리사협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했으나, 호텔들이 각자 기본영업에 너무 바쁘다보니 행사 참여를 위한 일부 조리사를 빼주는데 너무나 인색했다. 둘째, 요리경연대회의 순위 매김 방식이 이미 특급호텔의 조리사인 참가자들에게 경영주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게 했다. 셋째, 외국인 조리참가자를 위한 항공교통비, 숙박비 등의 지원에 많은 애로가 있었다.

이에 대해 김한수 전 조리과장은 조리사협회의 요리 축제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족했다고 보고 '95년에는 달라진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낙관했다. 또 앞으로 연례행사가 될 요리축제에 많은 유명 식품회사로부터 자사제품에 대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요리재료 스폰서십 등의 경제적인 이벤트 운영에 관한 의견을 피력했다.

학계대표로 참석한 정강환 교수는 호텔의 축제참여에 대한 복지부동은 후원단체를 국내 외식업체로 확대하여 미국 시카고의 Taste of Chicago 와 같은 적극적인 참여 인센티브를 주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첫째는 참여식당들이 방송매체에 노출되는 홍보효과가 있어야 하고 둘째, 요리축제가 각 식당의 새로운 음식을 소비자들에게 평가 받을 수 있는 시험장 역할을 하며 셋째, 축제기간중 음식을 팔아 매출액 증가는 물론 넷째, 매



출액에 의한 '최우수 식당'의 선정등 다양한 방법을 제시했다. 또한 요리축제의 주요 비중을 국제요리경연 대회에 두는 것은 한계점이 있는데, 유명한 프랑크푸르트 요리올림픽과 같은 수준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0년 이상의 시간투자를 해야하기 때문이다. 최근 관광계의 추세인 동적인 관광 즉, 축제방문객의 참여와 만족을 강조하는 Taste of Chicago 형식의 이벤트가 앞으로 더 적절한 형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사의 오용수 과장은 금번 요리축제가 서울의 관광 비수기 타개책으로 1년 중 호텔 객실 점유율이 낮은 6월을 택하여 개최되었으나 그다지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서울의 여러 국제회의 개최로 예상됐던 비수기 문제가 없었고 호텔측의 요리축제 참가 저조가 큰 원인이 되었다. 이에 앞으로는 요리축제를 서울에서만 개최할 것이 아니라 관광객 유치문제로 고전하고 있는 경주에서 개최한다면 요리축제가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진문 기획이사는 호텔의 요리축제 참여에 대한 복지부동의 이유를 호텔자체의 감량경영으로 특정인원을 행사를 위해 빼돌리기 어려운 실정이었다고 보았다. 요리축제가 호응을 얻기 위해서는 방송매체가 조리사에 대한 입지전적 프로그램을 만들어 국민들의 조리사에 대한 인식을 강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현해 노보컴 사장은 요리축제의 성공을 위해서는 뚜렷한 방향제시가 필요하며, 내년 요리축제의 주제는 우리나라 식문화를 외국에 알릴 수 있는 한국음식의 국제화를 강조하였다.

이상과 같은 제언들 외에도 내년 요리축제는 지금까지 있었던 지방의 음식축제들과 때를 같이하기 위하여 10월 초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앞으로 요리축제가 연례적인 행사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행사가 끝난뒤의 문제점과 개선점들을 체크해 보는 이러한 자리도 함께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신이 내린 예술가 게오르기 키킨

「이데올로기 종언」展

서울, 부산 전시 호평속에 광주, 대구 이어 전시
러시아의 암울했던 사회주의시대 부터 자유개방시대인 최근에 이르기까지 30년
역사의 흐름을 담은 게오르기 키킨의 작품 전시회가 서울, 부산 전시에 이어
광주, 대구에서 개최된다.

목재들의 준비 → 웅장한 건축양식 → 불행한 공산주의 체제 등장 → 종교탄압과
유배생활 → 극단적 삶의 피폐 → 한많은 섬과 특정 유배지 풍경 → 희망의 예고
→ 자유주의 도래.

작품들에 흐르는 한 시대의 줄거리를 통해 러시아의 역사와 문화를 좀 더 깊이
이해하게 될 이번 전시회는 러시아 작가 초청 개인 작품전으로는 최대규모이다.

글 / 김미순 기자



CONTRADICTION WITH A WALL BETWEEN
벽안의 모순 (50 × 70cm, 1980)

백해의 유배지에 들어서는
사하로프 박사의 모습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작품. 종교적 양심의 존재를
작은 교회에 담아두고, 벽안에 가려진
공산체제의 통제속에 걸어가는 사하로프
박사는 한 사람의 맹인에 불과하다는
극단적 현실 비판의 모순을 표현함.

‘신’이 내린 예술가란 평판을 듣고 있는 러시아 중견화가 게오르기 키킨(62)의 전시회가 약 3개월의 서울과 부산에서의 전시회를 호평 속에서 끝내고 광주와 대구에서 계속 전시회를 가질 예정이다.

러시아대사관이 주최하고 로스코르 한·러합작투자사, 비주얼라인이 주관하는 이 전시회는 광주 시립미술관에서 1월6일부터 2월7일까지, 대구문예회관에서 2월10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이데올로기의 종언’이라는 주제로 콘테화 31점, 과슈화 31점, 누드 및 인물사회화 등 유화 5점, 그리고 순수 예술 추구성의 사진 1백점 등 1백60여점이 전시된다.

게오르기 키킨은 러시아 국내 및 미국, 독일, 오스트리아, 뉴질랜드 등의 개인초대회 및 공동전시회에 수십차례 참여하여 수차례 최고상을 수상했으며 그의 작품들은 독특하고 탁월한 형태적 추구성으로 폭넓은 호평과 인정을 받아왔다.

이번 전시회에 출품된 작품들은 ‘이데올로기의 종언’이란 주제에서 보듯 공산체제 속에서의 극단적 삶의 피폐성과 자유에의 끊임없는 희구를 작가 특유의 심미안적 기법을 통해 예술성 높게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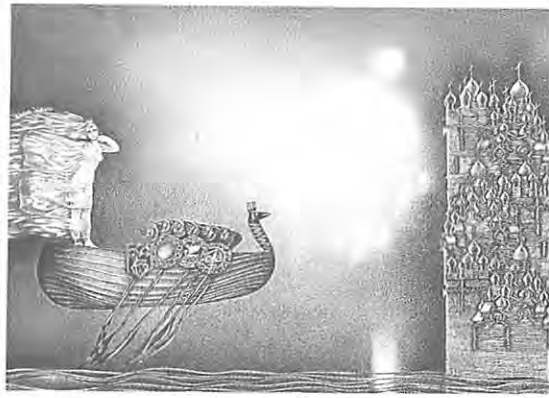
게오르기 키킨의 예술의 주체가 된 배경

키킨 작품들의 주배경은 알렉산드로 솔제니친의 대표작 ‘수용소군도’의 배경인 백해의 유배지 섬과 주변 지역들이다. 이러한 작품에 대한 배경은 작가의 할아버지에게서 시작되는데 그는 러시아 북방인들의 전통 종교 건축양식인 목재 연결 레 방식을 고수하는 건축가였다. 공산체제하에서 종교탄압으로 유배지로 보내졌다가 전통문화보존정책으로 유배지를 벗어난 그는 건축물 개·보수라는 임무속에 안전한 생활을 하게 되지만 혹독한 유배지의 생활에서 절규하는 친구들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한많은 그리움의 통한 속에서 그곳의 많은 이야기를 가족에게 남기고 세상을 떠난다.

성인으로 성장한 작가는 할아버지의 한많은 그리움을 자기 안에 내재화시키게 되고, 그 유배지를 철저히 느끼고자 구체적 계획을 구상한다.

키킨은 65년 거짓눈고를 제출, 통제된 해역의 출입 허가권을 따내 화구들을 갖추고, 카메라를 들고 중형 크기의 배를 90일간 임대하여 할아버지의 한의 역사인 북녘바다로 향했다. 현지 지역을 사진과 스케치에 담아냈고, 그곳의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할아버지의 건축물을 매만지면서 느낀 체온과 체취는 작가에게 더없는 감흥을 불러 일으켰다.

키킨은 꾸미지 않은 색의 표현과 일관된 흑백의 침묵만이 그곳의 영혼을 존경하는 길이라고 믿으며 작품



PRINCESS DREAM
공주의 환영(70 × 50cm, 1993)



LAND OF THE LOST
잃어버린 땅 (70 × 50cm, 1972)

에 임했고, 체제적 탄압아래 한 유배지역의 서러운 삶들로 표출된 한의 역사가 작가 손끝의 열정으로 옮겨졌다.

이 작업의 과정 속에서 오도된 여론에 의해 방문이 거절되고, 작품의 의도가 드러나 예술적 표현자체에 통제를 받게 되면서 고통을 겪게 되지만 결국 심미안적인 표현예술과 사진예술로 국내외 무대에서 극찬이 일고, 선전에 동요하는 체제로부터 혜택과 진로를 부여받게 된다.

게오르기 키킨은 개혁과 개방으로 원하는 지역을 자기시간에 맞추어 갈 수 있게 되고, 표현하고 싶은 것을 자연스럽게 표출할 수 있었던 그 시간들이 지금도 생애 최고의 순간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한다.

작가는 아직도 자신은 한 인간으로써 행복한 영역을 갖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체제’라는 말을 끼워넣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다만, 자유 표현이 좋아 자유라는 글자가 붙은 곳에 미력의 혼신을 다하고자 하여 자유주의 미술작가 동맹에 가입했노라며 힘주어 이야기한다.

주관측은 광주와 대구에 이어 계속 순회전시를 계획하고 있으며 8월15일에 있을 고별전에서는 솔제니친과 사하로프박사의 미망인을 초청, ‘자유주의를 위하여’라는 주제로 세미나와 특별강연을 열고 작품판매도 동시에 할 계획이다.

역사의 재현

조선조 한양입성 어가행렬

94년 11월 29일은 조선태조 이성계가 서울을 수도로 정한 후 문무백관과 함께 한양으로 입성한지 600돌이 되는 날이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서울 600년 사업의 대미로 조선조 한양입성 어가행렬, 자랑스런 600인 선정, 서울 1000년 타임캡슐 매설 등 과거·현재·미래로 나누어 의미있는 기념행사들을 펼쳤다.

글 / 김지혜 기자 사진 / 김미순 기자

서울정도 6백년 사업의 대미 '조선조 한양입성 어가행렬'의 거리행렬 중 입성깃발무



서울 600년을 맞이하여 1394년 10월 25일 (11. 26. 양력) 태조 이성계가 왕실·문무백관과 함께 개성 수창궁을 떠나 10월 28일 (11. 29. 양력 한양천도일) 한양으로 입성한 역사적 사건을 행렬로 형상화하여 재현하는 거리축제 '조선조 한양입성 어가행렬'이 열렸다.

서울 정도의 참 뜻을 되새겨 미래 서울의 뿌리를 든든히 하고 천백만 시민의 역사인식과 자긍심을 드높이고자 기획한 이 축제는 창덕궁 돈화문에서 돈화문로를 거쳐 종묘시민공원까지 1.2km에 달하는 거리행진으로 이어졌다.

세부 행사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조선조 한양입성 어가행렬'은 모두 3부로 구성되어 한양천도의 터를 닦는 제1부 앞마당, 한양천도의 길을 떠나는 제2부 거리행렬, 한양천도를 축하하는 제3부 뒤풀이로 구성되었다.

앞마당 - 창덕궁 돈화문앞

행사의 서막은 '대고타고'를 여는 음악을 시작으로 지희영 무용단의 한양천도 축하 및 새도읍에서의 태평성대 기원 터담음 무용과 태조 등 5명이 한양정도 과정과 천도행을 조상과 천지신명께 고하는 한양천도 기원제를 열었다.

경기민요 보존회에서 박연폭포 (개성), 경복궁·한강수타령 (한양) 등 경기민요를 통해 개성에서 한양으로 천도하였음을 표현하였으며, 부사장·초청인사 등

도가 / 어가행렬을 인도하고 길을 정리하는 임무를 띤 길치도





자원봉사 시민을 포함하여
총 1천여명이 참여한 이 행사는
태조 신덕왕후역 등도 일반인이 맡았다.

과 함께 햇불로 600년 화로에 집화(人)하고 대북(地)과 차이니스 공(天)을 6회 치면 행렬을 출발하는 600년 불지피기가 있었다.

거리행렬 - 돈화문~돈화문로~종묘시민공원

서울 600년 마스코트인 다율이 4남매가 서울 600년 4색 휘장기를 들고 행진하는 마스코트·휘장기를 필두로 전통복장을 한 출연자가 '조선조 한양입성 어가행렬'이 한 글자씩 써 있는 만장형태의 깃발을 전후좌우 입체적으로 글자를 만들면서 행진하는 입성깃발무, 한복을 입은 어린이들이 롤러블레이드를 타고 바구니에 든 행사리후렛을 가로변 관람시민에게 배부하는 롤러무동, 서울 4방위를 수호하는 현무(북), 청룡(서), 백호(동), 주작(남) 등 4산 상징동물 캐릭터들이 춤추며 행진하는 서울 4산 상징짐승 선두행렬을 필두로 어가행렬이 뒤따랐다.

도가·대고·전부고취·우군·어전의 장대·대연·대고·어전취타·어연·왕비공주연·후부고취·대고·중군·좌군순으로 행렬이 진행 되었으며 후미행렬로 사물놀이가 뒤따랐다.

뒤풀이 - 종묘시민공원

시립국악관현악단의 궁중의 연례와 무용에 반주하던 관악곡으로 나라의 태평과 민족의 번영을 축원하는 수제천에 이어 한국검도협회의 장수·병졸들의 검·창무시연으로 한양입성의 액을 쫓고 나라의 기상을 표현한 검·창무시연이 있었다.

한울림 예술단의 팽과리·징(天), 북·장고(地), 사람(人)의 소리를 엮는 1백명 사물놀이 께의 공연으로 마무리된 이날 행사는 자원봉사 시민을 포함하여 총 1천여명이 참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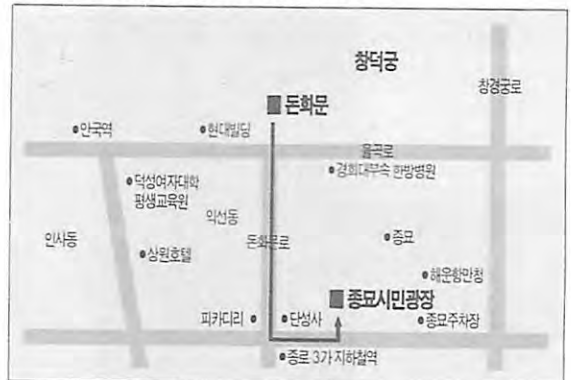
이번 행사에 특별히 신경을 쓴 부분은 어가행렬로써 시민들과 함께 하는 장으로 만들기 위하여 이태조, 신덕왕후, 왕자, 공주 등 왕실과 정3품이상 문관, 종3품 이상 무관 등 주요 역사인물의 배역을 맡을 시민을 공모하고 신청한 시민 본인의 직접 추천을 통하여 배역을 결정하였다.

그 결과 주요배역으로 태조역은 이종환씨(고가구점, 60세), 신덕왕후역은 김행자씨 (방송통신대 재학, 48세), 태종역은 박봉구씨 (상업, 39세), 정도전역은 이중윤씨 (유통업, 58세), 무학대사역은 민동환씨 (부동산업, 48세)가 맡았다.

주최 / 서울특별시·후원 / KBS 한국방송공사, 조선일보사·기획 / (주)여성기획



'조선조 한양입성 어가행렬' 거리축제 행사구간





VOLVO

볼보 '95 라인 업 쇼

'95 LINE-UP SHOW

볼보 960·850의 신차 발표회 '볼보 '95 라인 업 쇼'가 하얏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렸다. 이 행사에서는 정형화된 신차발표회에서 탈피, 기존행사와 차별화를 둔 첨단 시스템을 활용하였는데, 레이저쇼를 비롯 특수효과, 영상자료 등을 통해 볼보의 고성능 고품격의 이미지 부각을 나타내었다.

글 / 김지혜 기자 사진 / 김미순 기자

세계 최초로 볼보 운전석 사이드에 에어백을 장착하였다.



볼보 960·850 뉴모델 출시를 계기로 화제성 부여 및 안전을 기본으로 한 새로운 스타일의 격조높은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해 '볼보 '95 라인 업 쇼'가 하얏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렸다.

깜짝 쇼 위주의 등장방법과는 달리 고성능·고품격의 이미지 부각에 연출의 기본방향을 둔 이 행사의 주 구성은 식전행사, 신차등장, 연회, 관람 및 상담순으로 짜여졌다.

행사연출은 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임팩트하게 등장하되, 스토리 전개식 방법으로 나타나 '볼보 뉴 모델 라인 업' 등장시 강렬한 이미지를 제시하였다. 격조높고 중후한 분위기의 퍼포먼스와 어우러진 배경에서 차를 등장시키며, 행사장 전체를 볼보 세트형태로 구성, 품격높은 전시와 더불어 디스플레이식 공간디자인을 하였다.

세계적 수준의 전시운영기법을 활용, 제품의 고품격 이미지 부각 및 현장 SP효과를 위한 전시로 행사의 축제분위기 조성 및 심미적 효과를 창출하기도 하였다. 분수대를 활용, 전체를 볼보의 세트식으로 구성한 무대는 볼보의 신차 등장후 자연스럽게 전시관람이 가능하도록 제작하였다. 중앙은 계단식 형태로 공식행사 진행시 집중도를 부각시켰으며, 전시는 무대 전면 양 사이드로 Slope 형태의 전시대를 제작, 고객이 전시차량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 주 신차전시와 행사 진행이 차별화되도록 무대를 입체적으로 구성하였다.

음향은 행사 전체 진행을 위한 10kw의 메인음향과 각 전시대에 설치된 나레이터용 1.2 kw의 서브음향 5셋트로 구성하였으며, 조명은 주칼라에는 싱크로나이트·칼라조명, 조명트러스를 설치, 서브칼라는 칼라·일반조명 5셋트로 볼보 라인 업 쇼의 제품별 차별화된

연출효과를 내었다.

볼보 기존모델 홍보영상 및 뉴모델 소개 영상물을 상영함과 동시에 행사장 중앙과 후미, 로비에 별도로 모니터를 설치해 놓기도 하였다.

5W 그대를 운용하여 볼보의 임팩트한 효과연출을 위해 레이저를 이용하는 등 여느 신차발표회와는 다른 면모를 보인 행사다.

레이저·조명·사운드쇼 등 차별화된 연출

'볼보 라인업 쇼' 행사는 서막을 알리는 오프닝 퍼포먼스 오페라 단막극 '휘가로 결혼'으로 볼보 960 탄생 축하를 알리면서 시작되었다.

레이저·조명·사운드쇼 연출로 차가 등장하며, 레이저로 뉴모델 로고를 각인함과 동시에 특수 미러 내부에 있는 뉴모델이 헤드라이트 점등, 신차는 실루엣으로 투영되었다.

실루엣이 표출된 후 특수미러가 격납고식으로 부상하며 이때 fog, CO₂등 특수효과, 특수조명으로 웅장함과 신비스러운 등장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주 신차등장후 무대가 열리면서 동시에 분수대가 부상, 이미지 영상쇼가 전개되었다. 리어스크린 기법으로 진행되는 이 쇼는 신차의 이미지 영상물로서 볼보의 새로운 이미지를 제시하고자 기획 연출된 것이다.

대형 턴 테이블에 안착된 볼보 850 ESTATE는 서서히 회전하면서 전시되며 전시대 주변은 고급 레저 즉 스키 및 골프용품 등을 조화시켜 이야기가 있는 공간으로서의 활용을 한 볼보 라인업 쇼 발표회이다.



볼보의 성능구조에 대하여 전시한 공간

VOLVO 95 LINE-UP SHOW 프로그램

구분	항목	시간	소요분	내용	비고
사전 준비	PRESS SHOW	행사전		- 보도자료 발표회	
	입장/영접 홍보영상물상영	18:30~19:00	30	- VOLVO 홍보 영상물 상영	
공식 행사	OPENING MENT	19:00~19:02	2	- MC 등장 : 김용건, 이소라	
	인사말	19:02~19:05	3	- 대표이사	
	축사	19:05~19:09	4	- 한국주재 스웨덴대사 : 동시동역	
	경과보고	19:09~19:16	7	- 대변인 : 동시동역	
	제품탄생 소개멘트	19:16~19:18	2	- MC 멘트 : 김용건, 이소라	
LINE UP SHOW	서막	19:18~19:28	10	- 오페라 제창 : 피가로의 결혼중 "Non Pin andral"	
	INTRO-SHOW			- 탄생 예고 : 레이저, 특수조명, EFFECT SOUND, F/X	
	VOLVO 850 GLE 등장			- 탄생(1) : 레이저, 실루엣부상, 특수조명 EFFECT SOUND, F/X	• 회장 나레이터
	VOLVO 960 등장			- 탄생(2) : 탄생(1)과 동일한 방식	• 회장 나레이터
	분수대활용 FIRE SHOW			- FIRE F/X SHOW/특수조명을 활용한 계속적인 분수 SHOW	
	VOLVO 940GL 등장 VOLVO 850ESTATE 등장 VOLVO 850 TURBO등장			- 탄생(3) - 돛막 COVER UP - 탄생(4) - 돛막 COVER UP - 탄생(5)-최종 탄생, 중앙 통천 부상 →부상된 통천은 배너로 전환	• 김용건, 이소라
전시 관람	축배 제의 스탠딩 부페 전시운영	19:28~19:30 19:30~	2	- 김용건, 이소라 축배 제창(애들립) - 나레이터 운영 : 제품 Attraction - 시승 예약 / 현장 구매 상담 - 기념품 증정	
	퇴장				

휴머니즘과의 만남

SFAA '95 춘하 서울 컬렉션



'95 춘하서울컬렉션'이 SFAA 주최하에 한국종합 전시장 3층 대서양관 6실에서 개최되었다.

진로종합유통·리베라백화점 후원과 라인 C/C, 모델 센타 진행으로 열린 이 패션쇼 행사는 지춘희·루비나·한혜자·이상봉 컬렉션을 시작으로 임태영·신장경·박항치·설윤형·김철웅·이신우·장광호·정미경·배용·김동순·오은환·진태옥·박윤수 컬렉션 등으로 이어졌다.

이번 시즌의 중요한 테마는 휴머니즘이다. 인간성 상실시대에 옛날을 돌아보며 지난 시즌의 자연주의·에콜로지 등과의 만남을 시도한 것이다.

30~40년대, 60년대의 '과거재현', '과거회귀' 성향이 강하며 면소재가 많고 빛깔은 파스텔조가 주류를 이루었다.

이 가운데 '이신우 '95 봄여름컬렉션'을 살펴본다.

글래머와 유모어로 대표

이신우 컬렉션

이신우의 4번째 파리컬렉션인 '95 봄여름컬렉션의 정신은 글래머(GLAMOUR)와 유모어(HUMOUR)로 대표될 수 있다.

파스텔색상의 코튼으로 부드러운 로리타(LOLITAS)를, 사탕같은 작은 스웨터로 표현하였다. 시티웨어를 빛내기 위해 무지개빛 플라스틱 옷을 입은 만화의 주인공들과, 한여름밤의 꿈을 위해 핸드페인팅한 레이스를 입은 동화속의 공주들이 무대위에 올려졌다.

또한 이신우에게 있어서 아주 귀중한 이미지인 한국의 '해의 신'이 곁들어 졌다. 작품수는 80여점이다.

·소재 / MAIN FABRIC : POLYESTER, POLYURETHANE, POLY JERSEY, POLY TULLE COTTON / 여러종류의 면 RACE 위에 PIGMENT가 되어 표현 하였다.

SUB FABRIC : ACETATE, SILK, WOOL, LINEN

·색상 / MAIN COLOR : WHITE, IVORY, PASTEL TONE의 연한 BLUE, PINK, GREY

SUB COLOR : PINK, D·GREY, RED, BLUE

·특징 / 옷에 부분적으로 많은 양의 샤링을 잡아 여성스러움을 표현했고 HEM LINE이 MICRO MINI에서 부터 EXTRA LONG까지 다양하게 선을 보였다. 또한 끈과 고무줄을 이용한 다양하며 코믹한 실루엣이 특징이다.

젊은 디자이너들의 모임

뉴 웨이브 인 서울, '95 봄·여름 컬렉션



젊은 디자이너들의 모임인 'New wave in SEOUL'

의 '95 봄·여름 컬렉션이 장충체육관에서 열렸다.

이 행사에서는 2회로 나눠 양성숙·우영미·안혜영·최유미·이경원·유정덕·박윤정 등 7명의 디자이너가 모두 2백 80여점의 의상을 발표하였다.

이번 컬렉션에서 제안된 올 춘하복의 공통점은 투명, 불투명 이색소재의 배합을 통한 여성적인 매력의 표현이다.

비즈니스와 예술과의 만남을 기치로 내걸고 91년 조직된 '뉴 웨이브 인 서울'은 트렌드와 예술성·상품성의 조화를 통해 패션계에 새로운 물결을 일으키자는 취지로 결성된 젊은 디자이너들의 모임이다.

지난해부터 연 2회의 정기 컬렉션을 개최, 이번이 네번째이다.

- 주제 / 양성숙 'PURE'
- 우영미 'BE REAL'
- 안혜영 'ORIENTAL FEMINIETY'
- 최유미 '인간과 자연'
- 이경원 '유년의 딸'
- 유정덕 'PLAYGROUND IN MY MIND'
- 박윤정 'LIGHT MY FIRE'

- 주최 / NEW WAVE IN SEOUL
- 주관 / 모델라인
- 협찬 / (주)한국종합미디어 ELLE
- 후원 / (주)이터 패션플래닝 삼영모방



동굴탐사 · 탐조여행

생태계를 관찰하는 등 가족여행으로 적합

단순관광차원에서 벗어나 생태계를 직접 관찰하면서 자연보호도 하는 기행이 가족단위 여행객들의 관심을 끄는 것을 시작으로 동굴탐사 · 토종기행 · 간척지 탐사 · 탐조여행 등이 새로운 레저로 각광을 받고 있다.

동식물들이 살아가는 자연환경인 생태계의 모습을 관찰하고 이를 보호하려는 목적의 생태기행이 새로운 여행방식의 하나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전국 유명관광지를 주말간산식으로 훑어보는 단순관광차원에서 벗어나 한동안 문화유적지를 중심으로 관광하는 답사기행이 봄을 이뤘으나 최근들어 환경보호 운동에 발맞춰 동·식물의 생활환경을 살펴보는 기행이 가족단위 여행객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한 것이다.

문화답사모임의 하나인 두레모임 (712-5812)에서는 지난 10월부터 생태기행을 실시, 매달 다양한 여행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 이미 서해안에 위치한 경기도 화성군 호곡 앞바다 (남양만)에서 60여명의 회원들이 서울대 해양학과 교수팀의 안내로 개펄탐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이 개펄에 직접 들어가 면밀히 살펴보면 개펄의 형성이유, 개펄이 파괴돼서는 안되는 이유, 개펄에 살고 있는 동식물과 이 동식물의 생존여부가 인근 주민들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탐구하였다.

땅속의 신비와 환상의 세계가 펼쳐지는 동굴탐사 (종유석)



새로운 레저로 떠오른 동굴탐사

웅장한 석주와 기묘한 석순, 어둠의 심연과 살아 꿈틀대는 것 같은 종류석, 섭씨 15~20℃의 자연 냉장고와 같은 땅속의 신비와 환상의 세계가 펼쳐지는 '동굴탐사'가 새로운 레저를 갈망하는 현대인에게 인기가 있다.

빛, 계절, 밤낮도 없는 동굴은 타임머신을 타고 중생대로 되돌아가는 느낌을 주고, 바깥세상보다 생태계 진화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경이로운 자연의 세계를 펼쳐 보여준다.

5만 5천년의 세월동안 만들어진 1m 가량의 종유석

은 태초의 세계를 상상하기에 충분하다. 동굴의 이러한 신비가 속속 대중들에게 공개되면서 새로운 레포츠 종목으로 동굴탐사의 인기가 급증되어 관광지로도 크게 부각되고 있다.

두레모임은 충북 괴산군 연풍면 신복굴로 동굴탐사 여행을 떠나 동굴속에 서식하는 동식물의 생태조사와 함께 동굴의 지질, 파손상태 등을 점검하였다.

이 동굴탐사는 지난 70년 창립돼 그동안 1백 20여회의 동굴탐사를 해온 동국대 동굴탐험연구회가 진행을 맡았다.

이외에도 고수로, 천동굴, 노동굴 그리고 국내 유일의 수중동굴인 초당굴 (강원도 삼척군 근덕면 초당리), 지하궁전이라 불리는 관음굴 (강원도 삼척군 도계읍 대이리), 세계 최장이자 미로형 동로인 빌레오토, 국내 최장인 수직로 (수직부분 2백 16m), 유문동굴 등이 있다.

이 밖에도 아직 이름이 붙여지지 않은 동굴만도 4백 여개에 달하고 있다. 동굴탐험을 할 때는 간편한 복장에 프래시나 목장갑, 운동화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특히 근래들어 동굴탐험이 크게 늘어나면서 동굴관광 가치도 크게 부각되고 있으나 일부 관광객들의 몰지각한 행위 등으로 동굴이 적지않게 훼손되고 있는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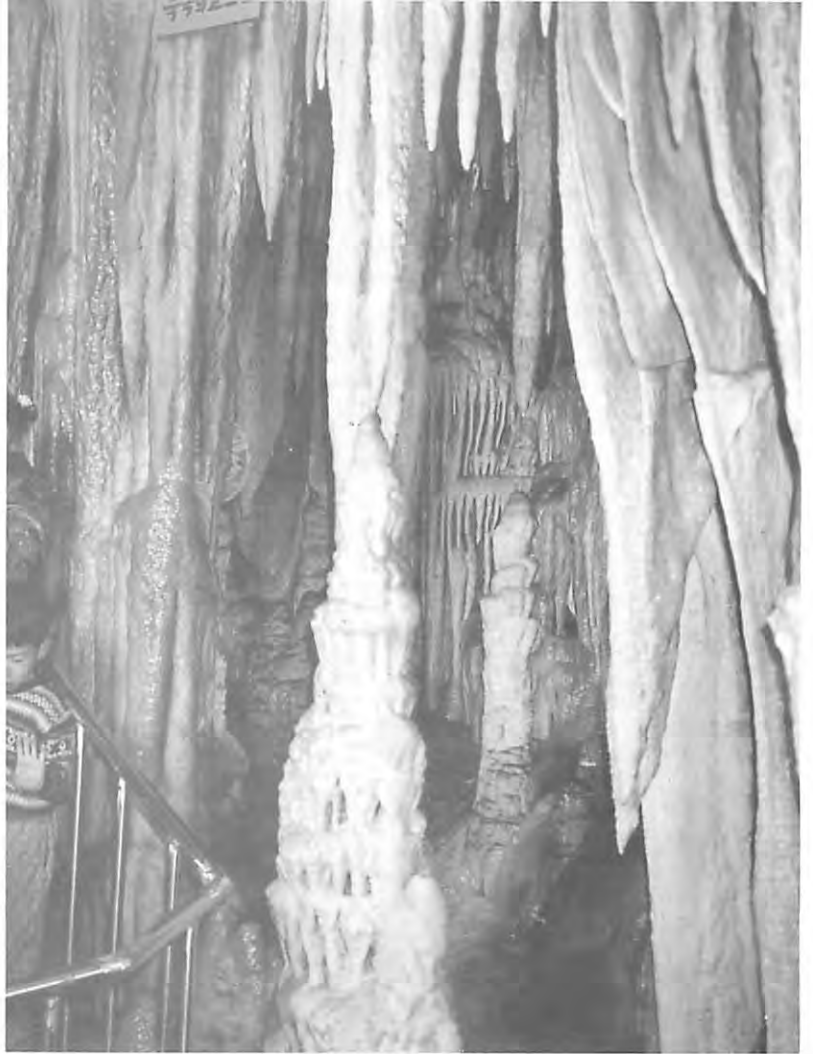
이에 역겹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생성된 동굴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운영하는 쪽이나 운영업자들이 수입에 급급하지 말고 관리보존에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하며, 관광객들 또한 동굴속의 생성물을 훼손하거나 암석에 손을 대지 말아야 한다.

철새들을 관찰하는 탐조여행

매년 겨울 찾아오는 철새들을 관찰하는 한국조류보호협회(797-4765)의 탐조여행은 생태기행의 주요 연례 행사로 일반인들의 폭넓은 사랑을 받고 있다.

이 협회는 철새도래지인 강원도 철원군 민통선 지역을 대상으로 한 탐조기행을 시작으로 1995년 1월 15일 충남 태안지역 대호방조제지구, 2월 12일 경남 창원군 동면 주남저수지, 2월 19일 전북 익산군 금강하류지역, 3월 1일 경기도 강화군 지역 등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

가족 여행이나 새로운 레저로 각광받는 동굴탐사·탐조여행·간척지 탐사 등은 계속적으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 것이다.



타임머신을 타고 중생대로 되돌아가는 느낌을 받는 동굴 (천동굴석주)

철새들을 관찰하는 탐조여행 · 참새 Tree Sparrow



매년 겨울 찾아오는 철새들을 관찰하는 탐조여행은 일반인들의 폭넓은 사랑을 받고 있다.

꿈, 음악 그리고 풍요로운 생활 서울국제음반박람회

SEOUL MUSICFAIR '94

음반분야, LP 및 CD, 비디오 음악 분야, LD 및 MUSIC VIDEO, PLAYER 분야,
AUDIO 및 VIDEO PLAYER, 노래방 기기 및 SOFTWARE, 음악관련 CD-1,
CD-ROM, 음악관련 출판사 등으로 전시구성한 서울국제음반박람회가 국내 최초
로 KOEX에서 열렸다. 글 / 김지혜 기자 사진 / 김미순 기자

국내 최초로 음반박람회가 열렸다.

12월 20일부터 24일까지 한국종합전시장 대서양관에서 열린 이번 박람회는 (주)문화방송과 (주)이엑스가 공동주최하고 문화체육부, 스포츠서울, 한국음반협회, 한국전자영상문화협회 후원으로 개최 되었다.

국제 박람회는 이미 프랑스(MIDEM), 독일(POP KOMM), 싱가포르(IMM) 등에서 성대히 개최된 바 있다. 그러나 이들의 행사는 라이선스 체결에만 국한시켰기 때문에 폭넓은 박람회의 의미를 두지 못했었다. 서울 국제음반박람회는 이러한 단점들을 보완하여 무명가수와 인기가수의 선외경쟁 및 화합의 자리를, 소비자와 친목의 자리를 마련하였다.

본 행사가 역점을 두고 있는 사항은 한국 음반사업의 발전으로서 3천2백평의 공간을 확보하여 특설무대를 꾸미는 등 화려한 음반제전을 펼쳤다.

라이브콘서트와 멀티큐브 모니터 등 6개 판으로니는 음반 박람회장

박람회장은 크게 CD, LD, CD-I롬 등을 선보이는 음반 전시관, 라이브콘서트무대, 축음기 고음반 전시관, 앨범 재킷 전시관, 외국홍보관, 신보관 등 6개로 나뉘져 있다.

신보관에는 변진섭, 조정현, 최호섭, 박정훈, 이승철, 서지원 등 인기가수와 신인 가수들이 자신의 앨범과 포스터 등 홍보물을 전시하는 부스가 각기 설치되어 있으며 이들은 이곳에서 팬사인회를 갖는 것은 물론, 라이브 콘서트무대에서 자신의 최신곡을 선보이는 시간도 마련하였다.



전시장내에 설치된 대형 멀티큐브 모니터를 통해 매일 2~4시간씩 참가업체의 뮤직 비디오 등 영상물도 선보였다.

한편 서초동 국립국악원 소극장에서는 2월 28일까지 판소리 산조 아악 민요 등 전통음악 전 분야에 걸쳐 대표적인 유성기음반 명반을 엄선, 전시하는 유성기 음반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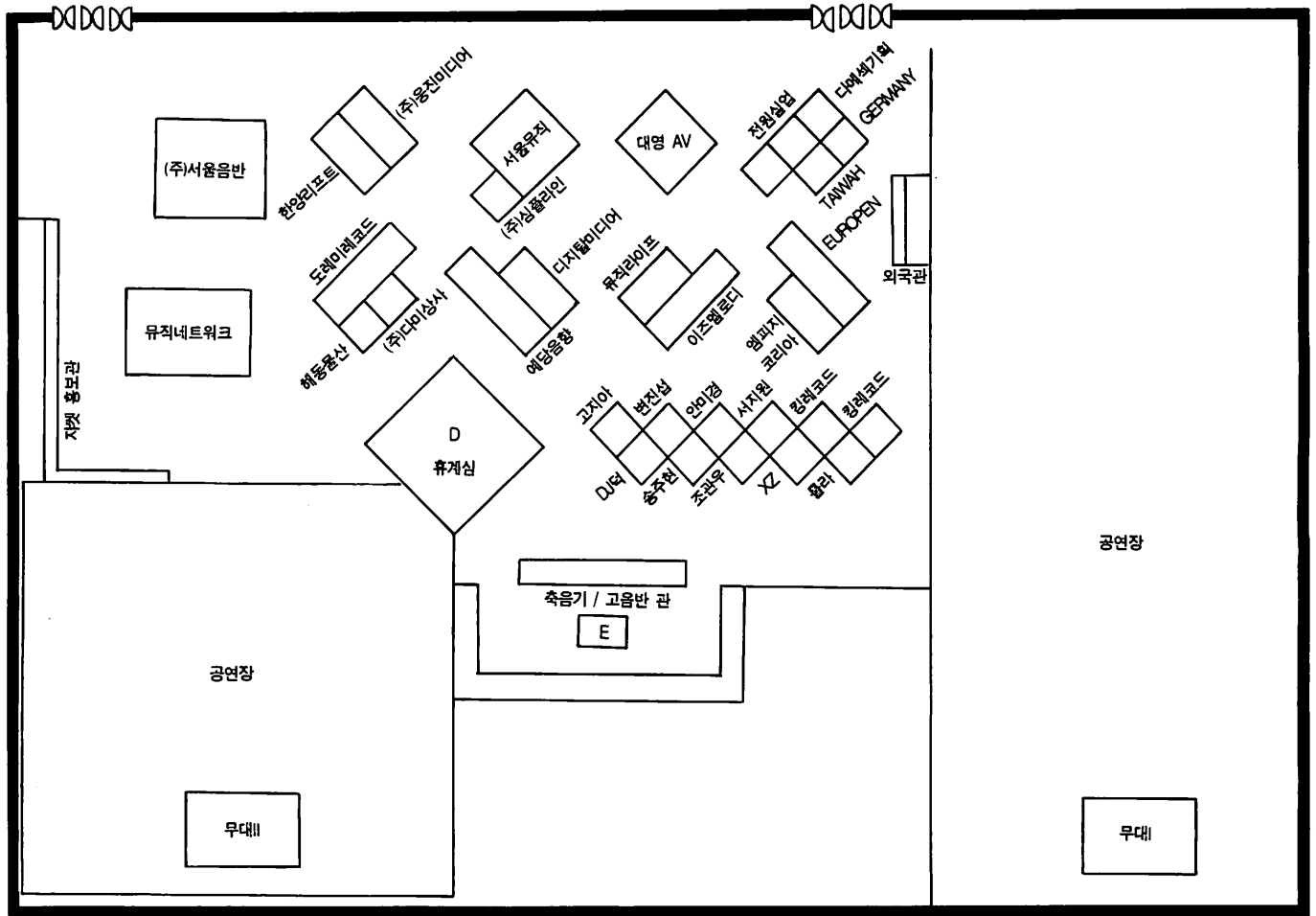
1900년초부터 1950년대에 이르는 동안 활약한 수많은 명인 명창들의 연주가 담겨 있는 음반들로 이왕직아악부의 음반, 박종기의 대금산조, 임방울의 판소리, 문영수의 서도소리, 하룡남의 회심곡 등 1백 30여장이 선보인다.

정부의 세계화 추세에 비추어 볼 때 현 시점에서 국내 업체의 국제 경쟁력 강화는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

질적인 향상과 경쟁을 통해 국내 관행에 따른 음반시장의 무질서를 바로 잡는데 중점을 둔 이번 박람회에서는 음반홍보의 고차원적 방법과 새로운 채널에의 전망도 함께 보여 주었다.

희귀축음기·희귀음반 등 음반 변천사를 알 수 있는 특별 전시 마련

지난 과거엔 음반홍보의 폭이 좁아 비효율적인 상황이 마련되기도 했으며 신생 레코드사는 짧은 연륜과 홍보에 대한 개발부족 등의 이유로 도산되는 경우도 비일비재 하였다. 현재 국내 음반기획사에서 출고되는 앨범은 1년에 대략 4천 5백여장 정도로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통로는 절대부족인 실정이다. 본 행사는 이런 열악한 흥



보조조건들을 해소하고 신생음반사들에게 참여의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제반사항들을 제공해주고 있다.

현재 국내 가요는 청소년들을 주축으로 하고 있다. 흥행위주의 음악을 만들려면 이들의 구미에만 맞출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화적 선도차원에서 볼때엔 가히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가 없다. 박람회의 근본취지는 바로 여기서부터 나온다. 문화적인 욕구를 폭넓은 계층과 서로 공유하며 균등한 홍보기회를 부여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국민대중예술의 장을 이번 박람회에서 마련 한 것이다. 또한 대상계층별 다양한 음반의 전시와 음악공연 등을 통해 음악업계의 대중화를 주도하였으며, 일반가수에게는 극히 제한되어 있던 무대가 신인,

기성가수 구분없이 제공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둘 수가 있다.

한편 이번 행사에서는 공연 이외에도 음반번천사를 알 수 있는 특별전시를 개최, 회귀축음기, 회귀음반 등을 선보여 음반의 번천사를 한 눈에 볼 수 있게 꾸몄다. 이러한 순서는 청소년들을 위해 준비한 교육의 한 일환으로서 고가의 축음기, 한국의 오래된 음반 등을 소개(걸리버 여행기(주) 제공), 오디오의 번천사를 일목요연하게 보여준 것이다.

공연 이외에도 세미나와 리셉션 등 음반 관련자들과 교류의 시간도 마련, 현재 음반업계가 안고 있는 문제점,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토론하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이와 관련, 박람회 주최측은 부수적인 아

이템들을 종합, 참가사들에게 최대한 부여하고 홍보의 기회를 배려하였다.

이에 대해 주최측의 한 관계자는 "이번 '04 서울 국제음반박람회는 음반업계가 가지고 있던 한정된 홍보채널의 애로점을 말끔히 해소 할 수 있는 자리이며 국내음반업계도 세계진출을 위한 도약의 무대가 되었다"고 말했다.

이와 덧붙여 "연간 제작되는 음반은 4천5백여장 정도 되지만 그 가운데 소비자의 귀에 전해지는 것은 한정되어 있어 안타까운 일이다"고 말하면서 "이번 행사를 통해 홍보채널을 찾지 못하던 음반기획, 제작사들과 가수들에게 밝은 청신호가 되었길 바란다"고 하였다.

본선 진출 60명 7개분야로 나누어 경연

전국 수산물 요리 솜씨 대회

수협중앙회에서는 수산물의 우수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시키고 수산물 소비촉진 운동을 확산시키기 위해 제4회 전국 수산물 요리 솜씨 대회를 열었다.

수협중앙회에서는 수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수산물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 서울 신천동 수협중앙회 17층 대강당에서 전국 수산물 요리솜씨대회를 개최하였다.

주식류·반찬류·간식류·향토요리·개발요리 등 7개분야에 걸쳐 요리솜씨를 겨루게 된 이번 대회에는 4백여명의 신청자 가운데 1차 원고심사를 거쳐 본선에 진출하게 된 요리애호가 60여명이 현장에서 직접 요리솜씨를 겨뤘다.

한국식생활개발연구회가 주관하고 수산청이 후원한 이번 요리솜씨대회는 최우수상 1명에게 1백만원, 우수상 3명에게는 각 50만원, 장려상 8명에게는 각각 20만원 상당의 상품과 부상이 주어졌다.

김형곤 사회로 진행된 제4회 전국수산물 요리솜씨대회는 개회선언과 함께 요리실시, 출품요리심사, 레크레이션, 시상, 출품요리 전시 및 관람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출품된 특색있는 요리중 가정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 수산물요리를 한가지 소개해 본다.

꽃게 툇밥

- 재료 / 꽃게 4마리, 쌀 2컵, 툇(마른 것) 20g, 완두콩 5 큰술, 꽃게 삶은 물 2컵, 흰 후추 소금 약간.
- 만드는 법 / ① 쌀은 씻어 물에 담갔다가 건진다
 ② 꽃게는 깨끗이 씻어 소금을 약간 넣고 물에 삶은 뒤 꽃게 살을 꺼내 굵게 썬다
 ③ 툇은 물에 담갔다가 씻은다음 잘게 뜯어 준비한다
 ④ 앞의 쌀과 꽃게살을 섞어 꽃게삶은 물로 밥을 앉히고 소금으로 간을 한뒤 밥이 끓을 때 완두콩을 넣어 뜸을 들인다.

협찬업체

내소날 플라스틱(주) / (주)크린랩 / 샘표식품공업(주) / (주)롯데삼강 / 대한제당(주) / (주)미원 / 용호공업사 / 광진사 / (주)백화 / (주)베스트푸드미원 / 연합상사



최우수상을 수상한 양정애씨의 '고등어 호박볶음'



사계절 즐기는

알파인 실내스키

겨울슬로프에서의 실전에 대비해 미리 날렵한 활강품을 익혀 둬으로써 설원에서 숨쉴 땀내려는 초보 스키어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 바로 실내스키장이다. 야외 스키장보다 뒤늦게 출발하였지만 직장인들에게 선호도가 높다.

글 / 김지혜 기자 사진 / 김미순 기자



한 여름에도 스키를 탈 수 있는 곳이 생겨났다.

‘알파인 실내스키장’. 현재 여러지역에서 성업중인 실내 스키장은 사시사철 스키를 즐길 수 있어 직장인이거나 초보자들에게 인기가 높다.

겨울슬로프에서의 실전에 대비해 미리 날렵한 활강품을 익혀 둬으로써 설원에서 숨쉴 땀내려는 스키어들의 발길이 잦아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서울시내 서초동과 역삼동 알파인 실내스키장을 비롯해 수원·대구·전주 등 전국의 실내스키장마다 이용객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활강방향과 반대로 역회전하는 인공슬로프를 이용해 제한된 공간에서 만만찮은 운동량과 함께 스키교습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 실내스키의 장점이다.

폴리에스터와 면의 합성소재로 개발된 슬로프바다에서 스키화를 신고 턴·활강까지 할 수 있다.

자연설보다는 속도감이 약간 처지지만 실제 스키와 똑같은 장비를 사용하며 기량에 맞도록 경사각과 회전 속도를 조절할 수 있어 스키를 배우기엔 무리가 없다.

4년여의 개발기간과 1년여의 제작기간 끝에 개발한 이곳은 영국이나 일본에서 개발된 플라스틱소재의 실내스키장과는 구조·소재 이용면에서 전혀 다르고 안전성도 뛰어나 세계 특허출원중에 있다.

안전성 뛰어나 초보자들에 인기

각 스키장마다 기량에 따라 경사각이 다른 3개 이상씩의 슬로프를 갖추고 있어 초보적인 걸음마에서부터 고난도 웨데른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활강이 가능하다.

현재 선보인 슬로프는 초급·중급·상급의 3개 면으로써 각각 길이 5-9m, 폭 5-7m로 초급은 10명, 상급과 중급은 4-8명이 함께 탈 수 있다.

초급은 경사 6도, 6m의 슬로프로 어린이도 기본동작만 익히면 곧바로 스틱까지 이용할 수 있고 중급과 상급은 컨베이어 벨트를 이용한 경사 9-12도, 7m의 움직임은 슬로프에서 정지동작을 이용하여 왕복하면서 스키를 탄다.

PC 및 캠코더, VCR, 초대형VT에 의한 교육관리 체계를 완비한 실내스키장은 현재 전국 다섯 곳 외에 창원시와 서울 대치동에도 더 늘어날 예정이다.

전국실내스키장

▲서울 서초동(592-0934) ▲서울 역삼동(554-7939) ▲수원(0331-36-2852) ▲대구(053-654-8251) ▲전주(0652-72-1818)

이용요금

대부분 월회원제로 운영되는 실내스키장 이용료는 어른 1인당 한달에 15만원,중고생 12만 5천원,어린이 5만 5천원이다.

아시아 최대 모터스포츠 축제

마카오 그랑프리 대회



아시아 모터스포츠의 현주소인 마카오 그랑프리는 신인들의 등용문답게 패기 넘친 경주로 관중을 매료시키는 모터스포츠 행사다. 글 / 김지혜 기자

아시아 최대의 모터스포츠 행사인 '94 마카오 그랑프리가 현대자동차가 참가한 가운데 지난 11월 19일에서 20일까지 열렸다.

올해로 41회째를 맞은 마카오 그랑프리에는 11월 20일 15바퀴씩 예선·결선대회가 치뤄지는 마카오 F3 (포뮬라 3)가 이 대회의 하일라이트로서 세계 정상급 레이서인 미카엘 슈마허, 데이비드 쿨 타르를 비롯 지난 6월 경주중 사망한 아일턴 세나 등을 탄생시켰다.

스타탄생의 관문역할을 하고 있는 이 대회에는 현재 '94 APRC (아시아퍼시픽오펠리) 시즌 종합 1위로 최근 아시아권서 좋은 성적을 올리고 있는 현대가 투어링카로 종목을 바꿔 출전하였다.

경주차량은 엘란트라로서 호주의 스키븐 하드먼이 드라이버로 나섰다.

마카오 투어링카 경주는 이번 시즌부터 FIA(국제자동차연맹)가 '94 APTC (아시아 태평양투어링카선수권)에서 공식인정한 6개 경주중 2라운드 경주로 공인함에 따라 경주 비중이 한층 높아졌다.

이 기아경주에는 13MW, 닛산자동차 등이 참가하였으며 1·2회전 경주로 15바퀴씩 펼쳐졌다.

14회 대회부터 함께 열리기 시작한 이래 28회를 맞은 모터사이클 그랑프리는 11월 19일 오전에 15바퀴 1·2회전이 펼쳐졌으며, 이외의 프로그램으로는 홍콩과 마카오 경주협회에 등록된 선수만이 참여할 수 있는 ACP (포르투갈 자동차 클럽경주)와 ACM (마카오 모터사이클 협회) 경주와 살롱카 (일반 자동차)로 16바퀴를 도는 마카오컵 경주 등이 있다.

41회 그랑프리 대회 일정

11월 19일 (토)	11월 20일 (일)
07:15-경주로 폐쇄	07:15- 경주로 폐쇄
07:40-08:15 모터사이클신인경주 예선1회전-10바퀴	07:45-08:05 구이아 자동차경주 연습경기
08:35-09:10 모터사이클신인경주 예선2회전-10바퀴	08:20-08:50 포뮬라 3 연습경기
09:30-10:10 28회모터사이클그랑프리 1회전-15바퀴	09:15-09:50 클럽 경주-10바퀴
10:35-11:15 슈퍼바이크 경주-15바퀴	10:15-10:45 구이아 자동차경주 카운트다운
11:35-12:00 모터사이클 신인경주 결선-8바퀴	10:45-11:30 구이아 자동차경주 1회전-15바퀴
12:20-13:00 28회모터사이클그랑프리 2회전-15바퀴	11:55-12:25 포뮬라 3 카운트다운
13:20-13:55 마카오 관광청배 경기-10바퀴	12:25-13:00 41회 포뮬라 3 그랑프리 1회전-15바퀴
14:15-14:50 자동차 신인경주-10바퀴	14:00-14:30 구이아 자동차경주 카운트다운
15:05-15:25 마카오컵 경기 카운트다운	14:30-15:15 구이아 자동차경주 2회전-15바퀴
15:25-16:15 마카오컵 경기-16바퀴	15:40-16:10 포뮬라 3 카운트다운
16:35-17:10 클럽 경주-10바퀴	16:10-16:45 41회 포뮬라 3 그랑프리 2회전-15바퀴

아카펠라와 흑인음악 진수 선보인

보이즈 투 맨

외국의 정상급 아티스트들의 대형 공연 등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보이즈 투 맨'이 내한. 잠실 체조경기장에서 두차례 공연을 가졌다. 이날 이들은 완전 라이브로 공연하여 공연장을 가득메운 7천여명의 관중을 열광 시켰다.



빌 보드차트 정상의 미국 리듬 앤 블루스 그룹 '보이즈 투 맨'이 잠실체조경기장에서 내한공연을 가졌다.

환상적인 하모니와 다양한 연출, 성의있는 무대매너로 공연장을 가득메운 7천여명의 관객들을 열광시킨 이날 공연은 기타, 베이스, 건반 3대, 드럼 및 퍼쿠션 등 백밴드의 연주에 맞춰 한시도 쉬지않고 울동을 보여준 라이브 무대였다.

또한 'Please Don't Go'로 공연이 시작된 후 한 회 공연에 의상을 모두 6차례 갈아입는 등 성실한 무대 매너를 보여주었다.

백밴드가 퇴장한 후에는 'In The Still of The Midnight', 'Yesterday', 'It's So Hard To Say Goodbye To Yesterday'로 이어진 아카펠라 무대로 보이즈 투 맨의 진수를 보여 주었다.

'I'll Make Love To You'곡이 나올때는 꽃다발 세례가 쏟아졌으며 'Motownphilly'가 울려 퍼질때에는 관객들이 무대에 올라와 '댄스파티'를 연출하기도 하였다.

또한 공연도중에는 약 30초간 노래와 동작을 꼼짝않고 정지하는 새로운 연출을 선보이기도 하였다.

이벤트 공연 전문회사인 (주)태원예능의 초청으로 기획된 이 공연은 94년초부터 접촉을 해온 끝에 개런티 20만달러에 계약을 맺기에 이르렀다.

'보이즈 투 맨'이 국내 초청을 결정한 이유는 이들 앨범이 국내에서 1백만장 가까이 팔리고 있어 미국 다음으로 큰 시장임이 입증되었기 때문이다.



기타·베이스·드럼·백밴드 연주에 맞춰 보여준라이브

대형 공연의 경우 국내 제작환경이 낙후되어 있는 것을 감안, 미국 등 본고장에서 공연제작 체계까지도 완전히 직수입해서 성사시키겠다는 움직임도 일고 있는 실정이다.

음반 직배사를 통해 내한하는 이들은 한국시장이 노래에 따라서는 일본을 능가하는 동양 최대의 시장으로 확대되었고 미국음악에 대해 가장 반감이 적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분석을 하고있다.

보이즈 투 맨은 자신들의 출세곡이었던 'End of The Road'로 2시간여나 흥분의 도가니를 이뤘던 공연을 마쳤다.



이벤트 툴 개발에 주력하는

서울 엔터프라이즈



신선한 젊음과 타고난 끼로 뭉친 신생업체 '서울 엔터프라이즈'는 기초부터 착실히 다지는 회사다. 두달반 동안 자료조사를 위해 뛰어 다니는 열성을 보더라도 내실을 기하는 회사임을 알 수 있다. 각자의 전문성을 가지고 회사를 위해 뛰는 사람들을 찾아가 본다.

타고난 '끼'를 감추지 않고 뭉친 사람들이 있다. 각자의 개성을 밑바탕으로 '젊음'이라는 신선한 의미를 안고 시작한 '서울 엔터프라이즈'가 그곳이다.

아직은 '해병아리'인 신생업체지만 개개인은 프로다. 패션쇼나 공연 등 각 부문별로 다년간의 경력을 쌓은 뒤 회사에 그 노하우를 풀고 있는 것이다.

자본금 1억 5천만원, 종목은 광고대행·행사대행·공연기획을 하고 있는 것이 서울 엔터프라이즈의 이력이다. 그들은 타성에 젖는 것을 싫어한다. 언제나 새로움을 추구하고 자체 기획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고리타분하다는 생각이 드는 회사보다 성급할지언정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곳이다. 그런 시도는 '이벤트 툴' 개발에서 찾아볼 수 있다. 충격적인 아이템도 중요하지만 국내에 전무하다시피 한 이벤트 툴 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일본이나 중국에 적을 두고 추진중인 분야는 장비싸움의 한계에서 비롯되었다. 음향, 영상등을 전문적으로 갖춘 회사들은 드물고 최첨단 기기들은 행사때마다 필요하

여 개발을 시도하기에 이른 것이다.

"대부분의 이벤트 회사들은 주최측에 끌려 다니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배제할 것입니다. 참신한 아이템과 기획만으로 승부를 걸어야지 주최측의 요구대로 많은 수정을 하다보면 행사하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서울 엔터프라이즈는 자체 기획쪽 행사로 회사를 키워나갈 방침입니다"

조그마한 슈퍼마켓 오픈행사라도 책임감 있게 완벽하게 구성하는 역할을 담당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곳이다.

전문성 갖는 이벤트 회사 필요 이벤트 툴 개발에 주력

대부분의 사람들이나 주최자들이 '이벤트'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까운 일이라 한다. 이벤트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특정된 기간에 특정된 장소에서 대상이 되는 사람들에게 개별적·직접적으로 자극을 체험시키는 미디어라 규정하는 서울 엔터프라이즈는 연륜만으로 모든 일이 되는 것이 아니듯 체계적인 절차를 밟아 올라운 사람들이 모여 하는 회사다.

우후죽순처럼 난립하는 이벤트업체지만 이 회사는 기초부터 튼튼히 쌓아 올렸다. 회사를 설립한 후 첫번째로 한 일이 수주보다 '자료수집'이니 남다른 데가 엿보였다.

매출액 또한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지만 자료가 미비한 관계로 모든 활동을 중단한 채 두달반동안 자료조사만 하러 다닌 것이다. 겉에서 보기엔 엉뚱하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실을 기한 회사를 만들려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일본의 경우 레포츠 이벤트가 성장추세인 반면 우리나라는 공연쪽 이벤트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이벤트가 활성화되어 있는 홍콩 등 동남아시아를 순회, 공부할 계획중에 있다.

1994년이 준비과정이었다면 1995년은 왜지의 해인만큼 열심히 뛰어 공연 전문회사로 칼라를 세울 방침이다.

서울 엔터프라이즈 사람들



김종수 실장 (프로모션실 기획 1팀)

‘이벤트란 무한한 세계’라고 말하는 김종수 실장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선 항상 깨어있는 정신이 필요하다고 한다.

이벤트 회사들마다 주최자 의향대로 행사를 진행할 수 뿐이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는 일침을 가하기도 하였다.

“어떠한 행사를 하더라도 ‘서울 엔터프라이즈’가 최고라는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이벤트 공부도 많이 하고 열

심히 발로 뛰어야 겠지요. 요즘 이벤트 업계는 이벤트 프로듀서 등으로 세분화하는 경향없이 토탈로 이어져 갑니다. 앞으로는 어떠한 분야든 전문적인 한 분야만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서울 엔터프라이즈는 직원들의 마음을 하나로 결집시키기 위해 용평으로 단합대회를 갈 것이며 ‘젊은이들의 파워’로 1995년도를 이끌어 갈 계획이다.



양승운 대리 (프로모션실 기획 1팀)

‘색깔’을 조금씩 입혀 나갈 계획을 갖고 있는 양승운 대리는 자체 아이템으로 기업을 흡수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빅 이벤트 즉 내셔널쪽으로 유도를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패션·자동차업계·제조 쪽으로 타켓을 맞추어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광고회사들이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듯 이벤트업계도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변화를 가져오리라 생각합니다.”

확실적으로 움직이는 루트에서 벗어나 기존의 이벤트 회사보다는 다르게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다.

1995년을 새로운 한 해로 만들기 위해서 서울 엔터프라이즈의 직원들은 ‘색깔’있는 아이템 만들기 작업에 열중하고 있다.



이동은 대리 (프로모션실 기획1팀)

‘여성’이란 틀속에 자신을 짜맞출거를이 없는 여자 이동은 대리는 패션쇼 분야에 탁월한 실력을 갖고 있다.

“직원들과 일할 때 여자임을 잊고 똑같은 일상생활을 같이 하면서 일해요. 우리 회사는 경험으로 승부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사람들이 모여 만들어 가는 회사입니다.”

89년 아르바이트로 시작한 ‘이벤트’일이 본업이 되었다는 그녀는 나름대로 정통성을 표방하며 배운 지성을 활용한다는 데에 매력을 느낀다고 한다.

패션쇼를 주로 맡다보니 코디네이터 일도 손대보고 여러가지 경험을 쌓다 이 회사와 손을 잡게 된 이동은 ‘서울 엔터프라이즈’가 하드웨어나 공연 등 매카니즘 경향을 추구하며 변화가 많은 회사가 될 것이라 한다.



방일환 대리 (프로모션실 기획 2팀)

87년부터 이벤트업계에 뛰어들어 방일환 대리는 연극과를 나온탓인지 공연쪽에 많은 관심을 쏟고 있다. 신문스크랩 정리일을 3개월정도 하고 방송쪽 일도 하다보니 공연 기획을 하겠다는 생각이 자연적으로 생성되었다고 한다.

“주먹구구식으로 기획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자료에 근거한 아이템을 만들어 길을 뚫을 것입니다. 수개월 전 부터 완벽한 행사진행에 신경을 써야함은 물론 우리 회

사가 몇십년이 흘러도 지워지지 않는 업체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외국의 특수기획하는 업체들과 교류하여 수입을 해야 하는 데 모방에만 전념하여 서로의 신뢰성을 잃어 버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서울 엔터프라이즈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투자를 감행하면서 이벤트업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회사중 하나가 될 것이라 한다.

이벤트 행사 기획하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카페에도 복합화 바람이 불고 있다. 단순히 차를 마시고 이야기하는 공간으로서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당구 등 가벼운 운동이나 이벤트 행사를 하는 장소로서 활용된다. 이에 이벤트 행사 '중고품 일일장'을 기획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 - 0'를 취재하였다. 글 / 김지혜 기자

압구정동에 위치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는 40여 평의 공간에 이벤트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구성된 이색 카페다.

실내 인테리어 작가 최정화씨는 독특한 알루미늄 의자와 탁자만으로 실내를 꾸며 언제든지 중앙에 이벤트 홀을 만들 수 있게 디자인 했다. 실제로 지난 10월 '중고품 일일장'을 기획하고 열어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진짜 고물들을 모아 벼룩시장처럼 열었어요. 전시

된 물건들은 쓰던게 대부분이지만 향·인도산 등 전반적으로 네가지 종류로 진열하여 알차게 하루 열었어요. 사람들의 반응도 좋고하여 무용·피아노·재즈연주 등 다양한 행사를 기획중에 있습니다."

단순히 음료를 파는 일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행사도 수용하여 이 카페를 찾는 이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

패션·그래픽디자이너, 사진작가, 영화·문화분야 사람들이 자주 모인다는 이곳은 '닥터 레게', '듀스' 등의 공연이 가능하였지만 여건부족으로 무산시켰다. 그대신 필름상영을 섭외중인데 16mm필름상영을 비롯 오래된 영화필름을 상영할 예정이다.

올 1월쯤에는 현대무용도 선보이면서 퍼포먼스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창립기념일 행사나 소규모협회의 모임 등, 파티가 가능한 이 공간 대여료는 시간당 10만원 정도로 평일에만 가능토록 하였다. 실리추구보다는 이벤트에 관심이 많아서 행사기획에 열중하는 기획담당 이형주씨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이벤트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를 잡아갈 원하고 있다.

"서클제·문학의 밤·일일호프 행사 등 무엇이든지 가능한 공간이고 프로, 아마추어 상관없이 모두 포용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열심히 행사를 개최하는 사람들'이면 되는 거지요. 의상학과 패션쇼 등 다양한 장르의 소화를 위해서 활성화에 힘쓸 것입니다."

'+ - 0'에는 더하기 인생, 빼기 인생과 제로가 아닌 공유의 개념이 담긴 불교적 의미가 깃들여 있다. 20대 초반에서 40대 중반까지 다양한 연령층을 형성하고 있는 이곳은 카페란 차만 마시는 곳이란 일반적인 통념을 깨뜨렸다.

고객들의 취향이 어느틈엔가 독특하고 개성이 강해져 카페의 복합화는 필수적인 아이템 중의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중고품 일일장'을 열어 성황을 이루었다.



“이벤트 회사들은 고유의 캐릭터 형성에 주력해야 합니다.”

두비컴 대표 최광일

여의도에서 만난 최광일씨는 ‘공연 연출의 대가’로 불리우는 사람이다. 현재 ‘우리는 무엇이든지 하고 어디에든지 있다’는 뜻을 담고 있는 두비컴의 대표이기도 한 그는 ‘극단 전원’에서 연극연출한 경험을 밑바탕으로 공연분야에 많은 관심을 쏟고 있다.

“4~5년전에는 연극이 현실적으로 열악했어요. 낭만적인 생각으로만 하다보니 벽에 부딪치게 되더군요. 그러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연극과 유사하게 어울리는 것이 무엇

일까 하다가 관념적으로만 생각한 ‘이벤트’ 사업에 손을 대게 되었습니다.”

‘이건대 이벤트’ 회사에서 기업과 공연분야의 일을, ‘대한기획’에서는 엑스포에 관련된 일을 하다가 1994년 9월 20일에 ‘두비컴’이라는 회사를 설립, 운영하기에 이르렀다.

회사 업무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무엇이나는 질문에 ‘공연이벤트’라고 대답하는 그는 올 2월에 NEXT와 O15B 콘서트 공연 준비중에 있다.

연극과 유사한 사업을 구상하다 이벤트를 선택

“적자나는 콘서트는 해보지 않았습니니다. 대부분의 콘서트가 장사가 안된다고 하지만 그같은 경우가 발생하는 것은 마케팅 감각이 부족한데서 허점을 드러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공연을 기획하는데 있어 비중을 두는 점은 광고주에게 공연자의 초상권을 제공하는 등 콘서트 자체를 톨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벤티스트는 플래너, PD, 디렉터 기능 등을 총체적으로 가미한 토탈리스트가 되어

야 하지만 단일한 사고방식이 문제라며 젊은세대들의 논리성 있는 신선한 감각이 필요한 시기라고 하였다.

또한 각 이벤트 회사들은 고유의 캐릭터를 형성해야 된다고 공연·관객 이벤트를 개발에 힘써야 함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외국가수 공연 이벤트를 하려면 난관에 많이 부딪치게 된다. 문화체육부의 ‘허가’를 획득한 후 연출해야 하는 어려움이 뒤따르는 것이다. 다른 나라의 경우 이같은 조항은 없다.

이에 유명한 가수들이 일본·대만·필리핀 등 아시아 투어를 할 때 한국이 빠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문화체육부와 이벤트 관계법 조항은 하루속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연극에 대한 향수로 순수연극연출 계획

“공연연출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클래식한 것을 자주 접하여야 합니다. 또한 많은 공연들을 관람해 보기도 해야 하지요 ‘이벤트’를 자본창출로만 보기에선 무리가 있고 재미있게 구성해야 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요.”

긴장과 새로운 아이템이 요구된 30일 30회 공연을 한 ‘대전 엑스포 그랜드쇼’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는 최광일씨는 ‘문제가 있던 항상 해결책이 있다’는 좌우명 아래 토탈엔터테인먼트 방향을 지향하고 있다.

연극에 대한 향수를 버리지 못해 부조리극쪽으로 순수연극연출 계획을 세우고 있기도 하다.

최광일

1961년 서울 출생 / 중앙대학교
연극영화학과 졸업 / 극단 전원 상임 연출
/ 크리오이벤트 부장 / 이견대 이벤트 대표
/ (주)대한기획 실장 / 현 두·비·컴 대표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파티를 열자

소규모의 공간이라도 개성있는 아이템으로 기획 연출을 하여 약간의 이벤트 요소를 가미시킨다면 훌륭한 파티가 된다. 작은 발표회나 축하모임, 생일파티 등에 적절한 '파티'에 대하여 알아본다. 글 / 김지혜 기자 사진 / 김미순 기자



소 규모의 공간에서도 다양한 종류의 파티를 즐길 수 있다. 바로 '테마가 있는 파티'를 여는 것이다.

조그마한 공간에 부페식으로 정성껏 음식을 차리고 특색있게 풍선이나 소품으로 파티의 분위기를 살리면 된다. 복잡하거나 거창하지 않게 적은 비용으로 열 수 있다.

파티를 계획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다. 우선 테마를 정해야 한다. 가령 참석자들은 모자를 쓰고 와야 한다는 조건을 내건다든지 아니면 분홍색 옷으로 통일시키다든지 하는 특이한 준수사항을 한가지 내세워야 한다.

그런 다음 주제상을 정해야 한다. 베스트드레서나 참석자들 중에 뛰어난 감각이나 특출한 연출로 모든 이의 주목을 받은 사람에게 주는 상을 말이다.

파티에서 흥겹게 하루를 보낸 것도 즐거운 일인데, 상까지 준다면 그날은 뜻 깊은 날로 기억될 것이다.

이런 파티는 작은 이벤트로서도 성공을 거둘 수 있다. 집안 식구들만이 모여하는 작은 발표회를 열 수도 있고 생일파티, 축하모임 등 파티 자체로서만 즐길 것이 아니라 기획연출을 하여 '행사로서의 의미도 부여하면 그것이 '이벤트'인 것이다.

자유와 신선함이 숨쉬는 테마가 있는 파티

'토요일 저녁 7시, 압구정동 카페, 분홍색 옷'

매서운 바람이 불고 있는 겨울에 '봄바람' 분위기를 풍기는 파티가 열렸다. 그 장소에 들어서자 각기 독특한 분홍색 분위기를 띤 사람들과 마주쳤다.

상의나 하의에만 분홍색으로 치장한 사람, 머리에 특이한 헤어밴드를 이용한 사람, 장갑 등 소품을 활용하여 파티 주제를 살려 참석자들이 각각의 개성으로 모양새를 갖춘 것이다.

부페식으로 차린 음식들은 현대에 맞게 콜라 등 신세대들이 즐겨 마시는 인스턴트류와 과일·과일 칵테일 등 신선함과 깔끔함을 살려 차려 놓았다.

분홍과 하얀색으로 얹혀 놓은 출입구의 아치형 풍선이 들어오는 손님을 반겼다.

각자가 편안한 분위기에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춤을 추기도 하는 이 공간은 자유와 신선함이 숨쉬는 곳이다. 대체로 2 - 3시간 파티를 즐기거나 밤 12시까지 연장근무(?) 하기도 한다.

한번쯤은 이러한 파티를 여는 것도 삶의 활력소가 된다. 적은 비용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테마가 있는 파티'를 즐겨 보도록 하자.

MAKE - UP FEVER '94
Halloween Party

메이크업 분장 콘테스트

메이크업, 분장세계의 실력있는 아티스트 발굴을 목적으로 한 '메이크업 분장 콘테스트'가 열렸다. 이 콘테스트는 아트·뷰티·웨딩·괴수현상·캐릭터·바디 페인팅 부문 등 6개분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글 / 김지혜 기자



캐릭터 분장 부문 대상 엄지현·장윤정 작품



웨딩메이크업 우수상 김원희 작품



아트 메이크업 우수상 김미경 작품



괴수분장 대상 김동완 작품

이벤트 언리미티드에서는 힐튼호텔 그랜드 볼룸에서 '메이크업 분장 콘테스트'와 '할로윈 파티'를 열었다.

개성있는 자기표현력이 요구되는 메이크업 분장세계의 실력있는 아티스트 발굴과 헤어의 한 부분으로만 다루어지고 있는 메이크업과 분장부문을 독자적인 전문분야로 발전시킨다는 취지아래 'MAKE-UP FEVER 94'를 기획하였다. 그리고 한국의 파티문화 정착과 친선, 상호교류의 자리를 만들어 즐거움을 함께 나눌 목적으로, 미국에서 매년 10월 31일 밖에 어린이들이 호박으로 만든 등(燈)을 현관앞에 장식하며 가장행렬 등을 하는 풍습이 있는데 이를 빌어와 한국의 놀이 문화에 응용, 색다른 경험의 자리를 마련하고자 하는 테마를 가진 'HOLLOWEEN PARTY'를 기획한 것이다.

93년에는 'PUMPKIN LAMP', 94년에는 'THE HOUSE OF HORROR', 95년도에는 'PYRAMID' 등 매년 테마를 가진 '할로윈 파티'를 열고 있다.

해마다 테마를 가진 '할로윈 파티' 열어

오후 3시부터 시작된 '메이크업 분장 콘테스트'는 오프닝 무대에 이어 아트·뷰티·웨딩·괴수현상의 분장·캐릭터·바디페인팅 메이크업 부문으로 나누어 예선과 본선을 거쳐 각 부문별로 시상식을 가졌다.

엘리트 항공, 이철 헤어커커 후원으로 연 이날 행사는 6개부문 25명이 참가하여 열띤 경합을 벌인 무대였다.

마녀, 요괴, 검정 고양이, 요정 등 초자연적인 존재들을 인간적으로 달래주는 날인 '할로윈 파티'는 메이크업 분장 콘테스트의 발전을 위한 축하자리로 오프닝 무대를 열었다.

항아리 안의 물건 알아 맞추는 형식의 '무엇일까요?' 할로윈 퀴즈, 특수 메이크업과 어우러진 록 콘서트, 펌킨램프 만들기, 댄스파티, 분장콘테스트 및 행운권 추첨 등 오후 5시 30분부터 저녁 9시까지 행사를 진행하였다.

정통 브로드웨이 뮤지컬 음악의 정수 뉴욕 팝스 오케스트라

브로드웨이에서 헐리우드까지의 순수 미국적인 레퍼토리는 물론 어빙 벌린, 레너드 번스타인, 조지 거쉰 등의 현대곡 해석에 두각을 나타내는 '뉴욕 팝스 오케스트라'가 첫 내한공연을 갖는다.

1995년 1월 7일과 8일 양일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리는 뉴욕 팝스 오케스트라는 독립 팝오케스트라로는 세계 최대 규모로서 신년무대를 장식하게 되었다.

(주)이엑스가 주최하고 KBS, 주한미군대사관, 한미연구소 후원인 이번 공연에서는 이 악단의 창시자로 세계적인 팝 음악의 거장이며 음악감독인 스킷치 헨더슨이 직접 지휘를 한다.

독립된 팝스 오케스트라로는 세계 최대 규모

1983년 팝의 본고장 뉴욕에서 이 악단의 창시자이며 음악감독 겸 지휘자인 스킷치

헨더슨과 90명의 단원들은 뉴욕시즌 중 카네기 홀에서 성공적인 데뷔무대를 가진 후 많은 팝뮤직 팬들을 확보, 급성장한 발전을 하게 되었다.

최근에는 청소년 정서교육에도 주력하여 오케스트라를 통한 팝의 진정한 매력이나 음악적 재능개발을 위한 내용의 개인레슨이나 공개레슨강좌를 개최하여 청소년들이 오케스트라를 직접 지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이들의 공연에는 화려하고 연주가들을 돋보이게 하는 특이한 조명을 사용해 음악만큼이나 즐거운 볼거리를 제공하여 어느 누구에게나 흥미를 갖게한다.

90년이후 음악출반에 관심을 보여 ANGEL / EMI 레이블로 테마화한 3개의 CD를 출판구주는 물론 일본에서까지 절찬리 판매되고 있다.

또한 3년전부터 연말연시 특별 연주회를 일본 전역에서 매년 개최하고 있는데 밤 11시 15분에 시작되는 이 연주회는 연주도중 신년 시보가 울리면 연주를 멈추고 관객과 함께 '올드 랭 사인'을 특별 연주한다

이순간 지나간 한 해를 보내고 희망찬 새해를 맞는 벅찬 감동이 오케스트라의 선율로 잊지 못할 추억의 음악회로 남게 되는데, 이 독특한 음악회의 인기는 해를 거듭할 수록 높아져 일본 음악 애호가들에게 새해를 맞는 새로운 문화로 정착되고 있다.

Program

1. G. M. COHAN GIVE MY REGARDS TO BROADWAY
2. A. SCHWARTZ DANCING IN THE DARK
R. RODGERS BEWITCHED, BOTHERED & BEWILDERED
(PIANO & ORCHESTRA)
C. PORTAR BEGIN THE BEGUINE
3. G. GERSHIN STRIKE UP THE BAND
G. GERSHIN LOVE WALKED IN
G. GERSHIN A FOGGY DAY
G. GERSHIN THE MAN I LOVE
G. GERSHIN OF THREE I SING
4. A.L. WEBBER CATS OERTURE
A.L. WEBBER JESUS CHRIST SUPERSTAR
5. R. RODGERS SURRY WITH THE FRING ON TOP
R. RODGERS SLAUGHTER ON 10TH AVENUE

INTERMISSION

1. L. BERNSTEIN WEST SIDE STORY
2. 신호범 너를 사랑해
CRY ME A RIVER
3. 이문세 사랑이 지나가면
MEMORY
4. 이문세, 신호범 BEAUTY & BEAST
5. V. HERBERT KISS ME AGAIN
V. HERBERT A KISS IN THE DARK
V. HERBERT NEATH THE SOUTHERN MOON
V. HERBERT CZARDAS

새해 공연 스케줄

새해에 공연되는 스케줄을 전반적으로 훑어 보도록 하자.

예술의 전당은 대한 악단 및 독주자로 보자르 트리오, 바르톡현악4중주, 미샤 마이스키, 바바라 헨드릭스, 라자 베르먼, 미코르 오이스트라흐, 미도리 등의 공연을 한다.

재외 한국인연주자로는 조수미·신영옥·홍혜경 등 3명의 소프라노를 비롯, 장한나·장영주·서주희·강동석·백건우·김영옥·조트리오 등이 내한한다. 또한 영국국립발레단과 모나코왕립발레단 초청공연도 열릴 것이다.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는 보다 대중적인 연주가 많아진 것이 특징인 데, 미국 클린턴대통령의 이복동생인 가수 로저 클린턴이 장애인돕기 콘서트를 여는가 하면, 색소폰 연주자 케니G, 재즈뮤지션 클로드 볼링, 홀리오 이글레시아스 등이 내한연주를 갖는 것이다.

이외에도 대중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리처드 클레이더먼이나 프란시스레이 앙상블 등이 내한하기도 한다.

한편 동구권 연주단의 연주도 많아 폴란드국립바르샤바필과 체코 브르는 국립교향악단의 첫 연주와 모스크바 방송교향악단, 체코필하모닉오케스트라, 헝가리국립교향악단 등의 무대가 이어진다.

그런가하면 거장 쿠르트마주르가 이끄는 게반트하우스가 국내 최초의 공연을 가져 주목되고, 드레스덴국립교향악단, 로테르담 컨서버토리움하모닉, 런던필하모닉과 소프라노 조수미씨의 협연 무대, 핀커스 주커먼과 이작 필먼의 독주회, 소프라노 캐시린베틀의 초청 공연, 이무지치 실내악단, 일본 텔리만실내악단 연주 등이 펼쳐진다.

세종문화회관의 자체기획으로는 5월 정명훈 지휘의 서울시향이 연주하고, 서태지와 아이들, 서울시립합창단 등이 출연하는 환경 뮤지컬 '대양 ocean world'과 정명훈·정경화 초청 시향연주회, 첼리스트 요요마 독주회 등이 있다.

▲ 세종문화회관 대강당

장르	공 연 명	일 정
음악	빈심포니팝오케스트라	1월 23일
	케니G내한공연	2월 3~ 5일
	드레스덴국립교향악단	3월 14~15일
	폴란드국립바르샤바필	3월 16~17일
	조수미와 런던필하모닉	3월 20~21일
	게반트하우스오케스트라	4월 26~28일
	소프라노 캐시린 베틀	
	핀커스 주커먼	6월 14일
	모스크바방송교향악단	9월 18~19일
	체코 브르노국립교향악단	9월 27~28일
	이작 필먼 독주회	12월 6일
발레	키로프발레단	3월 3~ 9일
	로열발레단	5월 16~21일
	롤랑프티발레단	12월 1~ 3일

▲ 예술의 전당 음악당

장르	공 연 명	일 정
음악	소프라노 바바라헨드릭스 독창회	4월 3일
	피츠버그심포니오케스트라 (지휘: 로린 마젤)	5월 25~27일
	광복50주년기념음악회	8월 15~30일

▲ 예술의 전당 오페라극장

장르	공 연 명	일 정
음악	광복50주년기념 한국창작오페라축제	8월 30일~10월 31일
	광복50주년 기념음악회	8월 15~30일
발레	영국국립발레단	6월 10~19일
	모나코왕립발레단	7월 8~16일

행 / 사 / 일 / 정

국내행사일정

한국현대공예전시회

내일을 위한 제언

기간 : 94. 12. 16 ~ 95. 1. 8

장소 : 문예진흥원 미술회관

문의 : 760 - 4604

국제기독교서적용품전

SICE

기간 : 95. 1. 8 ~ 11

장소 : KOEX

주최 : 도서출판 두란노 (796 - 1300)

NASA - OMEGA 전

NASA - OMEGA EXHIBITION

기간 : 95. 1. 11 ~ 22

주최 : 한서시계(주) (545 - 6992)

세미콘 코리아

SEMICON KOREA

기간 : 95. 1. 18 ~ 21

주최 : 세미 코리아 (556 - 5765)

서울국제뉴미디어쇼

NEW MEDIA SHOW

기간 : 95. 2. 14 ~ 17

주최 : 조선일보사 (551 - 1143)

서울국제종합물류정보전

LOGIS NET

기간 : 95. 2. 14 ~ 18

주최 : 교통부 (551 - 1104)

국제학생박람회

STUDENT FAIR

기간 : 95. 2. 16 ~ 19

주최 : 한국전람(주) (783 - 8261)

서울국제판촉물전

SIPREMIUM

기간 : 95. 2. 22 ~ 25

주최 : KOEX (551 - 1148)

제3회 국제유리산업전

GLASS KOREA

기간 : 95. 2. 23 ~ 26

주최 : 한국전람(주) (783 - 8261)

한국결혼상품전

WEDDEX KOREA

기간 : 95. 2. 23 ~ 26

주최 : 서울전람 (주) (529 - 0691)

서울국제미용산업기자재전

SISALON

기간 : 95. 2. 23 ~ 26

주최 : 서울전람 (주) (529 - 0691)

서울국제음향기기 및 악기전

SIAM

기간 : 95. 2. 23 ~ 26

주최 : KOEX (551 - 1148)

토요상설국악공연

기간 : 95. 2. 4 ~ 12. 16

장소 : 국립국악원

주최 : 국립국악원

눈축제

기간 : 95. 2. 5 ~ 21

장소 : 용평 · 무주 · 알프스 리조트

주최 : 용평 · 무주 · 알프스 리조트

부산연날리기대회

기간 : 95. 2. 14

장소 : 부산 해운대

주최 : 부산민속연보존회

한강다리밟기

기간 : 95. 2. 14

장소 : 서울 원효대교

주최 : 서울특별시

뉴미디어월드 '95 개최

정보화사회 실현에 앞장서 온 朝鮮日報社는 뉴미

디어의 실체와 전망을 일반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뉴미디어월드 '95'를 개최한다.

올 2월 14일부터 17일까지 한국종합전시장에서 열릴 이 전시회는 국내외 초일류 기업들이 그동안 비장해온 멀티미디어 타이틀, 정보서비스, 컴퓨터, 통신, 가전분야의 신제품들을 대거 선보일 것이다.

■ 행사명 : 뉴미디어월드 '95

- 주 최 : 조선일보사, 한국종합전시장
- 협 찬 : 현대전자
- 주 관 : 과학기술처,상공자원부, 체신부

■ 기 간

- 전시회 : 1995년 2월 14일 ~ 17일
- 세미나 : 1995년 2월 15일 ~ 17일

■ 장 소

- 전시회 : 한국종합전시장 태평양관
- 세미나 : 한국종합전시장회의실 / 인터컨티넨탈호텔그랜드볼룸

■ 출품품목

컴퓨터, 통신 및 네트워크 관련 제품 / 게임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가상현실시스템 / 첨단 영상 및 음향장비 / 멀티미디어가전, 대화형시스템 / 전자신문, 전자출판 등 언론 매체 / CATV 위성방송 등 첨단방송장비 / 온라인 정보 서비스

■ 전시참가문의

조선일보사 뉴미디어연구소 전화(724-6477) 팩스(724 - 6479)

94 현대장신구展

불가사리 모양의 브로치, 가을 열매가 조롱 조롱 달린 은 브로치 ...

한국 장신구 디자인협회(회장 吳元鏞)가 서울 워커히미술관에서 열고 있는 「94 한국현대장신구전」(1월 6일까지)에는 자연 풍경을 담은 작품들이 주류를 이룬다.

금, 은, 알루미늄, 아크릴에 다이아몬드, 오판, 자수정 등 보석, 준 보석류와 칠보로 만든 이들 장신구는 그 자리에서 직접 옷에 달거나 목에 걸어도 될 정도로 실용성을 강조한 작품들이라고 吳元鏞(오원탁·서울산업대 교수) 한국 장신구 디자인협회장은 말한다.

장신구 디자인협회는 금속 공예를 전공한 대학 교수와 공예가, 업계 전문작가들의 모임. 12번째 회원전인 이번 전시회에는 崔賢七(최현칠·홍익대), 金載瑛(김재영·숙명여대) 교수와 金世煥(김세환·아람보석 대표)씨 등 70여명 회원들이 작품을 내놓았다.

해외행사일정

하노버 국제 카페트 및 바닥재 박람회

Domotex Hannover

기간 : 95. 1. 8 ~ 11

장소 : Messegelaende

전시품목 : 카페트, 액세서리, 바닥장식재

프랑크푸르트 국제의류직물 박람회

HEIMTEXTIL

기간 : 95. 1. 11 ~ 14

장소 : Messegelaende

전시품목 : 가정용 직물, 액세서리, 가구용 직물, 벽지, 장식용직물, 직물 디자인 등

홍콩패션박람회

HKFW

기간 : 95. 1. 18 ~ 21

장소 : Convention & Exhibition Center

전시품목 : 실크의류, 니트웨어, 패션의류 및 액세서리

동경수입차 박람회

Tokyo Imported Automobile Show

기간 : 95. 1

장소 : 일본 동경

암스테르담 모터 및 자전거 박람회

Fietsvak Bicycle and Motorcycle Trade Fair

기간 : 95. 1

장소 :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스칸디나비아 식품상점설비 박람회

TEMA / Shop Fittings & Equipment for Food

Trade Fair

기간 : 95. 1

장소 : 덴마크 코펜하겐

코펜하겐 식품 및 음료 박람회

TEMA / Int'l Food Fair of Scandinavia

기간 : 95. 1

장소 : 덴마크 코펜하겐

코펜하겐 호텔 및 레스토랑용품 박람회

TEMA / Hotel & Restaurant

기간 : 95. 1

장소 : 덴마크 코펜하겐

스위스 농기계 박람회

AGRAMA / Swiss Fair of Agricultural Machinery

기간 : 95. 1

장소 : 스위스 로잔

제네바 사무용품 박람회

BUREXPO / Western Switzerland Office Trade Fair

기간 : 95. 1

장소 : 스위스 제네바

바르셀로나 포장기자재 박람회

HISP ACK / Int'l Exhibition of Packaging & Bottling

기간 : 95. 1

장소 : 스페인 바르셀로나

버밍햄 요식 박람회

HOSPITALITY WEEK

기간 : 95. 1

장소 : 영국 버밍햄

잘쯔부르크자동차위크숍 및 정비박람회

AUTO-ZUM 2 RAD

기간 : 95. 1

장소 : 오스트리아 잘쯔부르크

리스본 환경정화기기 박람회

EXPOLIMPE / Cleaning and Conservation Exhibition

기간 : 95. 1

장소 : 포르투갈 리스본

리스본 안전보호시설 박람회

SEGUREX / Int'l Exhibition for Prevention

&Safety

기간 : 95. 1

장소 : 포르투갈 리스본

디종 음악장비 기술 박람회

SITEM / Int'l Museum Equipment & Technology Fair

기간 : 95. 1

장소 : 프랑스 디종

아부다비 농수산업 박람회

AGROFISH / Agricultural and Fishing Exhibition

기간 : 95. 1

장소 : 아랍에미레이트 아부다비

자카르타 식품 및 호텔용품 박람회

FOOD & HOTEL INDONESIA

기간 : 95. 1. 11 ~ 14

장소 :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브뤼셀 상용차 박람회

Int'l Commercial Vehicles Show

기간 : 95. 1. 12 ~ 22

장소 : 벨기에 브뤼셀

마드리드 인쇄기술 박람회

ARCUADRO / Framing Prints & Printing Supplies Show

기간 : 95. 1. 13 ~ 17

장소 : 스페인 마드리드

마드리드 원예 조경 박람회

FLORISTA / Int'l Gardening & Horticultural Trade Exhibition

기간 : 95. 1. 13 ~ 17

장소 : 스페인 마드리드

파리 주방, 욕실용품 박람회

ESPACE CUISINE & BAIN / Kitchen &

Bathroom Trade Fair
 기간 : 95. 1. 13 ~ 17
 장소 : 프랑스 파리

뉴델리 공작기계 박람회
 IMTEX / Indian Machine Tool Exhibition
 기간 : 95. 1. 15 ~ 22
 장소 : 인도 뉴델리

유트레히트 교육 박람회
 NOT / Nat'l Education Exhibition
 기간 : 95. 1. 17 ~ 21
 장소 : 네덜란드 유트레히트

제네바 폐기물 재처리 박람회
 Re / Int'l Recycling Trade Fair & Congress
 기간 : 95. 1. 17 ~ 21
 장소 : 스위스 제네바

뮌헨 건축기자재 박람회
 BAU / Building Materials, Systems
 Renovation Fair
 기간 : 95. 1. 17 ~ 22
 장소 : 독일 뮌헨

에센 정원용품 및 건축유지보수
 기자재 박람회
 Haus und Garten / Exhibition Building-
 Modernizing-Arranging
 기간 : 95. 1. 18 ~ 22
 장소 : 독일 에센

태국 농어업, 축산업, 식품가공 및
 포장박람회
 AGROTECH / Int'l Agriculture Tech,
 Fishery, Dairy Exhibition
 기간 : 95. 1. 19 ~ 22
 장소 : 태국 방콕

미국사냥 및 낚시용품 박람회
 SHOT / Shooting, Hunting, Outdoor Trade
 Show

기간 : 95. 1. 19 ~ 22
 장소 : 미국 라스베이거스

칼스루에 주택 박람회
 Haus, Energie, Umwelt + alternativ MOBIL
 기간 : 95. 1. 19 ~ 22
 장소 : 독일 칼스루에

뉴델리 농업 박람회
 AGRITECH INDIA
 기간 : 95. 1. 19 ~ 24
 장소 : 인도 뉴델리

마드리드 건축·건설 기자재 박람회
 FICOP / Machinery & Equipment Fair for
 Construction
 기간 : 95. 1. 20 ~ 24
 장소 : 스페인 마드리드

바레인 방송 통신 박람회
 MECOM / Middle East Broadcast
 기간 : 95. 1. 21 ~ 24
 장소 : 바레인 마나마

리옹 포도주 및 주류 박람회
 VINORAMA / Wine & Spirits Trade
 Exhibition
 기간 : 95. 1. 21 ~ 25
 장소 : 프랑스 리옹

리옹 호텔, 레스토랑 및 식품산업 박람회
 SIRHA / Int'l Restaurant, Hotel & Food
 Trade Fair
 기간 : 95. 1. 21 ~ 25
 장소 : 프랑스 리옹

리아드 식품, 호텔 및 케이터링 박람회
 SaudiFood / Food, Hotel & Catering
 Exhibition
 기간 : 95. 1. 22 ~ 26
 장소 : 사우디아라비아 리아드

이스라엘 분석, 진단, 생체공학장비 박람회
 ANALIZA
 기간 : 95. 1. 23 ~ 26
 장소 : 이스라엘 텔아비브

이스라엘 가공기계 박람회
 ISRACHEM / Processing Equipment,
 Chemical Engineering
 기간 : 95. 1. 23 ~ 26
 장소 : 이스라엘 텔아비브

두바이 건강 및 의료용품 박람회
 Arab Health & Dentistry Exhibition
 기간 : 95. 1. 24 ~ 27
 장소 :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세인트루이스 자동차 박람회
 Greater St. Louis Int'l Auto Show
 기간 : 95. 1. 25 ~ 29
 장소 : 미국 세인트루이스

함부르크 원예 박람회
 GARTEN HAMBURG / Horticultural &
 Landscaping Products
 기간 : 95. 1. 25 ~ 29
 장소 : 독일 함부르크

함부르크 금속기기 박람회
 NORTEC / Trade Fair for Metal-Working
 기간 : 95. 1. 25 ~ 29
 장소 : 독일 함부르크

프라이브르크 산업 및 전자 박람회
 i + e / Industry & Electronics Trade
 Exhibition
 기간 : 95. 1. 26 ~ 28
 장소 : 독일 프라이브르크

브뤼셀 자전거 및 악세서리 박람회
 EXPO-VELO / Int'l Bicycles and Accessor-
 ies Exhibition

기간 : 95. 1. 28 ~ 2. 1
장소 : 벨기에 브뤼셀

미국 헬리콥터 박람회
HELIX-EXPO / Helicopter Association Industry Exposition
기간 : 95. 1. 29 ~ 30
장소 : 미국 라스베가스

미국 취미용품 박람회
HIA / Annual Hobby Ind. Association of America Show
기간 : 95. 1. 29 ~ 2. 1
장소 : 미국 아나하임

미국 콘크리트 박람회
The World of Concrete Exposition
기간 : 95. 1. 29 ~ 2. 2
장소 : 미국 아틀란타

베른 제과 및 제빵기자재 박람회
FBK / Trade Fair for Bakery & Confectionery
기간 : 95. 1. 29 ~ 2. 2
장소 : 스위스 베른

미국 열관리 및 에어컨 기자재 박람회
Int'l AHR / Air-Con., Heating, Refrigerating Exposition
기간 : 95. 1. 30 ~ 2. 2
장소 : 미국 필라델피아

후쿠오카 에너지보존기자재 박람회
ENEX / Energy Conservation Exhibition
기간 : 95. 2
장소 : 일본 후쿠오카

켈른 가정용품 및 주방용품 박람회
DOMOTECHNICA
기간 : 95. 2. 21 ~ 24
장소 : 독일 켈른

방콕 원유탐사기술 박람회
OGT-Oil & Gas Thailand / Oil & Gas Exploration Exhibition
기간 : 95. 2. 23 ~ 26
장소 : 태국 방콕

방콕 원유정제 및 가공 박람회
RLP Thailand / Refining, LNG, Petrochemical & GASExhibition
기간 : 95. 2. 23 ~ 26
장소 : 태국 방콕

방콕 연구기자재 박람회
Analab Thailand / Laboratory & Analytical Technology Exhibition
기간 : 95. 2. 23 ~ 26
장소 : 태국 방콕

방콕 계측기기 박람회
Instrument Thailand
기간 : 95. 2. 23 ~ 26
장소 : 태국 방콕

버밍햄 운송 및 저장 박람회
IHSE / Int'l Handling and Storage Exhibition
기간 : 95. 2. 28 ~ 3. 5
장소 : 영국 버밍햄

오슬로 호텔 및 레스토랑 박람회
STORHUSHOLDNING / Exhibition for Catering, Hotel & Restaurant
기간 : 95. 2. 28 ~ 3. 4
장소 : 노르웨이 오슬로

잘쯔부르크 국제 가정용 직물 박람회
TEXBO
기간 : 1995. 2. 1 ~ 2. 4
장소 : Messegelände
전시품목 : 가정직물류, 바닥재, 벽지, 카페트, 공구, 기계 및 액세서리, 도료, 니스 등

이즈미 직물 기성복 및 패션박람회
IZMIR PRET

기간 : 1995. 2. 23 ~ 26
장소 : Kulturpark
전시품목 : 여성의류, 모피, 가족의류 및 액세서리, 섬유기계

1·2월 창립일을 맞는 업체명단

상 호	창립일	전 화 번 호	주 소
롯데삼강	1958. 1. 10	634 - 4220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동 6가 21
삼영모방	1967. 1. 17	992 - 1121~6	서울시 도봉구 도봉 2동 51-3
미원식품	1956. 1. 31	665 - 3391	서울시 강서구 가양동 52-1
중앙 염색가공	1960. 1. 16	744 - 5131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101-6
동일 패브릭	1976. 1. 27	554 - 1011	서울시 강남구 대치3동 944-1
경남모직	1956. 1. 27	96-3111	경남 마산시 봉암동 666
전주제지	1965. 1. 19	755 - 2357	서울시 중구 태평로2가 150
고려합섬	1966. 1. 24	52 - 0101	경기도 의왕시 고천동 61
신풍제지	1960. 1. 6	62 - 7751	경기도 평택군 고덕면 해창리 15
동창제지	1973. 1. 23	52 - 6111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1
동해펄프	1974. 1. 16	8 - 2181	경남 울주군 온산면 당월리 1
이수화학	1969. 1. 17	757 - 6828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5가 541
성보화학	1961. 1. 6	372 - 6651	경기도 고양군 화성읍 덕은리 455
럭키	1947. 1. 5	787 - 1114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0
조광페인트	1967. 1. 16	93 - 0101	부산시 북구 삼락동 379-1
서흥캡셀	1973. 1. 30	62 - 8841	경기도 부천시 남구 송내동 317
쌍용정유	1976. 1. 6	277 - 5151	서울시 중구 저동 24-1
서통	1954. 1. 26	675 - 0621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동 3가 32
현대시멘트	1970. 1. 1	544 - 8161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41-10
한라시멘트	1978. 1. 27	2 - 2238	강원도 명주군 옥계면 산계리 280-1
태원물산	1955. 1. 11	733 - 8241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68-5
한보철강	1957. 1. 30	562 - 6101	서울시 강남구 대치2동 316
남선알미늄	1973. 1. 4	92 - 0261	대구시 동구 방촌동 1050
조선선재	1949. 1. 12	778 - 1831	서울시 중구 수하동 50
삼화왕관	1966. 1. 6	864 - 8661	경기도 안양시 평촌동 126-1

상 호	창립일	전화번호	주 소
진도	1973. 1. 8	862 - 0012	서울시 구로구 가리봉2동 371-1
선도전기	1972. 1. 22	491 - 2284	경기도 안산시 원시동 734
일진전기공업	1982. 1. 27	35 - 7451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안녕리 112-83
삼성전자	1969. 1. 13	210 - 1000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매탄동 416
한국전자부품	1973. 1. 26	856 - 8411	서울시 구로구 가리봉2동 79-2
백산전자	1977. 1. 24	855 - 5621	서울시 구로구 가리봉동 673
한주전자	1971. 1. 12	4 - 3141	충북 청주시 송정동 277-1
삼성전관	1970. 1. 20	210 - 7114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신리 575
대덕산업	1965. 1. 13	862 - 8989	경기도 안산시 목내동 475
우진전자	1981. 1. 21	676 - 9700	경기도 부천시 중구 도당동 254-5
경남기업	1957. 1. 21	784 - 0511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3
동부건설	1969. 1. 24	279 - 1671	서울시 중구 초동 21
현대건설	1950. 1. 10	746 - 1114	서울시 종로구 계동 140-2
신성통상	1968. 1. 11	752 - 9541	서울시 중구 봉래동 1가 48-3 20
조영상사	1976. 1. 15	730 - 7941	서울시 종로구 도렴동 606
동방	1965. 1. 14	755 - 5210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5가 120
한진해운	1950. 1. 1	771 - 0016	서울시 중구 소공동 51
상업은행	1929. 1. 30	771 - 0030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2가 111-1
신라투자금융	1983. 1. 14	644 - 9001	부산시 동구 범일동 830-138
럭키증권	1969. 1. 16	784 - 7111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6
신한증권	1962. 1. 31	780 - 1851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5-5
삼성화재	1952. 1. 26	771 - 0042	서울시 중구 을지로 1가 87
국제화재	1947. 1. 17	753 - 1101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5가 120
럭키화재	1959. 1. 27	771 - 0026	서울시 중구 다동 85 럭키화재빌딩
대우자동차판매(주)	1993. 1. 11	776 - 4031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5가 541

상 호	창립일	전화번호	주 소
린나이 코리아	1974. 1. 22	578 - 7000	인천시 북구 십정 1동 560-2
전방	1953. 2. 23	732 - 9145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80
대한모방	1954. 2. 12	491 - 4941	경기도 안산시 성곡동 599
신광염직	1968. 2. 12	494 - 8131	경기도 안산시 초지동 621-2
태창	1973. 2. 14	855 - 5171~4	전북 이리시 신흥동 806-12
남한제지	1957. 2. 25	730 - 5511	서울시 종로구 경운동 89-45
한국제지	1958. 2. 25	554 - 2111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58-6
동신제지공업	1979. 2. 9	555 - 7511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94-3
태영판지	1977. 2. 4	523 - 7898	인천시 북구 작전동 682-4
삼성출판사	1972. 2. 24	793 - 8331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6가 340-2
조흥화학	1959. 2. 11	677 - 3757	서울시 구로구 신림동 306
코오롱유화	1976. 2. 6	757 - 8661	서울시 중구 을지로 1가 42
국도화학	1972. 2. 22	856 - 5769	서울시 구로구 가리봉2동 345-35
유유산업	1941. 2. 28	72 - 2921	경기도 안양시 석수동 212
일성신약	1961. 2. 15	717 - 6331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1가 44-7
한국티타늄	1968. 2. 12	702 - 6100	서울시 마포구 도화2동292-20
두산유리	1956. 2. 6	510 - 4114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05-7
일신석재	1971. 2. 26	555 - 830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23
한국철강	1957. 2. 19	44 - 8111	경남 마산시 월영동 621
조일알미늄	1975. 2. 1	82 - 5252	대구시 수성구 사월동 550
동양물상	1960. 2. 1	274 - 0202	서울시 중구 쌍림동 22-1 벽산빌딩
삼표 제작소	1971. 2. 10	753 - 6691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6
한국종합기계	1953. 2. 7	729 - 3025	서울시 중구 장교동 1 현암빌딩
금성사	1959. 2. 17	787 - 3112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0
나우정밀	1981. 2. 19	856 - 0711	서울시 구로구 가리봉2동 345-50

상 호	창립일	전화번호	주 소
한국전장	1976. 2. 13	718 - 4851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18-1
광림전자	1975. 2. 4	695 - 1771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 639-12
금성부품	1966. 2. 1	460 - 4207	경북 구미시 공단동 191-1
대한전선	1955. 2. 21	778 - 3771	서울시 구로구 시흥동 113-119
흥창물산	1972. 2. 2	732 - 8611	서울시 서대문구 홍제3동 301-2
대일화학	1961. 2. 8	633 - 4991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동 6가 38
한신공영	1967. 2. 24	532 - 3001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130-17
공영토진	1956. 2. 13	719 - 2881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546
신한기공건설	1968. 2. 28	784 - 8421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3
삼나스포츠	1986. 2. 21	549 - 0161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98 동일빌딩
삼미	1959. 2. 2	583 - 6911	서울시 서초구 방배1동 935-34
호성물산	1957. 2. 6	771 - 0011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4가 17-7
현대자동차서비스	1974. 2. 26	712 - 5111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4가 113-25
서울교통	1950. 2. 13	773 - 3781	서울시 종로구 관철동 10-1
한국공항	1968. 2. 20	660 - 3114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499-1
조흥은행	1927. 2. 19	733 - 2000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1가 14
서울투자금융	1973. 2. 9	771 - 0009	서울시 중구 을지로 2가 198
새한종합금융	1977. 2. 15	754 - 1616	서울시 중구 을지로 1가 87
한국개발리스	1975. 2. 18	737 - 3575	서울시 종로구 서린동 88 서린빌딩
동남증권	1962. 2. 7	784 - 4455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
국민은행	1963. 2. 1	317 - 2114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2가 9-1
대한투자신탁	1977. 2. 14	785 - 3111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4-5
매일유업	1969. 2. 14	276 - 1551	서울시 중구 장충동 2가 162-1
천광산업	1966. 2. 28	8 - 2380~2	경기도 오산시 오산동 808-2
호남식품	1971. 2. 22	252 - 0151~4	전북 전주시 팔복동 1가 333

FOCUS

「한글이름짓기사전」

한글이름을 사람이름,가계이름으로 분류하고 그것을 또한 음절 수나 가나다순으로 분류하여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한 '한글 이름짓기사전'은 누구나 손쉽게 활용할 수 있게 만든 책이다.

한글 이름의 역사를 살펴봄으로써 한글이름짓기의 의미를 되짚어 보고 체계적이고도 과학적인 이론적 단계를 밟으면서 독창적으로 한글이름을 지을 수 있도록 한 이책의 큰 특징은 우리말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친절한 안내 역할과 함께 한글 이름에 대한 이론적 이해를 도모하고 있다.

지은이 / 김승웅, 김불곤, 신연희 · 642쪽 · 값12,000원 · 미래사



「사랑의 한페이지」

에밀 졸라의 '사랑의 한페이지'는 그의 대부분의 작품이 인간현실을 적나라하게 다룬 것에 비해 서정성 넘치는 문학세계를 펼쳐보인 이 책을 소개함으로써 저자의 세계를 다각도로 해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빠리 외곽에서 어린 딸과 함께 외롭게 살고 있는 미망인 엘렌느와 옆집에 사는 의사의 사랑 이야기'를 그린 이 소설은 엘렌느의 심리상태에 따라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빠리풍경에 도취되어, 드디어는 인간감정의 산물인 사랑이 자연의 일부로 승화됨을 느끼는 보기드문 작품이다.

지은이 / 에밀 졸라 · 401쪽 · 값 6,000원 · 도서출판 장원

「너희가 재즈를 믿느냐?」

신세대 문학의 기수 장정일의 세번째 장편소설 '너희가 재즈를 믿느냐?'는 처제를 사랑하는 형부라는, 어떤 점에서는 불가항력의 비극적인, 어떤 점에서는 속수무책으로 어리석은 한 회사원의 도시살이를 그리고 있다.

이 소설은 마치 애드립에 강한 재즈주자가 쿼텟연주를 하듯 씩어져 있다. 이를테면 살아가면서 한 여자를 사랑하는 것 말고는 별로 걸고 넘어질만한 것을 가지지 않은 한 사나이의 가 없는 인생살이라는 주제부를 정해놓고 그 주변을 네 명의 주요 등장인물들이 맴돌며 서로 함께 혹은 홀로 마음껏 번주하고 반복하고 또 비약해가며 한줄기 재즈음악처럼 인생살이를 펼쳐 보이고 있다.

지은이 / 장정일 · 350쪽 · 값 5,900원 · 미학사



「엄마는 변호사라면서 왜 그리 모자라」



판사, 국회의원, 장관 등 우리나라 사법, 입법, 행정의 삼부를 모두 거친 유일한 여성인 저자는 평소 일하는 여성으로서의 이미지만 너무 부각되어 여러가지 구설수에 올라야 했던 데다가 장관시절을 지내면서 겪은 일들을 진실되게 밝힐 필요성을 느껴, 자신의 보다 인간적인 모습을 보

이고자 처음으로 전생애를 털어놓게 된 자서전 '엄마는 변호사라면서 왜 그리 모자라'를 출간하였다.

유년의 돌 / 세계를 향해서 조금씩 / 또 몇 겹의 벽을 넘어서 / 빛과 그림자 / 더욱 성숙한 빛등으로 구성된 이 책은 사랑으로 일관되게 그리고 삶의 기본원칙만 좇아 살아온 한 여성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지은이 / 황산성 · 340쪽 · 값 5,800원 · 출판기획인 폴리오

「오펠리아, 수영을 배우다」

직장에서는 중성, 가정에서는 귀여운 여성이기를 요구하는 현대사회에서 한쪽의 성이기에 이전에 그저 나, 온전한 한 인간이기를 바라는 여성, 자신이 결혼에 맞는 여자인지, 사랑에 맞는 여자인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여성, 캔 맥주를 손에 친채 텔레비전 앞에서 코를 골고 있는, 한때는 애인이었던 남편을 나의 자유와 맞바꾸어도 좋을 까 한번쯤 진지하게 생각해 보았을 여성을 위한 책 '오펠리아, 수영을 배우다'를 출간하였다

이 책은 오펠리아와 같이 자신의 세계에 대한 적극성과 대담성, 그러면서도 인간에 대한 환한 애정을 함께 길러갈 수 있다.

지은이 / 수잔나 쿠벨카 · 윤키이 / 안영란 · 408쪽 · 값 6,000원 · 태일 출판사



「모스」

선과 악의 대비개념을 뚜렷이 부각시키는 한편 인간의 내면에 숨겨진 폭력과 섹스에 의 욕주, 잠재된 공포에의 갈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모스'는 특이한 소재를 보편적이고 대중적인 주제와 관심으로 이끌어낸 국제화된 장편소설이다.

모스 (MOSS)란 악마주의를 신봉하는 거대한 비밀결사조직의 명칭인 동시에 그 조직을 총괄하고 있는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의 명칭이다. 읽은 이의 시선을 초장에 묶는 능수능란함, 스피디한 전개, 치밀한 복선과 놀라움 반전의 탄탄한 구성, 인간 제물의 잔혹성과 초능력의 현장성 등의 선명한 이미지가 돋보이는 소설이다.

지은이 / 최현규 · 각권 345쪽 · 값 5,800원 · 문화산책

FRANKENSTEIN

프랑켄슈타인

메리 셸리의 고딕 환타지 소설 '프랑켄슈타인'이 <환생> <헛소동> 등으로 유명한 감독 케네스 브래너에 의해 영화화 되었다.

"이 이야기는 원작자 메리 셸리가 처음 구상할 때부터 그녀를 사로잡았고 여전히 상상속에서도 사로잡는 마력이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공포이야기이지만 감동적이면서도 동시에 서사적이고 애절한 사랑이야기입니다."

프랑켄슈타인의 주제는 '사랑'이다. 괴물과 창조자간의 버림받은 비극적 사랑뿐 아니라 빅터와 엘리자벳의 달콤한 사랑이 촛점이다.

1800년대의 고전을 어떻게 현실속으로 재현하는가에 관심이 쏠리기도 한 이 영화는, 낡았지만 섬세한 실험도구들, 죽은 시체를 켜어서 한몸으로 만들고 그 덩어리들을 수조에 넣어 신인간으로 탄생시키는 가공의 현장 등이 미술담당 팀 하비에 의하여 원시적인 실험실과 페스트가 만연했던 도시 그리고 제네바의 귀족장원이 그림같은 숨씨로 재현되었다.

프랑켄슈타인의 흉칙한 모습을 상상하고 있는 관객은 이 영화를 보면 굉장한 미남의 프랑켄슈타인을 만나게 된다.

로버트 드 니로가 열연하는 괴물은 우수한 지적능력을 겸비했으며 끝내 빅터 프랑켄슈타인 박사의 사랑하는 여인 엘리자벳까지 사랑하고 만다. 비록 온몸에 드러나 있는 흉터는 그로테스크한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는 사랑과 우정을 그리워하는 인간의 내면을 가지고 있다.

프랑켄슈타인의 비극적 연인으로는 '하위즈 엔드', '전망좋은 방'의 헬레나 본햄 카터가 등장하며, 그의 톱헨스, 로버트 하디, 트레빈 맥도웰 등이 출연한다.



줄거리

1794년. 혹한의 북극바다가 배주위로 얼어붙자 북극 정상을 향해 돌진하던 윌트 선장은 얼음구덩이에서 반미치광이 빅터 프랑켄슈타인을 구해내면서 이 이야기는 시작된다.

빅터는 대학이 있는 잉골슈타트에서 공부를 하면서 인간창조의 가능성에 빠져든다. 그러다 금기야 시체를 몰래 훔쳐다 생명을 불려 일으키는 실험을 하게 된다.

어느 천둥번개치는 밤, 빅터의 연구는 결실을 맺게 되지만 생각보다 끔찍한 창조물의 출현에 아연실색하게 된다. 빅터는 그를 없애려 하나 실패하고 연인 엘리자벳과의 결혼을 준비한다.

극도의 고독과 버림받은 절망감, 창조자에 대한 원초적 분노에 사로잡힌 괴물은 프랑켄슈타인 박사를 찾아 떠난다.





PIANO 1집

오렌지 향기 속으로

남자 두 명, 여자 한 명으로 구성된 혼성 보컬그룹 PIANO. 그룹 이름이 주는 느낌처럼 맑고 깨끗한 음악을 추구하는 이들은 컴퓨터 음악과 어쿠스틱 사운드를 혼합한 형태의 음악을 하면서 자칫 요란하고 복잡하게 전개될 수 있는 음들을 심플하게 진행시키고 있다. 흔하게 널려있는 음이 아닌 새롭고 신선한 느낌이 이들 음악을 특징지우며 결코 가볍다거나 자극적이지 않으며 생기발랄한 젊음이 넘치는 앨범이다. 그룹 멤버 전원이 보컬에 참여하고 자체적으로 작사, 작곡, 연주를 소화해내는 PIANO는 특히나 세명이 만들어내는 클래식컬하면서도 고운 화음으로 이들의 음악 색깔에 훨씬 부드러운 맛을 더하고 있다.



고독과 영혼을 노래한 영원한 사랑의 가객 **김현식**

그의 4주기를 맞아 출반되는 뮤직 드라마 앨범 '내사랑 내곁에' 1, 2부

90년 11월 1일, 서른 둘이라는 아까운 젊음으로 고독한 음악 인생이 마감된지 만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를 기억하고 아끼는 수많은 가슴속에는 그의 생전 불꽃같은 노래와 모습들이 생생히 살아 있다. 이번 김현식 뮤직 드라마 앨범 작업은 다큐멘터리 성격으로 김현식의 짧은 삶과 그 속에 담긴 광기, 그로 인해 그의 노래에 전달되어졌던 알 수 없는 그만의 것들(사랑, 고독, 방황, 좌절, 찾고자 했던 희망, 음악의 의미...), 그의 천재성, 지극히 순수하던 그의 인간미들을 들추어보고 느껴볼 수 있게 한다.



Multi - Rock GROUP

TARANTULA 제 1 집

'타란툴라'란 이태리 타란토 지방에 서식하는 독거미로 이 거미에 물리면 그 독으로 인해 미쳐서 춤을 추게 된다는 전설을 갖고 있다.

그룹 '타란툴라'는 이러한 의미에 걸맞게 대중적이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을 수 없다고 인식되어져 있는 Rock음악을 가장 대중적이고 친근한 음악으로 만들겠다는 의지와 결국은 음악성 있는 음악이 사랑을 받는다는 확신하에 시대에 쫓기는 기존 음악과는 달리 시대를 이끌어가는 음악을 하겠다는 주장을 가진 Multi - Rock 그룹이다.



Tomi Kita 1집

듣기좋은 그 한마디

동양인으로서 처음으로 미국 락 음악계에 진출, 아메리칸 문화속에서 Asian / American 으로서는 드물게 꿈을 펼치고 있는 순수 한국인 TOMI KITA. 전 세계적인 앨범 발매와 함께 20년만에 처음 찾은 고국에서의 첫 우리말 앨범.

단순한 락음악과 컴퓨터 음악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운드의 Industrial Music을 기본으로 하여 이 앨범은 어둡고도 신비로운 느낌, 락 사운드의 강렬함 속에서 느껴지는 추진력과 조금은 무거운듯한 철학이 담긴, 그러나 시적인 운율과 음감의 Romantic mood를 동시에 전한다.



김현철 두번째 영화음악 네온속으로 노을지다 / Original Sound Track

'그대안의 블루' 이후, 김현철의 두번째 영화음악. '네온속으로 노을지다' 채시라, 문성근 주연의 자기 자신을 잃지 않으려는 진정한 여성자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영화, 파격적이고 모던한 페미니즘. 이현승 감독의 두번째 작품. 이현승 감독의 영화 이미지와 색깔을 같이해, 감각적이고 영상적인 이미지화 작업으로 완성시킨 이번 영화음악 앨범은 섹스폰, 트럼펫의 서정성과 우수, 피아노의 정갈함으로 깔끔하게 처리되어 김현철 특유의 색채가 돋보인다.

original soundtrack
kim hyun chul



music by kim hyun chul
a film by lee hyun sung

네온속으로 노을지다

박정자의 노래하는 연극 11월의 왈츠



실 험극장에서는 '명배우 시리즈' 중 손숙의 '설리 발렌타인'에 이어 두번째로 박정자의 모노드라마 '11월의 왈츠'를 선보였다.

연기가 직업인 50대의 이혼녀가 20살 연하의 남자와 운명적으로 만나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자신만의 감정들이 되살아나면서 남자에게 물입해간다는 기동 줄거리로 이 연극은 시작된다.

불분명한 이유로 멀어져가는 남자를 붙잡지 못하고 방황하면서 자신을 추스리고 결국 자신이 서 있어야 할 곳은 무대 밖에 없음을 깨닫고 연기에 몰두하게 되는 과정을 독백으로, 때로는 노래로 작품을 이끌어간다.

일반적인 일인극의 개념을 깨고 마임리스트와 기타연주자를 출연시켜 극의 변화를 꾀한 것과 음악과 영상 등 다양한 장르를 동원함으로써 볼거리를 제공한 점도 이 극의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 극은 여자에게 있어 나이가 든다는 것은 무엇일까에 대해 더이상 아무런 출구가 없다고 생각하는 나이는 사람들의 초조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극적 갈등과 대립이 여과되어 가만가만 들려주는 이야기 방식으로서의 전형, 그 고요함 속에 숨어있는 폭발적 압축력을 여주인공은 연기한다. 50대에 홀로서기를 택해야 하는 한 중년여성의 애잔한 사랑을 이 극은 담고 있다.

기독교 예술대학 출신의 클래식 기타연주자 박의식씨의 연주에 맞춰 박정자는 '립스틱 질게 바르코', '시노메모로', '4월이 가면', '허무한 그날', '페드라, 사랑의 테마' 등을 부르며 빼어난 가창력을 유감없이 발휘한다. 이 작품은 현실과 비현실을 넘나드는 연극적 이중구조의 틀로, 한 오십대의 여배우가 내면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끊임없는 욕망, 즉 사랑으로 표현되는 아름다운 독백, 노래, 공간성, 시각성 등을 동원해 아름답게 표현하는 연극이다.

제작 / 김동훈 · 작 / 이충걸 · 연출 / 장두이 · 음악 / 박의식 · 무대미술 / 이태섭 · 출연 / 박정자 · 공연시간 / 화 7시, 수목금 3시·7시, 토 3시·6시, 일 3시 · 장소 / 실험극장 · 공연문의 / 515-7661~2

뮤지컬 코메디

「우리집 식구는 아무도 못말려」



‘환 퍼포먼스 뮤지컬 컴퍼니'는 95년 2월7일부터 19일까지 예술의 전당 오페라극장에서 창단 기념작품 '우리집 식구는 아무도 못말려'를 공연한다.

1936년 풀리처상 수상, 38년 아카데미 작품상 수상자인 <You can't take it with you>를 번역, 78년 서울에서 <우리집 식구는 아무도 못말려>라는 이름으로 공연된 바 있는 이 작품을 뮤지컬로 각색, 95년 신춘 벽두를 장식하게 된 것이다.

음악계의 버팀목인 김수철이 음악을 맡아 뮤지컬 데뷔라는 이름아래 각 캐스트마다 특성을 살려 주옥같은 뮤지컬 노래를 선보일 예정이다.

캐스트로는 60년대 대형스타로 온무대를 휩쓸다시피 했던 김성옥씨가 주역으로 무대에 서게 되고, 주로 텔레비전을 중심으로 활동해 온 청춘스타 최수종이 노래와 연기 실력을 겸비한 만능 엔터테이너 엄정화와 같이 호흡을 맞추게 된다.

총 제작비 9억원, 일본 극단 사계 연출부 정단원이며 그간 일본 뮤지컬 음향담당 책임자

였던 '사네시 에이이치'와 세계적인 음향메이커인 독일제 SENNH EISER WIRELESS MIKE를 사용하여 국내 뮤지컬 무대의 결함으로 지적되었던 음향문제를 해결 하였다.

줄거리

평소에 저마다 자유분방한 모습으로 하고 싶은 일에 매달려 있는 엘리스네 가족들은 유일하게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둘째딸 엘리스가 사장아들 토니와 열애중이라고 고백, 이 가정에 작은 파문이 일기 시작한다.

하지만 일상적인 생활레드에서 벗어난 우스꽝스러운 모습에 토니의 부모들은 아연실색하게 되고 이 후유증으로 토니와 엘리스는 결별을 하기에 이른다.

이 뮤지컬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일은 경제적인 부의 축적이나 사회적 지위를 얻는 것이 최종 목표가 아니라는 것이다.

각색 / 송승환 · 연출 / 강영걸 · 음악 / 김수철 · 캐스트 / 김성옥, 최수종, 엄정화, 권인하, 권해효 외 다수 · 공연일자 / 평일 오후 4시, 8시, 토요일 오후 3시, 7시 · 문의전화 / 3141-3301~4

강한차 - 씨에로 TV-CM (투우 II편)

국내광고계에선 처녀지와 다름없는 스페인에서 투우와 씨에로가 이색적인 한판 승부를 벌였다. 촬영중간에 스텐트 투우사가 투우에 반히고 씨에로가 4번이나 소뿔에 받히는 등 촬영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전 스텝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스페인 현지 스텝들조차 반신반의했던 촬영이 성공리에 끝났다.

정열적인 스페인 여인으로 분장한 핀란드 출신 패션모델 Marita가 하얀색 씨에로를 몰고 풍경 좋은 스페인 거리를 질주하던 중, 들판에 풀어놓은 투우무리를 발견한다. 빨간 스카프를 풀어 투우를 유혹하며 벌이는 투우와의 경주가 장관을 이룬다.

강력한 주행성능과 동판능력, 회전력으로 투우를 따돌린 후, 씨에로의 승리를 축하하듯 창밖으로 내던져진 빨간 스카프는 지친 투우의 머리위에 떨어진다. 마지막 비쳐지는 Marita의 매혹적인 미소는 강한차 - 씨에로의 자신감을 나타내는 듯 하다.

국내광고계에선 처녀지와 다름없는 정열과 투우의 나라 스페인에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대우자동차 씨에로의 광고는 10일간에 걸친 현지 헌팅팀의 노력의 결과였다.

Autoban에서 포르쉐와 경주를 하는 엘란트라, Top-gun의 한 장면처럼 전투기와 질주하는 에스페로, 아리조나계곡에서 대형 트레일러를 견인하는 세피아. 이들 모두 해외 촬영으로 강인한 이미지를 구축한 준중형차들이다.

성능경쟁의 준중형차 시장에서 성능우위를 나타낼 수 있는 표현상·기법상·범규상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소재의 발굴 노력 - 그것은 씨에로와 투우의 한판 승부였다.

투우와 씨에로가 함께 질주하는 장면은 Los Yébenes 에서 50km정도 떨어진 Osillos투우목장에서 전직 투우사 출신인 목장주의 세심한 배려로 차질없이 진행되었다.

하지만, 문제는 투우의 들판 질주 장면을 촬영하는 오후에 생겼다. 투우의 힘이 워낙 좋아 주변의 민가나 사람들을 고려할때 상당히 위험한 시도여서 진정제 성분의 약을 주사했지만 투우의 힘을 약화시키기엔 역부족이었다.

다음날 전날의 실패를 경험삼아, 순한 소를 골라 바꾸기를 서너차례, 결국 촬영에는 성공했다.

94년 5월 출시이후 월 평균 판매 이상을 판매하며 성공적인 Launching을 마친 씨에로의 판매 및 위상강화를 위한 Communication전략과 대우자동차 최초로 서유럽 국가에 수출(94년 10월이후) 되는 시점에 맞추어 지역 Target의 정서에 부합되는 수출광고로 모두 성공했다는 평이다.



멋스러운 남유럽풍의 고성들로 가득한 Toledo 거리를 누비는 씨에로의 주행장면을 촬영했는데 하얀색의 씨에로와 유럽풍 배경이 이루어내는 환상적인 조화는 촬영스텝은 물론 거리에 구경나온 Toledo 시민들의 경탄을 자아냈다.



정기구독신청안내

격월간 EVENT NEWS 는 국내외 각종 이벤트 프로그램정보와 최근 이벤트
향계의 소식을 알려드리는 국내 유일의 이벤트 정보지 입니다.

EVENT NEWS 는 한정판으로 판매하오니 정기구독 신청을 하시면 매달
책방으로 가시는 불편함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기구독 회원들에게는 본사 행사 참여의 혜택을 드리며, 이벤트 광고업체에게는
취재 우선권을 드려 기업홍보와 이미지 제고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정기구독료는 연간 30,000원입니다. 아래은행으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문의는 본사 잡지 사업부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EL:540-4602/3 FAX:542-7500

구좌번호 (예금주 : 박영미)

국민은행 : 097-21-0318-640	한 일 은 행 : 147-158742-02-001
제일은행 : 200-20-207222	중소기업은행 : 063-013524-03-019
신한은행 : 325-12-186750	서울신탁은행 : 18107-2405603
농 협 : 167-02-270872	평 화 은 행 : 039-21-0020-691

옴부즈맨 통신

알림방

저희 EVENT NEWS는 독자 여러분의
글을 기다립니다. EVENT NEWS에
하고싶은 말이나 소감, 새로운 소식들을
우편이나 팩스에 담아 보내 주십시오.
채택된 글은 본지에 게재되며 그달치
책자를 보내드립니다.

보내실 곳: 우 135-010
서울 강남구 논현동 65-2 아취B/D 2F
EVENT NEWS 옴부즈맨 통신 담당자 앞
FAX (02)542-7500 TEL (02)540-4602-3

우편엽서

우 표

보내는 사람

이름	나이	(남.여)
근무처 및 학교	직위	
주소	TEL	

□□□-□□□

받는사람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65-2 아취B/D 2F
EVENT NEWS 편집부 앞

1 3 5 - 0 1 0

충고의 말씀

이벤트 뉴스의 귀(耳)는 항상 열려있습니다. 독자의 의견을 보내주세요. 저희는 여러분의 충고가 필요 합니다.

<p>이번호 기사중에서 도움이 되었거나 좋았던 점을 (구체적으로) 적어 주세요.</p>	<p>이번호 기사중 기사내용에 의의를 제기하고 싶으시거나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시는 부분을 따끔하게 충고해 주세요.</p>
<p>취재해주시기 바라시는 기사나 테마에 관하여 적어 주시겠어요? (인물, 사건, 현장 장소)</p>	<p>마지막으로 궁금한 점이나 개인 의견을 부탁드립니다.</p>
<p>이벤트 뉴스 표지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호 표지에 대한 여러분의 아이디어와 견해를 적어 주세요.</p>	<p>사람들 코너는 여러분이 만나고 싶어하는 분들과의 지면을 통한 시간입니다. 이야기 듣고 싶은분이나 추천하고 싶으신 분을 적어 주세요.</p>

이벤트 뉴스 정기구독 신청카드

■ 신청인성명	(인)	■ 전화번호
■ 책을받을 주소		
■ 근무처 및 학교		
■ 구독기간	199 년 월호부터	199 년 월호까지
■ 정기구독료는	월 일까지	은행으로 송금하겠습니다.
■ EVENT NEWS 정기구독료는 30,000원입니다.		
■ 신청인의 연락처가 불분명하거나 도장이 찍히지 않은 신청서는 접수하지 않사오니 정확한 기재를 부탁드립니다.		

이와같이 이벤트뉴스 정기구독을 신청합니다.

199 년 월 일



세상에서 오직 하나뿐인 꽃- 거인이벤트!

이벤트는 정보, 전략, 기획, 아이디어라는 자양분을 먹고 사는 이 세상에서 오직 하나뿐인 꽃과 같습니다.

거인 이벤트는 법인전환 1차년도 매출액 10억, 2차년도 매출액 30억, 3차년도 매출액 50억, 4차년도 1995년도 매출목표 100억- 국내 이벤트업계에서 거인은 이미 독보적인 위치를 굳혔습니다.

‘이벤트만은 세계 누구에게도 뒤질수 없다’는 신념으로 이벤트에 몸을 던져 이땅의 이벤트 꽃을 피우며 그 영역을 넓혀가는 거인의 사람들입니다.

SP행사, 전시박람회, 공연, 패션쇼, 사내행사, 공익행사, OPENING CEREMONY, 지역홍보행사, 지역문화축제등 다양한 열매를 맺기 위해 청초하게 피어나는 단 한송이 꽃- 이꽃을 귀사의 가슴에 달아들이겠습니다.

서울시 중구 장충동1가 119번지 일산B/D

代表電話:2726-114

企劃局:(대)2636-114,274-9790~6 FAX:2666-114

制作局:(대)2683-114,274-9414~7 FAX:7571-114

컨설팅1과:(대)2743-114,274-9411~7

컨설팅2과:(대)2735-114,274-9780~4

레포츠회사본부

제1사업부:(대)2699-114,269-7142 FAX:263-3585

제2사업부:(대)5666-114,539-2442 FAX:501-7897

제3사업부:(대)5081-114,508-1112 FAX:508-1119

제4사업부:(대)2637-114,263-3581 FAX:263-3585

제5사업부:(대)5639-114,568-9495 FAX:568-3788

제6사업부:(대)2783-114,278-1376 FAX:263-3585

행사문의 클로버 서비스

080-211-6114



무한한 가능성에도전하는 사람들-

株式會社 거인 이벤트

소비자를 즐겁게 하는 광고, 광고주를 기쁘게 하는 광고.
**소비자 가슴을 꿰뚫는
 큐피드의 화살.**

**Wincommunications**

**‘市場에서 이기는 廣告’를 만드는
 전문가 그룹입니다.**

시장에서 잘 팔리는 제품뒤에는
 패배를 모르는 광고가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마케팅 환경과 치열한 광고전쟁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길은 오직 -
 소비자를 움직이는 크리에이티브와 이를 뒷받침하는
 치밀한 마케팅전략에 달려 있습니다.
 철저한 장인정신과 크리에이티브를 먹고사는
 마케팅·커뮤니케이션 전문가들이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질높은 광고를 만들기 위해
 광고대행사 **주원스콤**에 모였습니다.
 과학적이고 전략적인 분석과 검증을 거듭하여
 소비자를 정확히 분석하고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주원스콤의 모든 광고는 소비자를 먼저 생각합니다.
 사람의 체온을 느낄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주원스콤**
 제품만을 내세우는 마이다스의 차가운 손이 되기보다
 소비자의 가슴을 사로잡는 큐피드의 화살이 되고 싶습니다.

TV-CM · RADIO CM · 신문광고 · 잡지광고
 CATALOGUE · P.O.P & Sign · C.I.P
 RESEARCH · 간행물 및 사보제작 · EVENT 전문지 발행

**주식
 회사 원스콤**
 WINS COMMUNICATIONS Inc.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65-2

TEL : (02)540-4602/3 FAX : (02)542-7500